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7

통일애국에 바쳐진 삶은 세월이 흘러도 민족과 더불어 겨레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법이다.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7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차 례

조소앙편

상해림정의 망명객 ………………………………… 8
《단선단정》의 회오리속에서 …………………… 16
민족대회합의 장으로……………………………… 25
통일애국에 온넋을……………………………… 46
신념으로 오른 북행길…………………………… 57

오하영편

기미년의 민족대표……………………………… 73
탁류속에서……………………………………… 84
대양의 품에 안기여…………………………… 92
영생하는 통일애국의 삶……………………… 98

최태규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113
꼭두각시의 탈을 쓰고……………………… 121
참다운 삶의 품에서 ……………………… 134
무한한 포용력에 감복하여 ……………… 142

채종만편

망향의 언덕에서 ……………………………………154
민족의 얼과 넋을 지켜……………………………161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171
인생의 좌우명………………………………………184

오익제편

탈선, 방황 …………………………………………197
허울을 불사르다 ……………………………………207
민족의 한울님을 우러러 …………………………216
신인간으로 태여나다 ………………………………228

조소앙 편

상해림정의 망명객 ········ 8
《단선단정》의 회오리속에서 ········ 16
민족대회합의 장으로 ········ 25
통일애국에 온넋을 ········ 46
신념으로 오른 북행길 ········ 57

경력

- 1887년 4월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
- 1919년 4월 상해림시정부 비서관.
- 1927년 상해림시정부 국무위원, 외무총장.
- 1937년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
- 1947년 2월 국민회의 의장.
- 1948년 12월 사회당 당수.
- 1950년 5월 남조선《국회》의원.
-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
- 1958년 9월 사망.
- 1990년 8월 조국통일상 수상.

민족의 불행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마련이다.

수천년을 두고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분렬의 고통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어느덧 76년이 넘었다. 이 기나긴 나날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작가 김상훈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혈육의 아픔을 시 《철새》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제 아비의 얼굴도 못본채 어른이
  되여버린 손자와
손자가 너무도 제 아비를 닮아
자꾸만 마음이 저릿해오는 늙은 할머니가
마당가에 함께 서서 철새를 보고있다

철새의 등에 실려 흘러간 세월은
서른번의 겨울이요, 서른번의 봄인데
남북의 길은 하늘에만 열려있어
할머니와 손자는 땅이 서럽다
…

흐르는 물줄기가 바다를 이루듯
한곬으로 모아야 할 만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가시줄에 얽매여있어
혈육의 몸부림을 겹겹이 싸안고
할머니와 손자가 철새를 보고있다

저 하늘에서 철새는 자유로이 오고가건만 그 하늘아래 땅우에서는 한피줄을 이은 부모처자가 분렬의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이 비극적현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이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여왔다.

한몸을 그대로 통일의 제단에 바친 수많은 애국인사들중에는 조소앙도 있다.

김옥균이 주도한 부르죠아혁명인 갑신정변과 일제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1880년대에 태여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의 일념을 안고 타향으로, 이국으로 떠돌며 독립운동에 몸바쳐왔다.

그 나날속에 그는 상해의 프랑스조계지의 초라한 건물에 자리잡았던 상해림시정부의 고위직도 맡아보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나라들에 가서 조선을 독립시켜줄것을 애원하다가 차디찬 문전거절도 당하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령수를 모시지 못하여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음을 뼈속까지 새기며 방황속에 모대긴 조소앙.

해방후에 그는 서울에 돌아와 국민회의 의장,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분렬시켜 저들의 권력야욕을 이루어보려는 리승만패당의 《단선단정》책동을 반대하여 동분서주하기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런 그에게도 따사로운 운명의 해살이 찬연히 비쳐왔으니 그것은 그가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가르치심을 받던 그때부터였다.

그때로부터 조소앙의 인생은 진정한 애국과 통일에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참된 애국의 길인 북행길에 주저없이 올랐으며 그 길우에서 인생말년까지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 사후 수십년이 지난 후 조국통일상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도 받아안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인사들이 영생의 언덕우에 높이 서있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는 조소앙의 묘도 있다.

화강암으로 다듬은 묘비에 돌사진으로 새겨진 조소앙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에게 이렇게 웨치고있는듯싶다.

《참된 통일애국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따르는 그 길에 있다.》고.

상해림정의 망명객

조소앙은 1887년 4월 경기도 파주의 량반가문에서 태여났다. 부모들이 지어준 본명은 《용은》이였지만 커서 스스로 《소앙》이라고 고쳐 지었다고 한다.

그가 태여날무렵 우리 나라는 쇄국을 고집하는 봉건통치배들과 개혁을 요구하는 혁신관료들사이의 갈등과 대립, 허약하기 그지없는 봉건국가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면서 영향력을 행세하려는 대국들사이의 란투극이 그칠새없는 혼란에 휩싸여있었다.

남들은 기차와 군함을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갓쓰고 하늘소타고 음풍영월하던 봉건통치배들때문에 망국의 운명은 시시각각 가까와지고있었다.

이러한 혼돈의 소용돌이속에서 조소앙은 10대후반기를 성균관의 마지막학생으로 있으면서 유년시절을 보내였다.

1910년 8월 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이후 조소앙은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나기 몇달전 만주에서는 신채호, 김좌진, 안창호 등 이름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3.1인민봉기당시의 독립선언서와 구별하여 《무오독립선언》이라고 불리운 이 선언문을 쓴 사람이 바로 조소앙이였다.

《군국주의전제체제를 쓸어버리고 민족간평등을 전 지구에 실현하는것이 우리 독립의 첫번째 뜻이며… 모든 동포에게 평등한 부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남녀빈부의 차별을 없애는것이… 우리 건국의 기발이다.》

선언의 이 구절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조소앙은 독립투쟁의 초시기부터 정치, 경제, 교육 세 부문에서 평등을 실현한다는 《삼균주의》를 자기의 정치리념으로 삼고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후에 림시정부가 조직되였을 때 그의 《삼균주의》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해 정권을 균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해 리권을 균하고 국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한다.》라는 구절로 《건국강령》에도 담겨지게 되였다.

이 시기 국내외에서는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독립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1918년 12월 일본 도꾜에서는 600여명의 재일조선인류학생들이 웅변대회를 열고 청년학생들이 반일독립운동의 기수가 되여 이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열렬히 호소하면서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하였다. 다음해 2월 조선청년독립단은 도꾜에서 학생총회를 열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작성된 독립선언서는 어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기어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우리 인민의 지향과 애국적투지를 반영하였다.

국내에서도 1919년 3월 1일 평양과 서울 등 여러곳에서 대중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났다.

3.1인민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이 온 세상에 과시되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다.

3.1인민봉기의 열기가 계속 고조되던 1919년 4월초순 상해에 모여있던 조소앙을 비롯한 독립운동자들은 금후 반일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론의를 거듭했다. 그들은 빠리강화회의나 국제련맹설립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독립청원운동은 독립운동단체의 명의가 아니라 망명정부의 명의로 진행하는것이 적법성도 띠고 효과도 크리라는것, 당면한 독립운동의 중심지, 망명정부의 소재지로서는 상해의 프랑스조계지가 합당하다는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그리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이 상해에 모여들었는데 그 수는 무려 1 000여명이나 되였다.

4월 11일 손정도목사의 제의에 의해 상해 프랑스조계지에

수십명의 대표들이 모여 망명정부를 세우기 위한 림시대표회의를 연데 이어 며칠후에는 초라한 세방건물에 림시정부의 간판이 내걸리게 되였다.

대부분이 현지에 있지도 않는 인물들로 조각한 지상공문격의 각료명단이 발표되고 림시정부의 간판아래 조소앙도 국무원 비서관이라는 직무를 맡아안았으며 낡아빠진 책상 하나를 차지하고 자리를 잡았다.

상해에 간판을 내건 림시정부는 첫 국정업무로 빠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림시정부 외무총장의 직함으로 외교를 할수 있도록 《외무총장 겸 전권대사》라는 신임장과 활동자금을 보내주는 일부터 하였다.

김규식은 1919년 5월 빠리강화회의에 참가한 미국대통령 윌슨, 영국수상 로이드 죠지, 프랑스정부수반 클레망소 등의 앞으로 《조선독립에 관한 탄원서》와 《조선민중의 주장》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윌슨을 비롯한 전승국대표들은 조선독립청원 같은 것은 성격상 새로 창설될 국제련맹에나 제출해보라고 하면서 그 문서를 거부하였다. 결국 김규식은 회의장인 베르사이유궁전 문앞에 가보지도 못한채 주저앉았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상해림정에서는 《청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조소앙을 빠리로 보냈다.

그해 6월초 빠리에 도착한 조소앙은 빠리의 개인집에 숙소

를 정하고 협상국렬강대표들이 들어있는 호텔들을 찾아다니며 《구걸외교》를 계속하였다. 조소앙일행이 이처럼 분주한 활동을 전개하자 일본 외무성과 대회에 참석중인 일본대표들은 조소앙일행의 활약을 경계하면서 하루 세차례씩 프랑스 신문사들에 전화하여 조선대표가 부탁하는것은 무엇이든지 신문지상에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해공작을 집요하게 하였다. 결국 빠리강화회의는 《조선독립승인》청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응도 없이 6월 28일 페회하고말았다.

조소앙의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흘렀다.

아 조선아, 조선아, 정녕 너의 운명을 구원해줄 나라도, 위인도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냐.

그의 가슴에 나라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는 울분이 차고넘쳤지만 만리타향 빠리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도,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조소앙은 그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국사회당대회가 개최되자 여기에 참가하여 《조선독립승인결의안》도 제출해보고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만국사회당대회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여 다시 《조선독립문제실행요구안》도 제출해보았지만 아무런 소득도 거두지 못하였다.

빠리에서의 《청원외교》가 실패한 후 조소앙이 상해로 돌아와보니 림시정부에서는 리동휘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파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파사이에 파쟁과 갈등이 점점 치렬해지고있었다.

가뜩이나 유명무실한 림시정부안에서 이처럼 파벌싸움이 그칠줄 모르는 속에 1927년에 이르러 김구가 명색상 림시정부의 주석이 되였다. 림시정부는 김구와 조소앙을 포함한 6명의 국무위원이 동등한 자격과 권한을 가지는 정부체제로 개편되였다.

국무위원이 된 조소앙은 김구와 함께 1931년 10월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수십여명의 결사대원들로 조직된 한인애국단은 테로의 방법으로 일제의 고위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1932년 1월 도꾜에서 단원 리봉창이 왜왕 히로히또가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지만 명중하지 못하고 터지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그해 4월 29일에는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본군이 왜왕의 생일기념식을 할 때 단원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 상해지구 일본군사령관, 일본인거류민단 단장 등 여러명의 일본인 고위인물들을 천당으로 보냈다. 그해 5월 만주 대련에 도착하는 일본관동군 사령관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총재를 암살하기 위해 한인애국단 단원들이 무기, 폭탄 등을 준비했으나 비밀전문이 단서가 되여 놈들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홍구공원사건은 일제로 하여금 상해에 거류하고있던 반일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발악적인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 사건을 상해에 은거하고있는 림시정부라는 조선반일독립운동자들의 망명집단을 일망타진할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는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상해의 프랑스조계지에 마구 뛰여들어 안창호를 비롯한 십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체포하였다. 하여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인사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13년동안 머물던 상해를 떠나 피난의 길에 올랐다.

1932년 5월에 조소앙을 포함한 림정인사들은 항주에 림시정부사무실을 개설하였다.

항주의 림시정부안에서도 파벌싸움은 그칠새없이 벌어졌으며 그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의 침략을 피하여 림시정부는 정처없는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8년동안 수만리에 달하는 방랑생활끝에 림시정부는 1940년당시 중국 국민당정부의 수도였던 중경에 자리를 잡았다.

중경에 정착한 림시정부의 꼴은 말이 아니였다. 중경의 빈민굴에 정한 거처지들이 계속 폭격을 받다보니 네번째만에야 한구석에 겨우 청사를 정했다. 가족들은 국민당정부가 중경교외에 지어준 세채의 토굴집에서 집단숙식을 하였다.

생활은 더 말할 형편도 못되였다. 《상해거지떼》가 중경에 그대로 옮겨앉았을뿐이였다. 굶기가 례상사였고 꿰진 양복 한벌을 번갈아 입으며 바깥출입을 했다. 급식조건이 한심

한데다가 기후까지 습하여 명색이 망명정부의 주석인 김구의 아들을 비롯한 수십명의 인원을 낯설은 중경땅에 묻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속에서 조소앙은 망명림시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얻는 외교활동도 벌려보고 일제와 무력으로 맞서기 위해 불과 수십여명의 인원으로 광복군을 조직하는 사업에 나서는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당시 조소앙의 비서였던 최덕신이 광복군 선전과장으로 된것도 그무렵이였다.

조소앙이 상해림정에 몸을 담그고 20여년세월 동분서주해봤지만 파쟁과 갈등속에 그 형체만 겨우 유지해온 식민지망명정부인 림시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말그대로 걸음마다 좌절이요, 기대했던 곳마다 쓰디쓴 환멸뿐이였다.

결국 조소앙은 멀리 타국에서 망명객의 초라한 모습그대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단선단정》의 회오리속에서

1945년 8월 15일, 왜왕 히로히또가 라지오를 통해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항복선언을 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해방작전을 개시한지 불과 한주일도 못되여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조국이 해방되였던것이다.

해방의 환희에 휩싸인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인사들은 귀국할 준비를 서둘렀다. 당시 림정인사들의 계획은 림시정부의 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집단적으로 귀국하는것이였다. 하지만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 시도는 좌절되였다.

조소앙을 포함한 림정요인들은 할수없이 중경을 떠나 상해로 나온 다음 상해에서 개인자격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나뉘여 미군수송기편으로 귀국하였다.

8.15해방이 가져다준 현실은 북과 남이 너무도 판이하게 달랐다.

북반부에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민주의 새 질서와 정연한 인민정권체계가 섬으로써 건국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다.

그러나 남반부는 혼란된 정국과 사회적무질서속에 매일같이 새 정당, 새 단체가 속출되고 입개나 놀리는 사람은 저마다 《애국자》로, 《정치가》로 자처하면서 좌파, 우파, 중도파 등 각양각색의 파벌세상으로 화했다.

한쪽에서는 재건파공산당이라는것을 급조한데 이어 건국준비위원회를 자기의 심복들로 장악한 박헌영이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부르죠아공화국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우익반동세력들은 그들대로 《조선인민공화국 결사반대》, 《중경림시정부 지지환영》, 《미국 지지환영》의 세가지 구호를 명분으로 한국민주당(한민당)이라는 우익반동정당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정치무대에서는 재건파공산당과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동조하고 중경림시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을 좌익으로, 재건파공산당과 《조선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중경림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을 우익반공으로 간주하는 좌우익세력이 대립하게 되였다.

이러한 속에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인사들은 비록 개인자격으로 미군용비행기에 짐짝처럼 실려 귀국했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중경과 상해에서 인쇄해온 림시정부의 《삼균주의건국강령》과 각료명단을 수천매나 삐라로 뿌리기도 하고 벽보로 붙이기도 하면서 법통망명정부의 귀국을 과시하였다.

1945년 12월에 발표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둘러싼

좌우익세력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남조선정치정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당시 3국외상회의에서는 쏘련측의 의견에 따라 조선인민에게 주권을 넘기고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며 조선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간의 후견제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그러자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를 시켜 남조선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에 미국은 조선에 즉시 독립을 주려고 하였지만 쏘련의 주장으로 5년간의 《신탁통치》제가 채택된듯이 흑백이 전도된 보도들을 싣게 하였다.

하여 12월 27일 《동아일보》 1면에는 이런 기사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워싱톤 25일발 합동 지급보

<쏘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사실 3국외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을 제기한것은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미국은 회의에서 저들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자 결정서에 쪼아박은 후견제를 《신탁통치》로 바꾸는 방법으로 남조선민심을 기만하였다.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에 대한 찬반은 당시 남조선의 복잡한 정계를 좌와 우, 애국과 매국을 갈라놓는 매우 첨예한 기준으로 되였다. 결정을 반대하는 우익세력이 《반탁, 반공, 애국》을 자처하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좌익세력을 《찬탁, 용공,

매국》으로 몰아 백주에 백색테로까지 감행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 1946년 2월 서울시 중구 명동에 있는 카톨릭교성당에서는 우익세력이 주최한 비상국민회의가 개최되였다.

이 회의에서 과도정권수립을 위한 최고정무위원 28명의 선출권을 리승만과 김구에게 일임하였다. 그러나 선출권은 명색뿐이였고 최고정무위원 28명을 일일이 미군사령관 하지가 지명하였으며 그속에는 조소앙의 이름도 있었다.

2월 14일 미군사령관 하지의 주재하에 미군정청 중앙회의실에서 최고정무위원 28명을 성원으로 하는 이른바 《민주의원》개원식이 열리였다. 하지가 개원식축사에서 《<민주의원>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의 자문기관이다.》라고 언명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민주의원》이란 철두철미 남조선에 미국의 꼭두각시정권을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기에 조소앙은 《민주의원》에 대해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관여한바 없다.)이란 특별성명을 내고 개원식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인민당위원장 려운형도 《민주의원》을 사퇴한다는 성명을 냈다.

미국의 《민주의원》조작의 음흉한 범죄적목적을 뒤늦게 간파한 김구, 조완구도 《미군정과 리승만의 야합에 의한 <민주의원>조작으로 림정법통은 망조에 들었다.》, 《림시정부

가 26년동안이나 지켜온 애국수절이 비상국민회의구성으로, 과도정권수립으로 이어질줄 믿었는데 이렇게 무참히 망하다니 분하고 원통하도다.》라고 격분을 터뜨리면서 《우리(김구, 조소앙, 조완구)는 <민주의원>에 불참하겠다.》고 들이댔다.

바빠맞은 하지는 《민주의원》청사를 창덕궁안 인정전의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는 림정법통의 계승체인 비상국민회의청사를 두며 《민주의원》 의원전원에게 고급승용차를 제공하고 신변호위를 해주며 《민주의원》에서 과도정권수립을 위한 《헌법》을 기초하는 《헌법기초위원회》사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림정인사들을 회유하였다. 결국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계민족주의자들은 이 얕은꾀에 롱락되여 미군정자문기관인 《민주의원》에 참여하게 되였다.

미국은 1946년 5월 통일적인 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위한 제1차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는 리승만을 부추겨 숭미반공세력의 구축과 그에 의한 남조선 《단독정부》조작책동을 다그쳤다.

이로부터 리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벌려놓은 이른바 《환영대회》에서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림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것을 조직해야 하겠다.》고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음모를 공식적으로 발설하는데 이르렀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좌우합작》에 의한 《정권》조작책동을 획책하였다.

그해 7월에 발족된 좌우합작위원회는 려운형을 비롯한 좌익대표들이 탈퇴한 속에서도 미군정청이 지시한 과도립법의원설립을 위하여 《관선의원》 45명은 하지가 임명하고 나머지 45명은 미군정이 주관하는 간접선거로 선출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소앙은 림정계민족주의인사들과 함께 미군정의 비호밑에 좌우합작위원회가 림정의 법통을 무시하고 좌우합작위원회를 《과도정부》로 개조변형하는 식의 남조선 《단독정부》조작을 서두르고있는데 대하여 《환상》적인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조소앙은 한국민주당 당수 김성수가 《과도정부》의 《수반》자리를 노리고 서울시 《민선의원》후보로 나서자 김성수의 과도립법의원진출을 저지파탄시킬 목적으로 1946년 11월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별안간 그의 경쟁후보로 나섰다. 예상대로 조소앙이 당선되고 김성수는 락선되였다. 그러나 좌우합작자체를 부당한것으로 인정하면서 김성수를 꺾어버릴 목적으로 출마했던것만큼 당선되자마자 그는 곧 《사퇴》성명을 발표하고말았다.

또한 한국독립당의 중진들인 조완구, 엄항섭과 민주통일당 창당준비위원장 홍명희도 본인들과의 사전량해나 승인도 없이 좌우합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하지가 임명한 《관선의원》으로 신문, 방송에 발표되자 좌우합작위원회의 철면피성을

규탄하면서 《관선의원》거부성명을 냈다.

이로써 미군정이 조작해낸 과도립법의원은 개원전에 벌써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고말았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통일적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가 재개될 정국이 조성되자 미국은 쏘미공동위원회재개를 파탄시키고 리승만중심의 남조선 《단독정부》조작과 과도립법의원을 통한 남조선 《과도정부》조작을 성사시켜보려는 복선책동에 달라붙었다.

이에 대하여 조소앙은 리승만중심의 《단독정부》조작책동도, 과도립법의원을 통한 《과도정부》수립책동도 반대하였으며 쏘미공동위원회를 통한 통일적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안도 구경에는 림정법통을 계승한 자주적인 《과도정부》수립기도를 부정하는것으로 간주하고 반기를 들었다.

미국은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계인사들의 이러한 립장을 악용하여 《반탁》이란 명목아래 그들이 쏘미공동위원회재개를 반대해나서도록 부추기였다. 이것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의 결정을 전폭지지한 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이 발표된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였으며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춘 매국배족적인 행위였다.

후날 남조선의 한 잡지가 《림시정부의 <반탁운동>은 함께 <반탁운동>로선에 선 리승만과 한국민주당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은 곧 <단선단정>로선으로

이어지게 되였고 남조선 <단독정부>수립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고 평한데서도 잘 알수 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있는지도 모르고 조소앙은 림정인사들과 함께 미국의 비호묵인밑에 쏘미공동위원회재개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이라기보다는 림정의 법통을 계승한 과도정권수립을 명분으로 《반탁운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창덕궁 인정전에 자리잡은 림정법통을 계승한 비상국민회의는 1947년 2월 200여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전원회의를 열고 국민회의로 명칭을 고치였으며 조소앙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던 1947년 5월 제2차 쏘미공동위원회가 재개되였다.

조소앙을 포함한 림정계민족주의자들이 우익반공세력에 속했다고는 하지만 리승만계렬로부터도 랭대를 받고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지지하는 좌익세력으로부터도 《완고한 반공파》로 규탄배격을 받았다. 결국 조소앙이 몸담고있던 한국독립당은 1947년 여름에 이르러 좌우에서 협격을 받고 몰리우는 신세에 처하게 되였다.

1947년 8월 미국은 남조선 《단독정부》조작책동에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모든 민주력량과 좌익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8.15폭동음모사건》이라는 모략극을 날조하였다. 그리고는 근로인민당, 남조선민전, 전평, 전농 등 대중단체들과 애국인사들에 대한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애국적민주정당,

단체들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비법화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하여 남조선 《단독정부》조작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마련해놓은 다음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는 범죄적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마샬은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이 침체상태에 빠진 책임을 쏘련측에 넘겨씌우면서 《조선문제는 미국과 쏘련 량국으로써는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유엔에서 토의하여야 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 의도는 명백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져널 앤드 아메리칸》(1947년 9월 17일부)은 미국의 속심이 《38°선이북에 놓여있는 조선의 절반을 될수 있는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공화국을 세우려는것》이라고 까밝혔다.

미국은 유엔에서 제정된 국제법의 규범과 의무에 구애됨이 없이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이른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라는 꼭두각시기구를 조작하였다. 여기에는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음흉한 침략목적이 깔려있었다.

미국의 음모적인 각본에 따라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지맥으로 잇닿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어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해방자》의 탈마저 벗어던지고 조선반도를 아시아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본심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낸 미국의 위선적정체에 조소앙은 분노로 치를 떨었다.

민족분렬의 검은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는 엄중한 사태앞에서 조소앙의 가슴속에는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앞날에 대한 우국지심이 천근, 만근의 무게로 차올랐다.

민족대회합의 장으로

미국이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감으로써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통일적인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급변한 정치정세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고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7년 10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여 미국과 리승만패당의 《단독정부》

조작음모를 짓부시고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대책으로서 남북협상, 남북회담을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남북협상은 소범위의 지도자회담형식으로도 할수 있고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협의회나 련석회의형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제일 좋기는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남북의 애국적민주력량이 굳게 단합하여 조선에서 쏘미 량군을 철거시키고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민주주의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의에서 밝히신 북남협상방안은 조국의 통일독립의 기치아래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전민족적통일전선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밝힌 명철한 가르치심이였다.

마치 긴 가뭄끝에 내린 단비와도 같은 이 협상방안을 받아안은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그에 적극 호응하여 《쏘미 량군 동시철퇴와 남북요인회담소집》을 당의 당면투쟁로선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이 주동적으로 나서서 남북

요인회담의 성사를 위해 민주독립당(위원장 홍명희) 등과 공동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독립당이 좌우협격에서 벗어나 광범한 애국적민주세력에 합류해나갈수 있는 생문방》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소앙이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북남협상방안을 적극 지지한데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보천보전투소식을 전해들은 때부터 그이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인으로 숭배해온 그의 마음속진정의 분출이였다.

하기에 조소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북남협상방안에 접한 후 1947년 11월 한국독립당과 민주독립당의 공동발기로 남조선 각 정당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남조선의 16개 정당중에서 한국민주당을 비롯한 3개의 정당이 불참함으로써 13개의 중간 및 우익정당들이 참가한 이 협의회가 력사에 《13정당협의회》로 전해지는 초당파적인 련합회의였다.

한편 이른바 과도립법의원에 들어가 미국의 식민지군정통치에 정치적으로 리용당하던 김규식을 비롯한 림정계의 민족주의지도급인사들도 북남협상에 의해 민족자주적립장에서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구호밑에 민족자주련맹을 결성하였다.

이렇게 되여 남조선정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북남협상방안에 호응하는 첫 결실로서 한국독립당의 조소앙,

김구, 엄항섭, 민족자주련맹의 김규식, 최동오, 민주독립당의 홍명희를 비롯한 남조선의 우익 및 중간정당, 단체 인사들을 망라한 힘있는 북남협상파가 대두하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8년 1월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시여 북남협상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련이어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일념과 무한한 포옹력에 고무된 조소앙은 북남협상방안을 적극 지지하는 립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배격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과 보조를 맞추어나갔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미국은 소위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비법적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흉계를 꾸미였다.

당시 《유엔림시조선위원단》 의장 메논은 조선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총선거를 가능한 지역인 남조선에서만 추진시키자는 이른바 《제1안》을 제기하였다. 2월 25일 미국대표 필립 제섭은 유엔소총회에서 메논의 《제1안》에 따라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할것을 제기하였다. 다음날인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미국은 거수기를 발동하여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단독정부》를 세운다는 저들의 제안을 강압통과시키였다.

유엔에서의 《단선단정》결의안의 통과로 민족분렬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게 되였다.

이러한 때인 1948년 3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민전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반동적 남조선 단독정부선거를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라는 연설을 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분렬시키려는 미제의 속심을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연설에서 전체 조선인민과 모든 민주력량과 또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모든 애국적 인사들이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우리 인민을 또다시 노예로 만들려는 적들의 교활한 음모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남조선정계 특히 북남협상파세력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접한 조소앙은 김구, 김규식, 홍명희 등 7인과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가진 끝에 3월 1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7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통일과 독립은 우리 전민족이 갈망하는바이다. …우리 몇사람은 반쪽강토에 <중앙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른바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통일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여생을 바칠것을 동포앞에 굳게 맹세한다.》

조소앙을 비롯한 애국인사들이 이렇게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해나서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월 15일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시였다.

이 서한을 받아안은 조소앙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남북련석회의의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열렬히 호응하여나섰으며 남조선 단독선거조작책동을 반대배격해나섰다.

이렇듯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1948년 4월 3일 북남협상파세력인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 천도교청우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근로대중당, 독립로동당 등 대부분의 우익 및 중간정당들과 100여개 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필동의 역경원에 모여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조소앙이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이 결성모임에서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하려는 미국과 유엔에 엄중히 항의하는 결의문과 민족통일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전민족적으로 지지하여 일체 필요한 원조운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북련석회의개최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미국과 리승만도당을 비롯한 우익반동들의 방해와 모략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자들은 조소앙을 비롯한 인사들에게 협박전화를 걸고 북행반대시위도 벌리는 등 별의별 압력을 다 가했다. 온갖 회유와 압력으로도 협상파의 북행의지를 꺾을수 없게 되자 4월 6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남북련석회의참가자는 《공산분자》나 《용공분자》로 몰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을 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방해책동도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성스러운 길에 들어설것을 결심한 조소앙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4월 20일 조소앙은 조완구, 엄항섭 등 한국독립당의 요인들과 함께 평양을 향해 서울을 출발하였다. 그들과 함께 건민회, 삼균주의청년동맹, 민족문제연구소, 독립운동자동맹, 학병거부자동맹, 민족해방청년동맹, 청년예지회 등 여러 단체 대표들과 수원들이 탄 자동차행렬이 공개적으로 기세당당하게 수백수천군중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을 떠나 평양을 향해 달리였다.

38°선을 넘어서니 북측영접일군들이 따뜻이 일행을 맞이하였다.

조소앙일행은 4월 21일 새벽 특별렬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바야흐로 나라에 조성된 영구분렬의 국난을 타개하고 정견과 신앙, 당파소속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질 력사적회합의 시각이 다가오고있었다.

1948년 4월 19일 전체 조선인민의 열렬한 지지속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성대히 열리였다.

북남조선의 56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한 남북련석회의에서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열망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으며 회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조선정치정세

둘째, 남조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할데 대한 투쟁대책

회의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 두번째 날인 4월 21일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고에서 북조선정세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의가 가지는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신 다음 이 력사적인 회의에서 우리는 남북조선의 정치정세를 기탄없이 토의하고 민족분렬의 위기를 뚫고나갈 근본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우리 나라가 분렬되게 된 경위를 밝히시고 북남조선의 판이한 현실에 대하여 언급하신 다음 그이께서는

북조선정치정세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조선에서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인민정권에 의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와 그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그리고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결성되고 거기에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됨으로써 각계각층 인민들이 집결되여있는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의 분렬을 꾀하는 외세와의 투쟁정형에 대하여,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투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보고의 마지막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적력량을 단합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기도를 반드시 파탄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엄중한 때에 우리가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칠 일대 구국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족과 후손들에게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조선의 정치정세

를 명철하게 분석한 기초우에서 나라와 민족에게 닥쳐온 영구분렬의 위기를 막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으로서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조소앙은 이날 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력사적인 보고를 몇번이나 읽어보았다.

그는 민족주의진영에서는 일찌부터 《제일급리론가》로 자타의 인정을 받고있었다.

10대후반기에 성균관의 마지막학생으로 교육을 받은 그는 1920년대에는 《한살림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때 그가 작성한 《한살림당강령》에는 일제에 맞선 민족혁명을 1단계로 수행하고 2단계로 계급혁명을 추진하여 가난한이들이 주인이 되는 공생을 실현하며 계급혁명을 완수하면 다음단계로 아시아전체에서 사유재산제를 철폐해서 아시아한살림, 더 나아가 세계한살림을 실현한다는것이 적시되여있었다.

이를 위해서 신분차별철폐, 사적소유폐지, 남녀평등, 상비군폐지, 전쟁금지, 민족간련맹, 세계한살림을 실천강령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한살림당강령》이나 《삼균주의》와 같은 제나름의 리론도 만든 조소앙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를 읽고는 너무나 세찬 충격에

휩싸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읽고 조완구에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이시오.》라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다음날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회의에 늦게 참가하게 된 한국독립당 위원장 김구, 부위원장 조소앙, 상무위원 조완구, 민주독립당 위원장 홍명희선생들을 소개하시고 그들을 주석단성원으로 보선할것을 제의하시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를 열렬한 박수로 지지찬동하였다.

주석단에 오른 조소앙의 가슴은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여마지 않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우러러뵈온 흥분과 감격, 환희로 하여 끝없이 벅차올랐다.

하기에 축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그는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지금 나를 소개할 때에 선생이란 말씀을 하였는데 나는 여기에 항의합니다. 앞으로 사생을 같이하여 우리 민족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투쟁하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여기에 정신을 기울이고있는 남북애국동포들이 한마음한뜻

으로 더욱 뭉쳐서 과거의 모든 장애와 우리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반대하여 싸우는 용감한 같은 동지의 의미로서 접수할것을 바라는바입니다.

5천년 고도가 오늘날의 20세기의 새로운 문화정치의 대본영이 되여서 새로운 지침이 되고있습니다. 새 사회와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만당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같이 주먹과 머리로써 투쟁함으로써 결정적승리가 올것을 믿고 나는 미력하나마 과거의 투지를 아무런 거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계속하여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나아갈것을 여기에서 서약하고 여러분의 분투를 빌면서 나의 말을 그칩니다.》

제4일회의에서는 민주독립당 위원장 홍명희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을 맺었다.

《우리 조국을 분할하여 남조선인민들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키는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자기의 전 력량을 총집결하여 단독선거배격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남조선 단독선거를 파탄시켜야 할것이며 조선에서 외국군대를 즉시 철거하게 하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통일적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것이라고 인정한다.》

결정서는 전체 대표자들의 열광적인 박수로 절대적인 지지

를 받았으며 한사람의 반대도, 중립도 없이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남북련석회의는 참가자들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달랐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과 정확한 통일전선정책, 수령님의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결속되였다.

비록 회의는 끝났으나 조소앙은 련석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우러러뵈온 위대한 수령님의 출중한 풍모와 뜨거운 민족애에 감동되여 잠을 이룰수가 없었으며 그이를 다시 뵙고 가르치심을 받을것을 간절히 희망하였다.

조소앙을 비롯한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이러한 소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날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담에서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력량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시고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이 나아갈 앞길을 밝히시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국난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남의 민족주의력량과 북의 공산주의력량이 제휴합작을 실현하여 전국적인 통일전선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조소앙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시며 겨레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방도를 밝혀주신 그이에 대한 매혹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4월 25일에 진행된 남북련석회의를 경축하는 평양시민대회에 참가하여 더욱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자 무려 34만여명에 달하는 평양시민들이 줄지어선 대회장에서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장군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가 터져올랐다.

조소앙은 환희로 들끓는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분출을 보았으며 일제식민지통치의 사슬에서 벗어나 민주의 새세상을 맞이한 복받은 인민의 재생의 숨결과 새 조선건설의 영웅적기상을 목격하였다.

며칠후 조소앙은 김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고향인 만경대 방문소감을 듣게 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느낀 김구의 마음속진정을 들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해당 안내일군에게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를 잘 알수 있는 곳이 없는가고 제기하였다.

해당 일군은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사자료를 전시한

《**김일성**장군실》이 모란봉의 북조선국립중앙박물관(당시)에 있는데 지금 한창 꾸리는중이여서 정식 참관대상은 안되지만 조소앙선생이 참관하겠다면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조소앙은 한국독립당과 삼균주의청년동맹 대표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우익 및 중간세력대표들과 함께 《**김일성**장군실》을 참관하게 되였다.

사실 그때까지도 남조선대표들은 남북련석회의 주석단에 계시는 **김일성**장군님을 난생처음 우러러뵈오면서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빨찌산장군이였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만을 되새겨보았지 장군님의 혁명투쟁력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는 상태였다.

하기에 조소앙은 일행을 향하여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최일천선생이 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김일성**장군님이 이끄신 <조선혁명군>, <ㅌ.ㄷ와 **김일성**>, 종횡무쌍한 항일무장투쟁 등 단편적인 력사자료를 좀 알고있을뿐이요. 그러니만큼 오늘 우리일행이 남조선에서는 제일 선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투쟁력사를 알게 되는셈이요.》라고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박물관에 이른 대표들은 마당가 돌우에 전시해놓은 류다른 대포를 보게 되였다. 해설강사는 대포를 가리키며 1866년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키고 로획한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벌리신

반미애국투쟁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김일성**장군실》에 들어선 대표들에게 강사는 만경대고향집의 사진과 사적물을 가리키며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활동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어린시절에 대하여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조소앙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2살 어리신 나이에 단신으로 험산준령을 넘어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고 14살때에는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또다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강사는 이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서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초기혁명활동과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내용에 대하여 감명깊이 해설하였다.

특히 강사가 1937년 6월 4일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짚어가며 상세히 해설하자 조소앙의 가슴속에서는 당시 신문을 통하여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그날의 환희가 다시 솟구쳐올랐다.

그때 《**김일성**장군실》은 한창 자료를 보충하면서 꾸리는 중이여서 수령님의 혁명력사자료가 극히 일부만 전시되여있었다. 이런 사정에 대하여 량해해줄것을 바라며 강사는 그날 참관해설을 마치였다.

허나 그날의 참관은 조소앙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의 가슴속에 참으로 많은것을 새겨넣었다.

참관이 끝난 후 조소앙은 을밀대앞 록지에서 동행한 여러 대표들에게 만경대애국가문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장군님은 어린시절이야기를 들어보나 진정한 공산주의운동을 하시며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내용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나 정말 그 영명성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없는 위인중의 위인, 영웅중의 영웅이시라고 격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20대전에 민족의 태양으로 추앙받으시고 일본제국주의의 근본적타도의 기치를 드시고 20성상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신 **김일성**장군님은 우리 나라 수천년력사에서는 물론 동서고금에 처음으로 출현하신 최초, 최고의 령장이시오.

나는 일찌기 서방의 여러 나라와 쏘련과 중국 등의 당과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도 보았고 세계 각국의 명인, 위인전도 읽어보았지만 **김일성**장군님처럼 단번에 완전히 매혹된 위인은 없었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조소앙의 흠모심은 쑥섬협의회에서 더욱 끓어넘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의 애국인사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못내 아쉬워하시며 그간

긴장한 회의와 행사일정으로 쌓인 피로를 풀어주시려고 대동강 한복판의 경치좋은 쑥섬에서 협의회를 마련해주시였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있는 문제들도 명철하게 밝혀주고 특히는 남조선대표들이 돌아가 적극 투쟁할수 있는 방도들을 협의하자는데 목적을 두시고 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쑥섬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이 그동안 평양에 와서 벌린 활동과 남북련석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개괄하시고 그들이 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이 크고 자랑스러운 일이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남북련석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을 4개 항목으로 집약하여 강령화한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상기시키시고 오늘은 대표자련석회의와 지도자협의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을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게 기탄없이 협의하자고 하시였다.

남조선대표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한번 더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있었던터여서 궁금해하던 문제들과 소감과 의견, 제안들을 스스럼없이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발언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알고저 하는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명도 해주시고 제기된 의견

을 긍정도 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에서 망국적단선으로 괴뢰정부가 조작될 경우와 남조선에서 미군의 주둔이 계속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각종 투쟁형태들을 배합하여 어떻게 신축성있는 활약을 할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때로는 근엄한 안색을 지으시고, 때로는 환한 웃음을 띠우기도 하시며 뚜렷한 방략과 묘술을 거침없이 펼쳐가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조소앙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물론 중간과 좌익대표들인 홍명희, 백남운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은 모두가 지극히 명철한 가르치심이라고, 정말 묘안이라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대책들을 지지찬동해나섰다.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아량이 흘러넘치는 그이의 교시를 가슴에 새겨넣으며 조소앙은 북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참다운 통일애국에 나설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협의회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 시원한 강에 가서 휴식하자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사이강으로 나가시였다.

양복을 벗으시고 강물에 성큼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몸소 반두채를 잡으시고 고기잡이를 하시며 수원들에게 고기잡이 묘리를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반두를 들 때마다 붕어와 쏘가리는 물론 숭어와 잉어도 걸려들군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그 고기들로 어죽을 쓰라고 이르시고는 시원스럽게 헤염을 치시여 사이강어구에서 대동강으로 나가시였다.

그때 조소앙은 원두막에서 홍명희와 장기를 두고있었고 다른 인사들은 곁에서 훈수를 두고있었다.

그러던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립하전의 찬 강물에 들어가시여 천렵을 하시고 수영을 하시는것을 보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소앙은 이날 쑥섬에서 가진 오찬석상에서 《참말로 우리가 쑥섬에서 서로 흉금을 터놓은것은 남북협상의 성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은 공산주의의 령수이실뿐 아니라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한결같이 추앙하는 온 민족의 령도자이십니다.》라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김구는 조소앙을 비롯한 림정계인사들을 모아놓고 《통일천하하실 온 민족의 령도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 림시정부의 법통인장을 바치려고 하는데 의향들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림정의 법통을 계승한 국민회의 의장직을 맡고있던 조소앙은 《여지껏 우리가 림시정부의 법통고수를 주장한것은 미국과 리승만매국도당이 친미<정권>을 조작하고

그것을 림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것처럼 하려는 그 매국책동을 반대배격하자는데 그 진의가 있었습니다. 남북련석회의에 이어 쑥섬협의회에서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통일경륜을 높이 받들고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여 련공통일, 련공애국의 길에 떨쳐나설것을 맹약한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백범선생이 **김일성**장군님께 림시정부의 법통인장을 기꺼이 바치겠다는 제의에 찬의를 표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조소앙이 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평양에 와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옵고 체류하는 기간은 보름동안이였다. 그의 60평생에서 보름기간은 한순간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이 짧은 기간에 하나의 거대한 인생대학을 나오고 인류리상이 현실화되는 신천지를 발견한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조소앙에게 있어서 그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진정한 공산주의와 민족자주사상, 통일방략과 민족대단합로선, 열렬한 애국심과 숭고한 민족애, 고결한 인품에 반하고 매혹되여 련공애국에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참으로 뜻깊은 나날이였다.

통일애국에 온넋을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조소앙은 서울로 돌아온 후 남북련석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였다. 그는 먼저 조완구, 엄항섭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당면한 5.10단선반대투쟁전략을 토의확정하였다.

또한 조소앙을 비롯한 북남협상파세력 100여명은 합법적으로 공동성명과 담화, 목격담, 참관인상담을 통해 5.10단선반대와 미쏘 량군철수를 위한 남북련석회의 결정을 실현하며 특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온 민족의 령도자로 우러러 경모하고 칭송하는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갔다.

북남협상파세력과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매국적인 5.10단선은 사실상 파탄되였다.

미군정청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는 선거할수 있는 사람들의 80～90%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겨우 10～20%가 강압에 못이겨 투표에 참가하였을뿐이다. 결과 선거가 진행된지 보름이 넘은 5월 27일

까지도 30개 선거구의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주도인민들은 선거당일 대중적시위와 무장투쟁으로 반동경찰과 《국방경비대》를 제압하고 5.10단선놀음을 완전히 짓부셔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청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총 200개 선거구중 2개 선거구를 제외한 198개 선거구의 《당선자》를 공표하였으며 198명으로 5월 31일 《국회》를 구성하여 개원식을 벌려놓고 《헌법》제정과 《대통령》 및 《부통령》선출로 《단독정부》수립놀음을 벌렸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조소앙은 북남협상파세력의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신당을 결성하기 위해 5개월여에 걸치는 준비사업을 진행하였다.

신당창당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그는 1948년 10월 《한국독립당탈당과 사회당창당을 선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사회당창당에는 여러 계층의 통일애국인사들과 함께 《국회》내의 량심적인 무소속《국회》의원 수십명이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참가하였다.

1948년 12월 50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당창당대회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서 조소앙이 사회당 당수로 선출되였다.

사회당은 창당선언에서 《현실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독립과 남북통일을 완성하고 정치, 경제, 교육상 완전평등과

균등(삼균)사회건설에 일로매진할것을 전민족앞에 정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당의 《삼균주의》창당선언에 대해 우익반동들은 《삼균주의는 공산주의4촌쯤 된다.》고 비방하면서 조소앙과 사회당을 《용공》,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려고 책동하였다. 반동들의 탄압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은 남조선전역의 도, 시, 군에 당지부를 결성하면서 조직망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조직을 확대한데 기초하여 사회당은 북남협상파세력의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국회》안의 소장파로 불리우는 인사들과 함께 련공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사회당을 비롯한 북남협상파세력과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투쟁에 겁을 먹은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저들의 파쑈통치지배를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소동에 매달렸다.

리승만패당은 먼저 1949년 5월부터 서울지방검찰청을 발동하여 《<국회>프락찌야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는 수십여명의 소장파의원들을 체포, 구금, 처형하였다.

그리고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후 련공합작, 련공통일의 길로 일약 매진하고있는 통일촉진협의회 주석 김구를 백주에 그의 사무실에서 암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김구가 미국의 사촉을 받은 테로분자에 의해 살해되였다는 소식을 들은 조소앙의 가슴은 찢어지는것만같았다.

김구와 수십년세월 만리타향 상해에서부터 오직 나라를 독립시키겠다는 하나의 마음을 안고 동고동락하며 시련의 고비를 무수히 함께 넘고넘어온 조소앙으로서는 그가 그처럼 바라던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간것으로 하여 비분강개함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북남협상파세력의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 사회당을 비롯한 8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은 김구선생 국민장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김구와의 영결식장인 서울운동장과 연도에 모인 30만 추모군중앞에서 국민장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소앙은 《우리 민족이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백범선생이 죽음으로써 사수한 남북협상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남북이 합작해야 한다.》고 격조높이 웨치였다. 이에 호응하여 장의대렬에 참여한 수십만군중은 《미군 나가라!》, 《리승만<정권>을 타도하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통일선언서를 절대지지한다!》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미, 반리승만, 평화통일시위를 힘차게 벌렸다.

장례가 끝난 다음 조소앙은 김규식,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 등 지도급인사들과 회의를 열고 북남협상파세력의 정치적 진로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토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조소앙은 《원쑤들은 백범선생암살을 계기로 우리 북남협상파세력전체를 교살하려들고있다. 사실 백범선생의 암살로 우리 림정계민족주의세력, 북남협상파세력은 지금 위기국면에 처했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남협상을 지향하고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애국적인 각 당파, 정파, 저명한 각계 민주인사들과 합작단결하여 우리 북남협상파세력을 보다 넓은 평화통일세력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후 조소앙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여러명의 지도급인사들이 망라된 평화통일세력이 남조선정계에 등장하게 되였으며 이 세력은 《리승만과 그의 북침전쟁도발책동과 파쑈적경찰테로통치반대》, 《미군철거》, 《평화통일, 남북협상》을 자기의 강령으로 들고 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남조선의 정국은 망국적인 5.10단선에 의한 초대 《제헌국회》 의원의 임기가 1950년 5월에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제2대 《국회》의원선거열풍으로 들끓고있었다.

하여 1950년 3월 평화통일세력의 지도급인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조소앙은 《국회》의원선거에 평화통일세력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때 리승만도당은 북침전쟁도발을 앞두고 저들의 정치적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5월 30일로, 선거구를 210개로 확정공표하고 이른바 《반대없는 국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관권과 경찰이 판을 치는 선거놀음을 벌리였다.

여당인 《대한국민당》과 이전 《한국민주당》계의 민주국민당패거리들은 《국회》에서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당선이 가능한 평화통일세력의 최동오, 최일천, 김성숙을 비롯한 80여명을 체포구금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 또는 사퇴시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평화통일세력과 우익반동보수세력간의 5.30선거대결전에서 가장 치렬한 곳이 바로 조소앙과 민주국민당의 조병옥이 후보로 출마한 서울 성북구였다.

조소앙이 후보로 나서자 광범한 대중은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그것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북남협상참가자로서 북남협상파세력의 지도급인사라는 점과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평화통일세력의 대표적인 지도급인사라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한편 민주국민당의 조병옥으로 말하면 미군정청 경무국장을 하던자로서 망국적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떠선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우익보수깡패였다.

조병옥은 조소앙을 《용공분자》로 몰기 위해 《1948년에 남북협상에 다녀온것이 적색분자라는 증거》라느니, 《그의 삼균주의는 공산주의와 4촌》이라느니 하면서 매도해나섰다. 지어 조병옥의 지시에 따라 성북경찰서에서는 조소앙의 선거운동원 83명을 모두 체포구금하였으며 경찰화물차로 그의 집 담장을 밀어넘어뜨리기까지 하였다.

조병옥측의 선거운동원들은 《조소앙은 빨갱이다. 반대하라.》고 고아대며 그의 벽보나 현수막을 모조리 짓부셔버리고 그를 지지하는 기미가 보이는 사람은 보는족족 성북경찰서에 련행구금하였다. 심지어 조병옥은 선거전날인 5월 29일 성북구일대에 《조소앙이 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아쓴것이 탄로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월북했다.》는 벽보를 붙이고 삐라를 뿌리는 비렬한 소동까지 벌렸다.

조소앙은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5월 29일 밤부터 선거당일인 30일 새벽까지 찦차에 확성기를 달고 성북구 거리거리들을 돌면서 《여러분, 안녕하시오! 조소앙은 이렇게 건재하고있습니다.》라고 《월북》모략소동을 짓부셔버렸다.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된 5.30선거결과 사회당 당수 조소앙은 찬성 3만 4035표로써 민주국민당 조병옥의 1만 3498표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였다.

관권과 금권, 경찰력과 깡패, 테로단을 발동한 리승만직계

여당 《대한국민당》과 야당 민주국민당 등 우익반동보수세력은 부정투표, 부정개표 등 사기협잡으로써도 대참패를 면할수 없었다.

반면에 평화통일세력은 관권이나 금권은커녕 온갖 탄압폭행속에서도 선거자대중의 열렬한 지지와 환심의 표를 얻어 5.30선거에서 대승리를 쟁취하였다.

5.30선거에서의 대참패로 하여 리승만《정권》의 붕괴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친미사대매국노 리승만은 마지막발악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반대파들의 항거도 짓누르고 《북진통일》망상도 실현하려고 획책하였다.

리승만은 1950년 6월 12일 급기야 워싱톤에 있던 초대주미대사 장면을 특사로 파견하여 미국상전에게 저들의 붕괴위기에 대하여 보고하고 위기의 수습책으로 《미국의 신속한 원조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곧 리승만《정권》의 붕괴위기수습책으로서 북침전쟁도발준비의 완성을 다그쳤다.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국방성고문이며 전쟁상인으로 악명높은 죤 포스터 덜레스를 특사로 남조선에 급히 보냈으며 한편으로는 국방장관 루이스 죤슨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오마 브레들리를 도꾜로 보내여 미국동군 총사령관 맥아더와 더불어 전쟁도발날자 등 필요한 절차들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6월 17일 서울에 기여든 덜레스는 18일에는 38°선시찰에 나서서 남조선군을 북침전쟁도발에로 부추기였고 19일 제2대 《국회》개원식에 나타나서는 《국회》에서 공화국의 평화통일 방안을 거부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북진통일》을 암시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당신들은 언제나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것이라고 담보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하시였다.

하여 1950년 6월 7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평화적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여 그것을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였다.

호소문에는 다음과 같은 평화통일방책들을 제기하였다.

1. 오는 1950년 8월 5일부터 8일사이에 전조선적인 북남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적최고립법기관을 창설하여 8.15해방 5돐 기념일에 서울에서 최고립법기관회의를 소집할것.

2. 평화통일을 위한 제조건과 총선거실시의 절차, 총선거를 지도할 중앙지도위원회창설문제 등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17일사이에 해주 또는 개성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북남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소집할것.

3. 대표자협의회에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계속 반대하는 민족반역자들은 참가시키지 말것이며 조국통일사업에 《유엔조선위원단》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것.

하지만 리승만도당은 6월 9일부터 남조선전역에 사실상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평화통일제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면서 제안의 실현을 악착스럽게 방해하였다.

조소앙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5.30선거에서의 최고득표자라는 당당한 자세로 리승만에게 이렇게 들이댔다.

《북남협상파나 중도세력은 좌익과 가까우니 <보안법>으로 억눌러야 한다는 당신의 담화가 잘못되였다. 또한 북의 공산주의자들을 겨냥한 당신의 <북진통일>담화나 성명은 평화적자주통일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자극할뿐이니 앞으로 이를 지양하기 바란다.》

이어 6월 12일 사회당본부에서 열린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보고에서 조소앙은 《오늘날 평화통일은 애국이며 <북진무력통일>은 민족반역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격언대로 지금 민심은 평화통일 곧 애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통일을 주장한 후보자들이 천심의 계시와 민심의 축복을 받아 많이 당선된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사회당은 앞으로도 평화통일과 남북협상을 위하여 투쟁할 결의에 차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소앙을 비롯한 평화통일세력의 투쟁열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인 6월 19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여 이날 개원되는 남조선 제2대 《국회》에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특히 남조선《국회》의 다수를 장악하게 된 평화통일세력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조소앙은 조봉암, 안재홍 등 지도급인사들과 모임을 열고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한주일간 평화통일결의안을 지지찬동하는 《국회》의원들을 과반수이상 어김없이 확보하여 6월 26일(월요일)에는 긴급동의로 통과시킬데 대하여서와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식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밝힌 북의 통일제의를 지지할것을 역시 긴급동의로 통과시킬데 대해 합의하였다.

만일 미국과 리승만도당이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더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6월 19일의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이 남조선《국회》내에서 합법적인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평화통일세력에 의해 6월 26일에 통과될 전망은 확고하였다.

신념으로 오른 북행길

1950년 6월 25일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참패와 더욱 활발해진 평화통일세력의 투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6월 25일 전쟁개시보도에 접한 조소앙은 안재홍, 조봉암 등과 함께 《국회》부의장실에 모였다.

그들은 다음날인 6월 26일 《국회》에서 《평화통일결의안》을 통과시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데 대해 울분으로 가슴을 쳤다. 이날의 긴급모임에서는 6월 26일 사회당본부에서 평화통일세력 지도급인사들의 모임을 열고 전쟁에 대처한 평화통일세력의 립장과 거취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사회당본부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조소앙은 《무력통일을 획책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한 리승만도당을 지난 6월 12일 사회당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반역자로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반역적인 북침전쟁도발에 반공격을 가해나선 공화국의 대응은 최상의 애국적장거입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

하려던 정세적국면은 깨여지고 오로지 전쟁국면의 승리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과업이 나서고있는 정황에서 평화통일세력이라는 간판과 명목을 오늘 이 모임을 기해서 조국통일을 위한 련공애국세력으로 진보시키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그의 제의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이어 그는 미국과 리승만도당과의 전면적인 완전결별을 선언하면서 련공애국세력은 오직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따라 공화국기치하에 인민군대의 반공격전의 승리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을 절대지지하고 적극 협력해나설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6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영용한 인민군대에 의하여 서울은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종로와 광화문거리, 중앙청, 서울시청앞에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시위행진식이 진행되였다.

서울해방후 평양으로 간 조소앙은 평양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나 조소앙은 2년전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때와 이번 두번째 평양방문을 통하여 공화국의 훌륭한 자주자립정책과 민중복락의 정치를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

6.28서울해방을 통해 우리 남반부동포들도 이 훌륭한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였습니다.

이남에서 일신의 권력욕에 집착하여 반공의 탁류속에 오도된

정치인들은 회오와 질책의 반성으로 동족상쟁을 강요하는 미국과 리승만일파와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구한 5천년 한피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사의 소명에 부응하여 련공합작, 련공애국으로 통일성업에 기여할것을 우리 이남정치인모두가 명백히 선언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남으로 패주하는 <국군>장병들은 미국과 리승만일파를 반대하고 인민군의 편으로, 민족의 편으로 돌아서서 애국적의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남반부동포 여러분! 영용하게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환영하고 원호하며 패주하는 미제침략자들과 리승만일파를 저주하고 반대배격하는 의로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기를 호소하는바입니다.》

그의 방송연설은 남조선정치인들과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호소였다.

서울에 돌아온 조소앙은 김규식, 조완구, 엄항섭, 안재홍 등의 인사들에게 《이번 평양에 다녀온 제일 큰 성과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전쟁승리를 위한 확고한 방침과 정책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된것이며 우리 련공애국인사들이 서울에 남아있는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회를 하루빨리 무어 전쟁승리에 이바지해야 하겠다는것을 깨달은것입니다.》라고 귀환보고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소앙을 비롯한 평화통일세력의 지도급인사들은 련공애국인사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조직을 무어 전쟁승리에 이바지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이러한 속에 정세가 급변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가 시작되였다.

그러한 때인 1950년 9월 17일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관계부문 책임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시였다.

《현재 서울에 있는 남조선의 이름있는 여러 애국적정계인사들이 우리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에 들어올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망대로 평양에 무사히 들어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미군병력이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서울일대에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거기에 있는 남조선 애국적정계인사들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남조선정계인사들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그들이 적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참살당할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최동오, 엄항섭선생을 비롯한 애국적인사들을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은 리승만괴뢰도당의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고 우리가 내놓은 남북협상방안을

지지하였으며 평양에서 소집된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여 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그들은 남북련석회의후 서울에 돌아가서도 련석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군철거와 평화적조국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고 하시면서 남조선정계인사들이 평양으로 들어올 때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선생과 같은 이름있는 정치인들과 년로한 분들은 다 고급승용차를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구원조치에는 급변하는 전쟁형세에 대처하여 전쟁피해와 적들의 학살만행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은정깊은 사랑이 담겨져있었다.

미국과 리승만도당이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강점한 때로부터 석달 남짓한 기간에만에도 이른바 《부역자처단법》(인민군대를 환영하고 협조한 애국자들을 《부역자》로 몰아 처단한 파쑈악법)에 걸어 무려 7만여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고문학살한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입북조치야말로 폭사와 학살의 위험에서 련공인사들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사랑의 손길이라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

하기에 조소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고 《이제는 림정계협상파를 비롯한 련공애국인사들이나 이남의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살게 되였소.》라고 감격에

넘쳐 말하면서 평화통일세력인사들에게 련락을 띄워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자기 집에 모이도록 하였다.

조소앙은 평화통일세력인사들과 정치인 및 《국회》의원들이 모이자 《어제 리승엽이 마치도 우리들에게 크게 관심이 있는듯이 헤쳐져서 제각기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 숨으라고 한것은 사실상 우리들을 도와주자는것이 아니라 뿔뿔이 헤쳐져서 개죽음을 당하라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급변하는 전쟁형세하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며 전쟁승리에 이바지하는 길은 **김일성**장군님 계신 곳으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스스로 결심들을 피력했던것인데 천만다행으로 해당 부문 일군이 전해준 평양으로부터의 소식에 의하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들을 평양으로 안전하게 입북시켜 구원할데 대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라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그러자 모인 인사들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김일성**장군님 계신 곳으로 어서 갑시다. 그래야 우리들은 살수 있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날 여기에 모였던 인사들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조소앙의 연설을 그대로 일행의 가족, 친척, 친지들과 전체 남녀동포들에게 전하는 《북행에 즈음한 일행의 공동담화》로 정리하여 내외에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18일 저녁 조소앙, 김규식 등 20명은 고급승용차 5대에, 나머지 20명은 군용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탄 차행렬이 평양을 향해 서울을 떠났다.

이렇듯 조소앙을 비롯한 인사들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민족통일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인생의 참가치가 있다는 정치적신념을 안고 북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남조선일각에서는 조소앙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이 《랍북》되였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돌리고있다. 2021년 6월에도 남조선 통일부는 1950년 12월에 조소앙, 안재홍을 비롯한 인사들을 《랍북자》로 기입하여 작성한 이른바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를 복원하여 공개하였다. 엄연한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태양의 품을 찾아 스스로 북행길에 오른 사람들을 두고 《랍북자》라고 오도하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조소앙일행은 북행길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받아안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소앙을 비롯한 인사들을 평양시 교외의 아담한 마을에 거처를 잡아주신데 이어 9월 25일에는 추석을 맞으며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시였다.

뜻깊은 연회석상에서 조소앙은 흥분된 목소리로 축배사를 하였다.

《우리들이 고향의 친척, 친우, 친지들과 추석을 즐겁게 쇠지

못하고 그 어려운 전쟁형세속에서 입북길에 올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뜻깊고 성대한 연회상을 받고보니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을 더 잘 모시고 전쟁승리에 이바지할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몇마디 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30선거에서 우리 평화통일세력인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무소속계를 합하면 모두 126명이 당선되였습니다.

이로써 2대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리승만일파는 여당, 준여당을 합하여 초대<국회>때의 140명에서 겨우 47명으로 전락되였던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6월 19일에 천명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의에 호응하여 우리가 6월 26일 <국회>에서 평화통일결의안을 통과시키려들자 바빠맞은 리승만역도는 미제상전에게 신속히 북침전쟁을 도발해달라, 그래야만 자기 <정권>이 살아남을수 있고 <북진통일>도 할수 있다고 애걸복걸했던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평화통일결의안통과예정일을 하루 앞질러 6월 25일에 불의적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했던것이요.

만일 그때 우리들이 정세추이에 더 민감하게 대처하여 6.25전에 평화통일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면 전쟁을 방지할수도

있었고 평화적통일국면에 들어설수도 있었을것입니다.

생각할수록 통분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제침략군이 지금 비록 오만하게 허장성세하고있지만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앞에서는 종당 패배를 면치 못할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연회에서 장군님따라 전쟁승리를 위하여 충의를 다할 일동의 결의를 담아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이 잔을 듭시다.》

입북인사들은 서로 잔을 찧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흠모의 정을 담아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불렀다.

전선형편이 긴장됨에 따라 일행은 평양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조소앙을 포함한 입북인사일행은 차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또 폭격에 차가 불타서 걷기도 하면서 천신만고끝에 자강도 만포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때인 11월 1일 김책부수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은정깊은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규식선생뿐 아니라 자강도에 와있는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안재홍, 조소앙, 최동오, 조완구, 오하영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인사들이 우리를 따라 만포까지 후퇴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들의 민족적량심과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려는 결심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시면서 해당 기관에 지시하여 적기의 폭격이 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인사들의 신변안전대책을 잘 세우며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들은 다 년로한분들인것만큼 그들의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조소앙은 입북한 후부터 인생말년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일심전력하였다.

1956년 5월 조소앙을 비롯한 재북인사들을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재북전 남조선정계인사들로 조국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조직할 의향을 표시하였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동이 되여 다른 재북인사들과 광범히 토론하여 단체결성을 추진시키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하여 1956년 7월 평양 모란봉극장에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전 사회당,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 민족공화당, 녀자국민당, 신생회 등 제 정당 사회단체에 소속되였던 대표급인사

들과 기타 정계, 사회계, 군부에서 활동하던 재북인사들이 망라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에서 조소앙은 최고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7년 10월 조소앙을 비롯한 재북인사들을 또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조직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기본사명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이라고, 여러분이 여러가지 정치활동을 전개하면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조소앙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으로서 높은 대우를 받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여생을 깡그리 바치였다.

1958년 9월 조소앙은 그처럼 소원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71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사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조소앙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가 사망한 후 수십년이 지난 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제정된 조국통일상을 그에게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한 애국렬사들이 묻혀있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조소앙의 묘를 옮기도록 은정을 베풀

어주시였다.

풍치수려한 평양의 한복판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에 자리잡고있는 쑥섬에는 사람들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바라보는 통일전선탑이 있다.

그 탑에 새겨진 쑥섬협의회 참가자들의 이름가운데는 조소앙의 이름도 있다.

나라없던 그 시절 만리타향을 헤매면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음도 겪어보았고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온 조소앙.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다운 애국의 길을 찾은 조소앙의 삶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오하영 편

기미년의 민족대표 ············73
탁류속에서 ············84
태양의 품에 안기여 ············92
영생하는 통일애국의 삶 ············98

경력

- 1879년 4월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
- 1919년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
-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 조선물산장려회본부 리사장.
-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 1947년 12월 민족자주련맹 감찰위원.
- 1950년 5월 남조선《국회》의원.
-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최고위원.
- 1960년 9월 사망.
- 1990년 8월 조국통일상 수상.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이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인간은 때로 방황도 하고 탈선도 하게 된다. 하지만 늦게나마 오욕과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참된 인생의 길,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후대들의 값높은 평가를 받기마련이다.

오늘도 우리 민족이 기억하는 그러한 통일애국인사들가운데는 오하영도 있다.

《운양》호사건이 일어난 1870년대에 태여난 오하영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손에 총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의병투쟁에도 참가하였고 그리스도교에 심취되여 《하느님》의 힘을 빌어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보려는 꿈도 꾸었다.

그는 3.1인민봉기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모진 옥중고초를 겪었으며 출옥후에는 신간회 총무간사, 조선물산장려회본부 리사장 등을 하면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심혈을 바쳐왔다.

오하영은 해방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탁류와도 같은 남조선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도 하고 미군정청 남조선과도립법의원에도 참여하면서 자기가 걷고있는 숭미반공의 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있었다.

하지만 오하영은 1947년 9월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간것으로 하여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기가 심화되고 《유엔림시조선위원단》과 리승만의 《단선단정》음모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는 속에 김구, 김규식과 같은 인사들이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평양에서 열리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는것을 목격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여나기 시작하였다.

하여 그는 남북협상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여 민족자주련맹 감찰위원과 통일독립촉성회의 상무위원으로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 2대 《국회》의원선거때에는 《북진통일》반대, 평화통일구호를 들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였다.

그는 미국이 일으킨 6.25전쟁당시 영용한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인민군대를 환영하고 공화국을 지지하는 확고한 립장에 서서 전쟁승리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애국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용약 북으로 들어왔다.

그후 그는 다른 재북인사들과 함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뭇고 최고위원으로 인생말년까지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왔으며 사후에도 첫 조국통일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였다.

숭미반공의 길에서 련공애국의 길로 방향전환.

그리스도교목사였던 오하영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정의와 진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근본바탕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기미년의 민족대표

1919년(기미년) 3월 1일 서울의 탑동공원으로는 아침부터 수천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들고있었다. 바로 이날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탑동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약속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정오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울리도록 민족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14시가 거의 될무렵에야 서울의 명월관지점인 태화관으로 29명의 민족대표들이 모여들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한참 지방에서 오고있던 3명의 인사와 국내의 독립선언경위를 해외지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미리 출국한 1명을 제외한 29명의 인사들이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다리는 탑동공원이 아니라 태화관에 모인것은 전날에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기때문이였다.

천도교의 교주로서 독립선언서작성을 주도한 손병희와 최린등이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주장하면서 학생, 시민들과 약속한 탑동공원이 아닌 다른 조용한 곳에 민족대표들만 따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총독부에 저들의 의지를

전달하자고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이게 되였다. 그들이 태화관을 선택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태화관은 중국음식점 명월관의 지점으로 한때 리완용이 살던 집을 수리하여 음식점으로 개조한것이였다. 이곳에서 리완용이 이또 히로부미와 《을사5조약》을 밀의했으며 친일매국노들이 모여들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을 흉계를 꾸미였던것이다.

민족대표들은 이런 장소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하는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날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중에는 그리스도교의 한 갈래인 감리교목사였던 오하영도 있었다.

오하영은 조선봉건왕조말기였던 1879년 4월 황해도 평산에서 출생하였다. 파란많고 곡절많은 19세기말엽에 유년시절을 보내며 그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 마수를 뻗치는 일본의 침략행위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의분을 금치 못하였다.

하여 그는 당시 평산땅에서 세차게 일어나던 의병투쟁에 직접 참가하여 여러해동안이나 의병활동을 벌리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의병투쟁은 조락해갔고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하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산발적인 의병운동이나 해가지고서는 강적인 일제를 물리칠수 없다는 허무한 생각이 갈마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오하영이 좌왕우왕하고있을 때 선교사들을 앞세운 미국은 조선반도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었다.

1885년 서울에 들어온 미국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가 이듬해 6월 6명의 학생들을 받아 《배제학당》이란 간판을 내걸고 교육을 시작한것을 비롯하여 19세기말부터 미국선교사들은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곳곳에서 교회당과 학교, 병원들을 세우고 순진한 조선사람들을 그리스도교신자로 받아들이였다.

이 흐름속에서 오하영도 신학전문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원산에서 감리교목사로 있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있었지만 젊은 시절 의병투쟁에 참가하여 왜놈들과 싸우면서 간직하였던 애국심만은 변하지 않았던 오하영은 비밀리에 인쇄된 2만여장의 독립선언서중 수백장을 개성과 원산지역에 보내여 배포하게 하고 태화관으로 왔던것이다.

한편 서울의 탑동공원에서는 민족대표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수천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14시가 다되도록 기다리고있었다.

이처럼 서울에서 군중들이 민족대표들만 하염없이 기다리고있을 때 3.1인민봉기의 함성은 평양에서 먼저 터져올랐다.

3월 1일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퍼지자 그것을 신호로 하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각계각층 군중이

장대재에 있던 숭덕녀학교운동장으로 물밀듯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정각 13시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는 수천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청년학생대표가 단우에 뛰여올라 독립선언서를 랑독하였다.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조선사람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한 독립선언서를 다 읽자 장대재에서는 일시에 《조선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이 웨침소리는 평양의 온 거리와 주변농촌에로 메아리쳐갔다. 평양시민들의 시위대렬은 삽시에 10여만명으로 늘어났다.

평양에서 3.1인민봉기가 시작된 후 서울의 탑동공원에서 대기하고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곧 3명의 학생대표를 태화관에 파견하였다. 학생대표들은 최린 등을 불러내여 본래의 계획대로 할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탑동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므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때문에 갈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결국 14시가 넘도록 그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이 연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곧바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자 이에 호응하여 시위군중은

일시에 떨쳐나섰다. 서울에서의 시위에도 청년학생들은 물론 로동자, 도시소시민, 로인, 부녀자 그리고 지방에서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온 농민들까지 참가하여 잠간사이에 그 수는 수십만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평양과 서울에서 3.1인민봉기가 시작된 후에야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시작하였다.

독립선언서는 읽지도 않고 불교대표인 한룡운이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간단한 연설을 하고 그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부르는것으로 불과 15분여만에 독립선언식은 끝났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조선민족대표들이 이곳에서 독립선언식을 진행하였다는것을 자수하였다.

결국 3.1인민봉기의 주역이 되여 치렬하게 전민족적인 싸움을 이끌어나갔던것은 민족대표 33인이 아니라 학생, 로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 인민들이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이 이처럼 소극적이고 타협적인 자세에서 허무맹랑하게 독립선언식을 진행한것은 무엇때문이였는가.

당시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쟁취하기보다 세계정세나 흐름에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인민의 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독립의 뜻을 무저항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알리면 된다고 여겼던것이다.

또 만일 탑동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대중적인 반일봉기가 일어난다면 자기들이 그에 대한 책임과 일제탄압의 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오하영은 자신을 포함한 민족대표들의 이러한 처사가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민족을 등진 투항주의적행동이라는것을 그는 먼 후날에 가서야 깨닫게 되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의 이러한 소극적이며 타협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각계각층 인민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격렬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3월 1일에 4개 도에서 폭발한 반일봉기는 3월 11일에는 벌써 12개 도로 확대되였으며 3월 19일에 충청북도에서 투쟁이 일어남으로써 마침내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포괄하게 되였다.

3.1인민봉기가 폭발한 후 5월말까지의 석달동안에만 하여도 200여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반일봉기대렬에 합류하였으며 그해 12월까지는 전국각지에서 3 200여회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반일항쟁의 불길은 전국의 232개의 부, 군가운데서 229개의 부, 군을 휩쓸었으며 해외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까지 타번지였다.

반일항쟁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투쟁은 한층더 격렬하여졌다.

조선인민의 대중적인 투쟁에 질겁한 일제는 경찰과 헌병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하여 반일봉기에 떨쳐나선 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하였다. 반일인민봉기의 전기간 일제의 총칼에 맞아 쓰러진 조선사람의 수는 10여만명에 이르렀다.

한편 일제는 전국도처에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켜 수많은 애국자들을 검거투옥하였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국내에서만 하여도 약 4만 6 700명에 달하는 애국적인민들이 체포투옥되였다.

3월 1일 오하영을 비롯한 민족대표들도 일본경찰에 체포되여 경무총감부와 일본군 헌병사령부에서 취조와 고문을 받은 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였다.

그들이 서대문형무소에 갇히웠을 때는 계속되는 반일봉기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잡혀들어와 감방마다 아침저녁으로 독립만세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이 시기 반일운동가들에 대한 일제의 고문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사람을 일어설수도, 앉을수도 없는 좁은 나무상자에 집어넣고 36시간이상 고통을 가하는 고문, 엄지발가락을 묶어 몸을 공중에 매다는 고문, 팔꿈치와 대퇴부를 구부려서 결박

하여 근육에 심한 고통을 가하는 고문, 대못을 손톱과 발톱밑에 박는 고문, 팔꿈치를 뒤로 잡아당겨 묶은 사람을 우로 향하게 바닥에 드러눕히고 나무토막을 아래턱에 끼워 머리를 기울여놓고 서서히 물을 코구멍으로 계속 붓는 고문 등 그 악행은 실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것이였다.

재판을 받는 전기간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의 독방에 갇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세멘트바닥에서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다나니 민족대표들속에서도 여러명이 사망하였다.

오하영은 그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민족적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이듬해인 1920년 2월 오하영을 비롯한 민족대표들의 일부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되였다.

민족대표들은 3.1인민봉기 1주년이 되는 그해 3월 1일 정오에 다시 독립만세투쟁을 벌리기로 계획을 짰다.

오하영이 나서서 《3월 1일 정오에 기념만세》라는 쪽지를 써서 온 감옥안에 돌리였다. 그날 정오가 되자 감옥안의 공장에서 일하던 기결수들은 일손을 멈추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쳤고 감방안의 미결수들도 일제히 일어나 《조선독립 만세!》를 웨쳤다. 수천명이 부르는 만세소리가 린접한 주민지대에까지 울리자 동리에서도 따라 독립만세를 불렀다.

감옥에서 이처럼 만세사건이 일어나자 일본헌병과 경찰은 일제 수색을 벌렸다. 결과 오하영이 자필로 쓴 쪽지가 공장

구석에서 발견되였다.

헌병들은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하영을 묶어놓고 총탁과 곤봉으로 마구 매질하였다. 그는 일주일동안 벌감방에 갇혀있다가 다시 추가 기소되여 1년을 더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수백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떨쳐일어난 1919년의 3.1인민봉기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피와 희생을 바치였지만 끝내 좌절되였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민족이 겪은 참으로 가슴아픈 비극이였다. 하늘도 무심하였는지 그 기미년에 수십년만의 왕가물로 인한 흉년까지 겹쳐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굶어죽는 참사까지 빚어졌다.

여러해동안 감옥살이를 한 끝에야 석방된 오하영은 신간회 총무간사, 조선물산장려회본부 리사장 등을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는 애국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920년대중엽이후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개의 세력이 존재하고있었다. 일제의 폭정과 수탈이 강화될수록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던 선각자들은 애국력량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련합을 모색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운동자들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 신간회가 발족되였다. 신간회는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두 세력 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1927년 2월에 서울에서 창립되였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반목대립에 불만을 느끼고있던 대중은 환호를 올렸으며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 부를만큼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는 컸다.

신간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였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라는 뜻에서 신간회라고 하였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리상재, 홍명희, 허헌과 같은 민중의 인망이 높은 진보적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고 추진되고 운영된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였으며 회원들의 직업별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였다. 신간회에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 000여명이 망라되였다.

신간회는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서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을 계기로 벌어진 전국학생들의 대중적인 반일투쟁때까지만 하여도 일정한

역할을 놀았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반일항쟁력량이 하나로 단합되는것을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렬을 꾀하고 개량주의적상층을 매수하였으며 일제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조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만한 중심적인 지도력량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나온지 4년만인 1931년 5월에 해체되고말았다.

오하영은 신간회가 존재하는 기간 총무간사로 있으면서 광범한 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업에 기여하는 한편 조선물산장려회본부 리사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조선물산장려회는 조선사람이 짠것을 입고 조선사람이 만든것을 먹으며 조선사람이 지은것을 쓰자는 물산장려운동을 제창하였다. 이 운동은 민족개량주의운동의 한 형태로서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였으며 이러한 소극적저항운동이 결과적으로 실패한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이렇듯 오하영이 그리스도교신자로서 나라의 독립을 《하느님》께 빌어도 보고 기미년의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일운동에 몸담고 나름대로 뛰여다녔지만 실패의 쓴맛만 보아야 했다. 말그대로 그것은 방황하는 애국에 불과했다.

탁류속에서

해방후 남조선의 정치정세는 참으로 복잡다단하였다.

미국의 비호밑에 민족앞에 죄를 지은 친일파들이 뻐젓이 머리를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박헌영계렬의 종파분자들과 림시정부계통의 우익인사들, 리승만을 지지하는 극우깡패들을 비롯하여 말그대로 형형색색의 각이한 파벌들이 저저마다 자파세력확장에 나서서 남조선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고있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오하영은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이민 미국을 《해방자》라고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숭미반공의 길에 점차 빠져들게 되였다.

일찍부터 미국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감리교목사로 된 그로서는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도와줄수 있는 《벗》이라 생각해왔었고 또 미국사람들이 말끝마다 부르짖는 《인도주의》와 《민주주의》에 현혹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하여 오하영은 1946년 2월에 미군정청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것을 조작한 후에 그 회장으로 되였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는 미군정청이 남조선전역에 이미 조직되였던 각급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하고 그에 대응한 《정권》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림시적인 행정기구였다.

미군정청과 경찰의 지지와 비호밑에 《독촉》은 서울시와 각 도, 시, 구, 군, 읍, 면, 동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전역에 뻗어나갔으며 해당 지역에서 미군정청의 지시를 집행하는 손발노릇을 하였다.

일단 시궁창에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온다는것이 결코 조련치 않은 법이다.

해방후 어지러운 남조선정치계에서 오하영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작한 과도립법의원에도 관여하게 되였다.

남조선과도립법의원이라는것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기구로서 미군정장관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닌 립법기관이였으며 미군정청밑에서 《군정장관이 위탁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을 제정》할 직무를 수행하였다.

미국은 이 허수아비기구를 통해 1947년 6월에 이른바 《보통선거법》을 조작하여 괴뢰정권수립을 위한 단독선거준비를 하였고 그해 8월에는 《조선림시정부약헌》을 조작하여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냈다.

당시 미군정이 개입하여 만들어낸 《보통선거법》만 놓고 보아도 선거를 하거나 받을 나이를 23살과 25살로 하였으며 특히 투표방식에서 기표방식(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자서방식(후보이름을 쓰는 방식)을 쓰도록 명문화되여있었다.

이것은 나라의 분렬과 《단독정부》수립을 바라지 않는 대다수 진보적청년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문맹률이 높은 로동자, 농민계층이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우익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교활한 술책이였다.

오하영은 이처럼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과도립법의원을 통해 남조선에 저들의 괴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흉계실현에 리용당하면서도 숭미반공사상에 사로잡혀 그것이 《애국》의 길인줄만 알고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미국의 흉심이 서서히 드러나면서부터 그의 생각은 차츰 달라지게 되였다.

미국은 남조선 《단독정부》조작을 위해 통일적인 전조선민주주의림시정부수립을 위한 제2차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1947년 9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는 범죄적책동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유엔에 끌고간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안이란 소위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안이였다. 이것은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에게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 《단독정부》를 만들어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며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에 대한 침략적야망을 실현하려는 음흉한 간계였다.

미국이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자 리승만패당은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단선단정》을 기어이 실현하여 조국을 분렬시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해나섰다.

이에 대처하여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은 유엔의 간판을 리용한 분렬주의세력의 단독선거망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1948년 1월 8일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을 계기로 영등포의 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로동자들은 《국운이 위태롭게 된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용감하게 떨쳐나설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영등포로동자들의 파업을 신호로 투쟁은 룡산지구와 서울시내, 인천지구에 확대되여갔으며 2월 7일에는 서울, 대전, 목포, 부산, 인천 등지의 40여개의 도시를 포괄하면서 남조선 전 지역을 휩쓸었다. 이 총파업에는 철도, 체신을 비롯하여 각 부문에 걸쳐 수백개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 8만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파업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시위투쟁도 벌리고 경찰기관들을 습격하는 격렬한 투쟁도 전개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농민들도 투쟁에 일떠섰다.

특히 2월 7일 합천군, 완주군, 김제군농민들은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악질경찰들을 처단하였으며 홰불시위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통하여 원쑤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청년학생들도 동맹휴학, 시위 등 형태로 투쟁에 나섰다.

2월 13일 청년학생들은 서울 탑동공원앞과 종로네거리, 남대문거리들에서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입국반대》라고 쓴 글발을 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벌렸으며 달려드는 경찰들과 맞서 굴함없이 싸웠다.

《2.7구국투쟁》으로 불리우는 이 대중적투쟁을 통하여 미국의 침략도구로서의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진면모와 남조선에서 괴뢰정부를 조작하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흉심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게 되였다.

미국과 그에 한짝이 된 리승만패당의 분렬주의책동과 그를 반대하는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의 저명한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는 정치정세속에서 오하영의 의식변화는 점점 빨라졌다.

하여 그는 김규식, 최동오를 비롯한 민족주의지도급인사들이 결성한 민족자주련맹에 들어가 감찰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에 이르러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사대매국노들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은 더욱 세차게 전개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남북협상방침을 받들고 김구, 김규식, 조소앙, 홍명희 등 7명의 애국지사들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 7인공동성명을 내외에 발표하고 용약 북행길에 오른 력사적장거와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평양에 모여 진행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오하영의 가슴을 세찬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동포들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받아안은 그는 이 정치문건들을 자자구구 읽어보았다. 조선인민은 단독선거에 의하여 꾸며지는 괴뢰정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며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 결정서와 격문의 구절구절은 오하영으로 하여금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청춘시절의 애국의 피를 다시 끓게 하였다.

하여 그는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지도자들이 쑥섬협의회정신에 따라 통일독립운동기구인 통일독립촉성회를 조직할것을 발기하였을 때 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결성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통일애국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1948년 7월 《한국독립당》, 민족자주련맹을 비롯한 8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 300여명을 망라한 통일독립촉성회가 결성되였을 때 오하영도 가입하여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통일독립촉성회는 그해 9월에 통일촉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남조선정계와 광범한 각계각층 민중들속에서 《미군철거》, 《리승만과 그의 북벌전쟁도발책동반대》, 《친일파, 민족반역자처벌》, 《평화통일, 남북협상》의 구호높이 통일애국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나날속에 오하영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 결코 숭미반공의 길이 아니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

1949년 6월 미국의 사촉을 받은 우익깡패에 의해 김구가 암살당한 후 오하영은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 조봉암, 최일천 등 10명의 지도급인사들과 함께 평화통일세력을 형성하고 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1950년 5월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는 평화통일세력의 지지속에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였다. 그해 6월 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를 단일한 전조선립법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을 때 오하영은 그를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국회》에서 평화통일결의안을 통과시킬 열의에 넘쳐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평화통일투쟁을 짓밟고 전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할 목적밑에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인 엄혹한 시기가 닥쳐오자 오하영은 진정한 애국의 편, 정의의 편에 설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하기에 6월 26일 사회당본부에서 김규식, 조소앙 등 평화통일세력의 지도급인사들의 참가하에 열린 긴급중대협의회에서 그는 미국과 리승만도당과의 전면적인 완전결별

을 선언하면서 오직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따라 공화국기치하에 인민군대의 반공격전의 승리에 의한 조국통일의 길을 절대지지해나섰다.

9월에 이르러 전쟁형세가 급변하여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다.

정세가 엄혹해지자 오하영을 비롯한 서울에 남아있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애국적정계인사들속에서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 평양으로 들어갈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때인 9월 17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여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애국인사들을 평양으로 데려올 때 서울에 있는 안재홍, 오하영선생을 비롯하여 입북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들과 리승만괴뢰도당에게 체포투옥되였던 전기 <국회>의 <소장파의원>들도 다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때 친미반공의 일선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리승만괴뢰도당과 결별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구원조치에는 급변하는 전쟁형세에 대처하여 전쟁피해와 적들의 학살만행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은정깊은 사랑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받아안은 오하영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랐다.

민족과 우리모두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구세주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가자 북으로,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곳으로 가자.

그는 이렇게 마음다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배려해주신 고급승용차를 타고 결연히 북행길에 올랐다.

태양의 품에 안기여

오하영을 비롯한 입북인사들이 평양에 도착한것은 9월 20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첫 생활을 시작한 입북인사들의 심정은 여러 갈래로 복잡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인사들은 이미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애국사상과 폭넓은 통일전선경륜, 고매한 인품을 알고있었기에 안도의 숨을 쉬며 기쁨으로 설레이였다.

오하영을 비롯한 평화통일세력인사들과 《국회》 소장파의원들은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여러 인사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감동된바가 컸지만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자기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주겠는지 하는 위구심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았다.

오하영은 해방직후부터 서울에서 박헌영을 위시한 가짜공산주의자들이 벌린 추태를 직접 목격한것으로 하여 당시 당과 국가의 요직에 앉아있던 일부 편협한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던것이였다.

박헌영과 그 졸개인 리승엽을 비롯한 가짜공산주의자들이 그때까지 제노라 하면서 날뛰고있은것으로 하여 오하영과 한때 친미반공세력에 속해있던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입북인사들이 위구심을 안고있은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위구였고 공연한 걱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과 매국의 가장 첨예한 판가리전쟁을 하는 가운데 용약 애국의 편, 민족의 편, 자주의 편으로 넘어온 오하영을 비롯한 입북인사들의 장거를 소중히 여기시며 사소한 차별이나 간격도 둠이 없이 한사람같이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전시의 어려운 속에서도 최대한의 은정과 믿음을 다 돌려주시였다.

그들이 폭격피해를 받지 않게 안전지대에 자리를 잡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해 추석에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타향살이인생들에게는 하많은 향수를 자아낸다는 추석날의 밝은 달, 그러나 이날 저녁 평양의 달은 오하영을 비롯한 남녘의 정객들에게 애틋한 향수만이 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령수의 사랑과 은정을 페부로 절감하게 하였다.

뜻깊은 연회석상에서 오하영과 입북인사들은 서로서로 잔을 찧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와 흠모의 정을 담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전선형편이 긴장됨에 따라 일행은 평양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적들의 폭격이 심해짐에 따라 오하영을 비롯한 일행은 기차와 자동차를 번갈아 타고 때로는 걷기도 하면서 만포까지 무사히 후퇴하였다.

이러한 때인 그해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각부수상이였던 김책에게 김규식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김규식선생뿐 아니라 자강도에 와있는 남조선정계인사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안재홍, 조소앙, 최동오, 조완구, 오하영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많은 인사들이 우리를 따라 만포까지 후퇴하여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민족적량심과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서려는 결심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지시하여 적기의 폭격이 심한 조건에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인사들의 신변안전대책을 잘 세우며 그들이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년로한분들인것만큼 그들의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구절구절 입북인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이

넘치는 은정깊은 교시였다.

이렇듯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으며 오하영은 안전한 지대에서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겨레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받들고 1954년 10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협상과 접촉을 실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것을 제안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북남간에 조성된 긴장한 분위기를 풀고 호상접촉과 리해에 기초하여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명시한 현실적인 방안이였다.

하기에 공화국정부의 북남협상제안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남협상을 지지하는 기운은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인사들에게까지 널리 퍼지면서 반미, 반리승만투쟁에로 이어졌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오하영은 윤기섭, 조소앙, 송호성, 엄항섭 등과 함께 1955년 11월 6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친애하는 남반부동포들!

신뢰하는 남반부동지들!

남반부의 정당, 군사, 경제, 문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일제 40여년의 포악한 식민지로 압박, 략탈로부터 해방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오늘에도 우리의 국토량단과 민족분할의

대재난은 의연히 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 삼천만이 잠결에도 잊을수 없는 조국의 평화통일은 우리들이 사람답게 잘살수 있도록 조건지어주는 유일의 위대한 과업입니다.

…

현 단계에 있어서 우선 착수하여야 할 일은 무엇보다 남북의 각계 인사들이 허심하게 한자리에 모여앉아 흉금을 털어놓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결국 모두 승인하고 접수하시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외국사람들과도 자주 앉아 협상을 하거늘 항차 같은 조상의 피를 가진 조선사람들끼리 서로 마주앉지 못할 리유가 그 어데 있겠습니까?

…

여러분! 우리 조국은 이제 가장 큰 난관에 부닥쳤고 우리 민족은 가장 엄중한 시련속에 빠지고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최후적결심을 위하여 각자의 가슴마다에 안고 평화통일로선에서 남북의 협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연 총궐기하시오. 그리하면 조국의 난관은 장엄하게 극복될것이요.

민족의 대사변은 응당한 승리로서 돌파될것입니다.

…

여러분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단연코 평화통일투쟁에로 일제히 매진합시다.

조속히 남북협상을 달성합시다.》

이상이 6인공동성명의 내용이였다.

6인공동성명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인민들을 격동시키고 리승만일당을 경악케 하였다.

8.15해방직후부터 전쟁전까지의 시기에 리승만의 반역행위에 제동을 걸고 그 숨통을 조인 련공애국세력의 핵심들이 반민족분자들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건재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발표한 이 공동성명은 반미, 반리승만투쟁의 새로운 막을 열고있던 남조선대중과 민주세력에 대한 강력한 지원포사격으로 되였다.

전쟁시기에 입북한 련공애국인사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우에다 덧써놓았던 《랍북인사》라는 주홍색글씨가 바로 이 6인공동성명으로 하여 지워짐으로써 리승만일당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빠져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오하영은 입북후 이처럼 공화국의 정당한 평화통일방안을 남조선인민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광범한 대중을 반리승만, 반독재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였다.

늙은 나무가지에도 꽃이 피군 한다. 오하영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고목에 핀 꽃처럼 갱소년하였던것이다.

영생하는 통일애국의 삶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환영하는 목소리가 해내외에서 힘있게 울려나오고 전체 조선인민들의 통일열의가 전례없이 높아지고있던 1956년 5월 23일이였다.

이날 오하영을 비롯한 여러명의 재북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여 매우 기쁘다고, 애국의 일념을 안고 누구나 쉽게 내릴수 없는 용단을 내려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여 오늘에야 자리를 같이하게 되였다고 겸허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건강에 대하여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오하영일행은 그이의 해빛같은 환한 미소와 반가움으로 차넘치는 음성이 가슴속에 봄볕처럼 따스히 스며드는것을 느끼며 공화국정부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건강한 몸으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공장과 농촌, 교육, 문화기관과 명승고적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어려운

전쟁을 이겨낸 북의 인민들이 신심드높이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하며 증산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커다란 감명을 받은데 대하여 말씀드렸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쟁의 피해를 가시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면서 부강번영의 한길로 전진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러나 오늘 남조선형편은 말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남조선의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리승만도배는 침략전쟁준비에 드는 방대한 군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경제적수탈을 더욱 강화하고있다고,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고통을 겪고있다고 가슴아픈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남녘겨레들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는 그이의 모습을 감동어린 눈길로 우러르던 재북인사들은 민생고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정부에서 구제물자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난 시기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동포애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받아들일것을 남조선괴뢰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리승만도배는 우리의 동포애적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는 민생고에 허덕이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자면 남북조선의 애국력량의 단합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오하영을 비롯한 재북인사들은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미제와 리승만도당의 매국적인 단선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대책을 론의하던 격동적인 1948년의 봄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으며 변함없이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겨레의 통일운동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는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치시여 그 실현방도를 명시해주시는 그이의 말씀에 심취되여있던 오하영은 뜻깊은 이 자리에서 재북인사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이미전부터 가슴에 품고있던 문제를 수령님께 문의하였다.

《수령님, 오늘 남조선에서 련공합작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는 지난날 리승만도배에게 붙어서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고 공화국을 반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여러분이 오늘 남조선에서 련공합작과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는 지난날 리승만도배에게 붙어서 애국적민주력량을 탄압하고 공화국을 반대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우리는 지난날보다 오늘을 중시하며 래일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죄과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손잡고 함께 나갈것이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국이 통일된 다음 그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사회적명예와 자격도 그대로 보존해주며 공로와 능력에 따라 새로 세워질 련합정부에도 참가시킬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고 그들과 기꺼이 손잡고 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오하영은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그 무엇인가가 봄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림을 느낄수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이은 미군정통치는 남조선의 사회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근본요인이였다. 자의든 타의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 순응하여 때를 묻히였다. 민족의 대단결이 곧 통일일진대 통일의 길에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단합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피할수 없는 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지난날보다 오늘을 중시하며 래일을 더 귀중히 여길것이다! 이것은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고 오늘뿐 아니라 래일도 기꺼이 손잡고 나갈것이라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운명문제에 대한 단합철학이 아닐수 없었다.

세상에 금언이면 이보다 더한 금언이 어디 있으랴. 오하영은 눈굽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장내를 울리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손세까지 써가시며 확신에 넘쳐하시는 수령님의 교시에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한 그이의 위대한 경륜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가슴벅차게 받아안은 오하영을 비롯한 인사들은 흥분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안을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친지들에게 알려주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눈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주기 바란다고 하시며 여러분은 모두 년세가 많은분들인것만큼 건강에 특별히 류의하여야 하겠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이날 그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마련하시고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살뜰하게 대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천금같이 귀중한 가르치심

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오하영은 민족분렬의 고통을 겪는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통일애국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뵈옵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 오하영은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터놓았다.

《어제 밤 나는 종시 잠들수 없었소. 우리 수령님께서 이 밤도 우리 겨레가 겪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잠 못 이루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소. 내 나이 80을 바라보니 수령님의 뜻을 받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까웠소.》

그날의 뜻깊은 자리에서 일행은 조국통일실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조직할 의향을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올리였다. 그때 다진 결의대로 재북인사들은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오하영은 이 단체의 최고위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는 그후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련공애국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갔다.

언제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7년 10월 25일 협의회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기 위하여 오하영을 비롯한 이 단체 인사들을 친히 집무실로 불러주시였다.

수령님의 은정에 의하여 경치좋은 단풍계절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온지 얼마 되지 않던 그들일행은 자기들을 또다시 몸가까이 불러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걸음을 다그쳐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재북인사들은 민족의 명산,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구경을 친히 조직해주시고 온갖 편의를 다 보장해주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다음 갱소년된 즐거운 마음으로 너도나도 금강산방문소감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오하영도 《수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내 나이 80에 가까와오지만 금강산을 보고 오니 한 10년은 젊어진것같습니다.》라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일행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분렬로 인하여 금강산에 와보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남북사이의 이러한 차이와 민족분렬의 비극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순간 오하영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설레이였다. 자기들은 아름다운 금강산의 자연경치를 보며 민족적긍지를 느끼는데 그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외세에 의하여 짓밟힌 나라의 절반땅을 생각하시고 조국통일부터 먼저 생각하시는것이 아닌가.

일행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르며 자기들은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정중히 아뢰였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더욱더 굳은 의지를 가다듬으시는듯 심중한 표정을 지으시며 우리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통일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면 전체 조선인민이 굳게 뭉쳐 힘찬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조직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기본사명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이라고, 조국통일은 해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라야만 성취될수 있다고, 여러분은 남조선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우리의 원칙적이고도 가장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널리 해설선전하며 미제의 침략책동과 리승만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을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 오하영을 비롯한 재북인사들을 만나주시고 하신 담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이였으며 고목에 꽃을 피워주는 자양분이련듯 재북인사들의 가슴에 청춘의 활력과 재생의 환희를 북돋아주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북인사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나이든분들이 지난날 감옥살이에서 얻은 병때문에 고생할것이라고, 안재홍선생은 위가 나쁘고 오하영선생은 신경통으로 고생하며 조소앙선생은 관절염이 있다고 하시면서 온포휴양소가 늙은이들의 병치료와 건강회복에 아주 좋을것이므로 그들을 거기에 보내여 한달가량 휴양시키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속에 해마다 삼복철이면 재북인사들은 온포나 석암, 우산장 등 풍치좋은 휴양소에서 한달동안 휴양을 즐기였다.

날이 갈수록 더 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수령님의 은정이 고마와 여생을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다 바치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보람찬 애국충정으로 수놓아가던 오하영은 그만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앓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의 병치료를 위해 귀중한 약재와 보약 그리고 지성어린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그날 저녁 오하영은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목메이며 붓을

들고 머리말에 놓인 종이장우에 한자, 두자 이렇게 적어나갔다.

《세상천하 다 살펴보아도 어버이수령님처럼 희세의 덕망을 지니신분은 내 일찍부터 알지 못하는바이다. 반공의 열띤 랑설에 속아 살아온 내자신이 어리석은 청맹과니였다.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억만창생이 운명을 맡기고 살아갈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북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의리있고 동족을 사랑하는 미덕의 소유자들이다.》

오하영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을수록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통일애국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마음으로 병마와 싸워나갔지만 로환에 겹쳐든 그의 병은 현대의학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림종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였다.

《내 나이 80고령이지만 나는 이제 겨우 열살을 살고 가는 셈이요. 입북후 10년간이 나의 참된 인생의 전부였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생의 진창길에서 헤매던 이 사람을 이끌어 통일성업에 한몫 이바지하라 하셨는데 너무도 해놓은 일 없이 가는것이 그지없이 죄송하오. 동서고금에 견줄이 없는 어버이수령님을 그네들이 내 몫까지 잘 받들어모셔주오.》

그리고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그이의 건강을 간절히 기원한 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이 바로 1960년 9월 2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비보를 받으시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오하영선생은 량심적인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일할수 있었는데 일찌기 사망하였다고 하시며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이름으로 평양방송에 부고를 내보내고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할데 대해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애국지사》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의 유골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1990년 8월에는 그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해주시는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은덕이 있음으로 하여 한때 정치적탁류의 부평초로 숭미반공의 길에서 방황하던 그리스도교인, 민족주의자였던 오하영은 통일애국의 길에 그 이름을 남긴 애국지사로 영생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숭미반공으로부터 련공입북에로의 인생전환. 그리스도교목사로부터 애국지사가 된 오하영의 인생행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이야말로 그가 인생말년에 정의와 진리의 길, 통일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이게 한 원동력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최 태 규 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 113

꼭두각시의 탈을 쓰고 ······································ 121

참다운 삶의 품에서 ·· 134

무한한 포용력에 감복하여 ································· 142

경력

- 1920년 3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출생.
- 1940년 4월 동경전수대학 입학.
- 1944년 5월 《학도병》 징집.
- 1948년 5월 남조선《국회》의원.
- 1978년 11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 2009년 10월 사망.
- 1998년 8월 조국통일상 수상.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의 길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사람들가운데는 최태규도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태여난 그가 걸어온 인생길에는 우리 민족이 당한 수난과 고통이 그대로 집약되여 있다.

일찍부터 배움의 뜻을 품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던 그는 조선청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려는 일제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학도병》으로 중국침략전선에 끌려나갔다. 치욕스러운 외세의 총알받이가 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별의별 고생을 다 겪은 그는 일제가 패망한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해방전 일제에게 충실히 복무한 관료배들과 일본군과 만주군장교출신 등 어제날의 친일파들이 친미파로 변신하여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으려고 날뛰는 남조선현실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치판에 뛰여들어 썩은 세상을 바로잡아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최태규는 고향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으로 《제헌국회》에 들어가게 되였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그의 소박한 념원을 미국이 주인노릇을 하는 남조선땅에서 더우기 식민지의 허수아비기구에 불과한 《국회》를 통해 실현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꿈에 불과했다.

걸음마다 좌절과 시련에 부닥치면서도 미군철수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노력하던 최태규를 비롯한 《국회》의 소장파의원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리승만패당은 《<국회>프락찌야사건》을 날조하여 그들모두를 체포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1년이 넘도록 감옥생활을 하던 그는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한 후에야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하게 되였다.

생사기로의 운명에서 구원해주신 따사로운 사랑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최태규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태양을 따르는 그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 통일의 길이라는 굳은 결심이 자리잡게 되였다. 하여 그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주저없이 진정한 삶의 품을 찾아 입북의 길에 올랐다.

전후시기로부터 수십년간 그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여러 직무에서 사업하면서 해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80이 넘는 나이까지 로당익장하여 통일성업에 한몸 바쳐온 최태규. 그의 일생은 오늘 우리 겨레에게 통일애국에 헌신한 참다운 인생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붕ㅡ》

1946년 봄, 한척의 배가 상해를 떠나면서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인천을 향해 항로를 잡고 떠난 이 배에는 수백명의 조선사람들이 타고있었다.

검푸른 바다를 미끄러지듯 항해하는 배의 갑판우에서는 각양각색의 차림을 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희망에 부푼 가슴을 식히고있었다. 그들중에는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귀국의 길에 오른 최태규도 있었다.

멀어져가는 이국의 산천을 바라보는 그의 뇌리로는 일제식민지치하에서 지나온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1920년 3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태여난 최태규는 날로 가혹해지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직접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그가 태여난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일어난 3.1인민봉기가 해내외에서 1년가까이 진행된것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대중의 반일기세가 높은 시기였다. 철이 들기 시작해서부터 최태규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애국자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민족의 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남다른 애국심을 키워나갔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가 조선강점초기에 조작해낸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의 관계자로 당시 경찰에 체포되여 감옥살이도 한 애국적인 인사였다.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은 1911년 일제침략자들이 조선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꾸며낸 정치적모략사건이다. 일제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방의 애국자들과 애국적지식인들이 조직한 반일적인 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그들이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에 대한 암살음모를 꾸몄다는 구실을 붙여 수백명의 애국자들을 체포하고 그중 105명을 기소하여 형을 들씌웠다.

데라우찌로 말하면 1910년 5월 3대조선통감으로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그해 8월에 비법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침략의 괴수, 조선인민의 흉악한 원쑤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날 밤 데라우찌는 통감부관리들과 먹자판을 벌려놓은 자리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고바야까와 다까가게, 가또 기요마사, 고니시 유끼나가가 살아있다면 오늘 밤 이 달을 어떻게 보았을가.》라는 시를 지으며

거들먹거렸다고 한다. 임진조국전쟁당시 조선침략의 앞장에 섰던 왜군장수들의 이름을 외우며 이자는 조선을 타고앉은 쾌감을 금치 못했던것이다.

데라우찌는 조선을 강점한 후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온 조선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자는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을 말살하며 저들의 조선강점을 영구화할 목적으로 악명높은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행정, 사법권과 군사통수권은 물론 립법권까지 휘두르면서 데라우찌는 조선헌병대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각 도헌병대장이 그 도의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하여 헌병이 군사경찰임무외에 이른바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임무까지 수행하는 헌병경찰제도를 조작하였다.

《범죄즉결령》, 《조선형사령》, 《조선태형령》, 《조선감옥령》 등 여러가지 살인악법들을 조작한 일제는 저들의 군대와 헌병, 경찰 및 감옥 등으로 조선 전 지역을 뒤덮었다.

그뿐 아니라 일제는 관리들은 물론 소학교교원들에게까지 제복을 입히고 칼을 채워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칼로 위협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또한 어용신문인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만 남기고 모든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키였으며 각종 계몽단체마저

해산시키였다. 《리순신전》을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민족의식을 일깨울수 있다고 생각되는 책도 모조리 판매를 금지하거나 압수하였다.

의병투쟁이나 계몽활동 등 자그마한 반일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른바 《요시찰인》, 《불령선인》으로 락인찍혀 철저한 감시를 받다가 감옥으로 끌려가 학살됐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조선민족은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모든 정치적자유를 빼앗겼다. 《조선교육령》에 의한 식민지교육정책의 결과 조선의 력사와 지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일본의 력사와 지리가 학교수업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학교가 식민지지배체제에 순응하는 노예를 만드는 세뇌교육의 현장으로 화하였던것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증오심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었다.

당시 데라우찌를 위시한 일제침략자들은 날로 높아가는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말살할 목적밑에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찾고있었다. 이러한 때 독립의 뜻을 품고 국외에 망명하여 활동하던 안명근(안중근의 4촌동생)이 다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간도지방에 무관학교를 세울것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1911년 11월경에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황해도 안악, 재령일대에서 군자금모집활동을 하다가 친일주구의 밀고로 평양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였다.

일제는 안명근의 체포를 서북지방의 반일독립운동자들에 대한 정치적탄압의 구실로 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안명근의 군자금모집활동을 일제의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에 대한 《암살계획》의 일환으로 꾸며놓고 이에 서북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방의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억지로 관련시켰다. 이어 그해 12월 27일에는 데라우찌가 압록강철교준공식참가로 평안북도지방에 가게 된 기회를 리용하여 이른바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란것을 발표하였다.

일제는 자기들이 조작한 이 사건에 관련시켜 량기탁, 리승훈, 리동휘 등 수백명의 애국적인사들을 체포하였다.

당시 총독부 경무총감이였던 아까시 모또지로는 야만적인 고문기법들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용하였다. 하여 류치장에 투옥된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모두 가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중 여러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였다.

신민회의 한 성원이였던 최태규의 아버지도 그때 류치장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며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여 그도 남다른 반일의식과 애국심을 키우며 성장하게 되였던것이다.

일찍부터 향학열에 불탔던 최태규는 고향에서 소학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성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현해탄

을 건너 일본으로 가서 동경전수대학 법학부에 입학하였다.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희망을 실현한것으로 하여 그는 날아갈듯이 기뻤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청년의 운명은 제국주의일본의 손바닥우에 놓여있는것으로 하여 순탄할수가 없었다. 고학을 하면서도 여러해동안 대학공부를 부지런히 하여 졸업을 앞둔 어느날 최대규는 난데없이 날아든 《징집령장》을 받아들게 되였던것이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1938년 2월에 《조선인륙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그것을 강제실시하여오다가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자원의 부족을 크게 느끼게 되자 조선청년들을 모조리 전쟁의 대포밥으로 동원할 목적으로 1943년 8월에 《징병제령》을 발포하고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끌어갔다. 한편 그해 11월에는 학제를 변경하여 수업년한을 단축하고 전문학교이상의 학생들에게 《학도병제령》을 발표실시하였다.

악독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청년들의 소박한 배움의 꿈마저 사정없이 짓밟고 끌날같은 청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몬것이다.

최태규도 이렇게 《학도병》으로 강제징집되여 중국전선으로 끌려가게 되였다. 일본군대에 끌려간 첫날부터 그는 왜놈하사관들과 장교들의 야만적인 기합과 폭행, 훈련에 시달리며

온갖 고생을 다했다.

채찍과 몽둥이에 얻어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군화발에 채워 얼굴에서 피가 터져나올 때마다 그는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 망국노의 설음을 뼈속깊이 새겨안았다.

최태규는 1년이 넘도록 중국에서 총포탄이 비발치는 전투장들에 끌려다니며 일본군의 총알받이노릇을 톡톡히 하다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자유로운 몸이 되였다. 전장에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다른 《학도병》친구들과 함께 일본군부대를 탈출하여 여러달동안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겨우 상해에까지 와서 귀국선에 몸을 실을수 있었던것이다.

갑판우에서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그의 심정은 착잡했다. 비록 해방은 되였어도 남조선에는 미군이 침략의 군화발을 들여놓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살판치는 등 정치정세가 매우 복잡하다는 소식을 들었던것이다.

그때 귀국선에서는 한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한 《학도병》이 일본군대에서 오장을 하면서 숱한 애국적조선청년들을 밀고하여 살해한 친일파를 선실구석에서 발견하였던것이다. 배에 탔던 《학도병》들은 그놈을 당장 끌어내여 심판을 하고 바다물에 처넣자고 웅웅했다. 최태규가 법학을 전공한것으로 하여 갑판우에서 꾸려진 림시재판정의 판사로 선출되였다. 피고와 증인들이 참석한 재판에서 배에 타고있던 징용, 징병, 《보국대》, 《학도병》, 《지원병》 등 망국의 비운속에

수난당해온 청년들은 그놈을 당장 쳐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때 덩치큰 세퍼드를 앞세운 한 사나이가 갑판우에 나타났다. 자기를 상해림시정부가 조직한 광복군의 참모총장이였던 리범석이라고 소개한 사나이는 여기서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된다, 조국에 가면 친일파들의 명단이 다 있으니까 법에 따라 응당 처벌할것이니 그때까지 좀 참자고 사람들을 설복했다. 그래서 재판은 흐지부지되고말았다.

최태규는 죄행이 명백한 친일파조차 심판할수 없는 현실앞에서 이름할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다. 장차 해방된 내 조국은 어디로 갈것인가. …

꼭두각시의 탈을 쓰고

배가 인천에 도착한 후에도 최태규를 비롯한 귀국자들은 인차 뭍에 내릴수 없었다. 쾌속정을 타고 나타난 미군헌병들이 배안에 전염병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부산에 가서 검역을 받고 소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기때문이였다.

귀국자일행은 한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상륙하였다.

배에서 내린 길로 최태규는 곧장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였다.

거리를 미친듯 질주하는 미군찦차들,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다니는 술취한 미군장교들, 영어간판이 어지럽게 나붙은 상점들과 식당들, 그 무슨 당이니, 협회니, 련맹이니 하는 형형색색의 간판을 내걸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각양각색의 단체들.

향방없이 걸어가던 그는 건물담벽에 붙어있는 맥아더의 《포고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제1조 조선 북위 38°선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

제3조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시 복종할것.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한 질서보안을 문란히 하는자는 엄벌에 처함.

…

제5조 군정기간중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포고문》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가슴속에는 의분이 끓어올랐다.

일제가 패망했는데 우리 조선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로 된다는 수작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내가 꿈속에서도 그려보던 해방된 내 나라인가.

서울바닥에서 그는 귀국선우에서 면식을 익힌 리범석을 만나 그가 조직한 민족청년단의 부단장자리를 제의받기도 하였고 중학교와 대학동창들, 《학도병》출신동료들로부터 《국방경비대》와 경찰에서 함께 일하자는 청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것을 뿌리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모든 제안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고향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던 최태규는 죽마고우인 한 친구로부터 북에서 진행되는 민주개혁소식들과 서울에서 발행되는 좌익계신문들을 받아보면서 점차 정치적으로 각성

되여갔다. 특히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소식은 그의 가슴을 흥분으로 높뛰게 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영원히 강점하기 위하여 《단독정부》를 조작하기 위한 본격적인 책동에 달라붙었다.

이에 추종한 리승만패당은 《단독정부》음모실현의 일환으로 1948년 1월부터 《국회》의원출마전을 벌려놓았다.

한개 군에서 한명씩 당선시키는데 최태규의 고향에서는 3명이 출마하여 선거유세를 벌리였다.

《한국민주당》 집행위원의 감투를 쓰고있던자는 자기를 당선시켜주면 정선강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고 군 독립촉성국민회 단장은 자기가 당선되면 군민을 위해 목욕탕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했고 지방유지였던 다른자도 그러루한 공약으로 군민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3명의 후보들이 노는 꼴을 바라보는 최태규의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치솟았다. 아무런 정견도 없고 일가견도 없이 오직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저런자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때리였던것이다.

만일 내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국회》무대를 리용하여 언제부터 생각해오던 미군철수와 토지개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국회》의원립후보로 출마하여 평소

에 자기가 생각해오던 문제들을 가지고 사리정연하게 군민들 앞에서 연설하였다. 그의 연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대다수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국회》의원선거에서 그는 앞서 출마했던 3명의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였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가 아니라 한몸을 다 바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쟁할 각오를 안고 싸울것을 마음속으로 맹약하면서 서울로 향했다.

당시 5.10단선에는 북남협상을 요구한 평화통일세력을 비롯한 민주세력이 보이코트함으로써 친미매국노들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안에 매국배족의 무리들만 있은것이 아니였다. 일부 무소속《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민족적량심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그들은 인차 한뜻으로 통하였다.

1948년 6월 최태규를 포함한 근 70명의 무소속《국회》의원들은 무소속구락부결성식을 가지였다. 결성식에서는 《민주주의, 민족자결국가의 건설, 남북통일, 자주독립을 평화적방법과 정치적수단으로 쟁취한다.》는 공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무소속구락부의 《국회》의원들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특별처벌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박아넣자는 긴급제의를 《국회》에 제기하였다. 이것은 리승만계나 《한국민주당》(《한민당》)계의 《국회》의원들이 감히 맞설수 없는 《통장훈》이였다. 그것은 이 제의를 반대하면 자신들이 바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비호자로 락인될것이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무소속구락부는 1948년 7월에 공포된 첫 《헌법》부칙 101조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따로 정한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국회》에서의 첫 승리를 쟁취한 최태규는 그 기세로 리승만이 《국무총리》로 친일분자 리윤영을 추천했을 때 그를 반대하여 연탁에 올라가 열변을 토하였다.

《나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의 초보도 모르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대통령>이 민의에 어긋나는 제안을 제출했을 때 <국회>가 그것을 거부할수 있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 친일주구인 리윤영의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하는것은 민의에 맞는 너무도 정당한것이다.》

다음날 여러 신문들에는 《28세의 총각인 무소속<국회>의원이 친일주구의 <국무총리>인준을 규탄》이라는 내용으로 그의 발언이 보도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친일분자의 《국무총리》인준을 기각시킨것으로 하여 그는 일본류학시절에 배웠던 의회제정치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매혹되였다. 행정, 립법, 사법의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회제정치제도를 잘 리용하면 민중이 요구하는 정치적, 제도적문제들을 얼마든지 풀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그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가 하는것은 그후에 벌어진 사태발전이 보여주었다.

얼마후 《국회》에는 남조선미국《재정 및 재산이양에 관한 협정》이 상정되였다.

매 조항들이 매국적이고 예속적인 내용으로 일관된 이 협정에는 특히 9조 2항에 동산, 부동산, 유체, 무체를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요구할 때에는 응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었다.

이 조항을 놓고는 일부 우익, 보수정당의원들까지도 반발했다. 한달가량 이 협정을 놓고 《국회》에서 공회전이 계속되자 리승만은 《국무총리》 리범석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나타나 《미국어른들이 이 협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우리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겠다는데 이렇게 지연시키다가 노해서 협정체결을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독립>을 못하게 된다. 그래도 통과를 지연시키겠는가.》 하고 미친듯이 고아댔다.

최태규는 참을수 없어 벌떡 일어났다.

《제 나라의 경제권, 군사통수권까지 다 빼앗기고 독립은 해서 뭘 하겠는가. 이 협정은 독립이 아니라 철저한 예속을 의미하는 굴욕적이며 강도적인 협정이다.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전체 국민앞에 내놓고 토론에 붙일것을 제기한다.》

그의 이 피타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리승만의 지시대로 협정비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최태규를 비롯한 27명의 의원들이 퇴장하였지만 끝내 협정은 과반수를

넘는 찬성으로 통과되였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갑자기 딛고 선 바닥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듯한 환각을 느끼며 심한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태규야, 뭐 《국회》연단을 통해서 민의와 정의를 수호하겠다고?…

그는 비로소 남조선《국회》는 오직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도구일뿐이며 자기가 쓰고있는 《국회》의원의 감투도 꼭두각시의 탈에 불과하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최태규는 좌절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섰다. 당시 《국회》안에는 그처럼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애국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최태규는 마음과 뜻이 맞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의계라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수의계를 결성하는 날 단체성원들은 흰 천에 각자 자기의 맹세를 써넣었다.

《사무여한(죽어도 한이 없게 살리라.)》, 《명심불망(마음속에 새겨 잊지 않으리.)》, 《민중승천(사람이 뭉치면 하늘을 이기리.)》, 《독청독성(어지러운 속에서도 깨끗이 살리라.)》, 《파사현정(그릇된것을 깨우쳐 옳은것을 밝히리.)》

그도 붓을 들어 자기의 맹세를 써넣었다.

《일일일생(한생을 하루같이 변함없으리.) 최태규》

이 수의계조직은 점차 국회안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성원들을 더 받아들여 성인회로 발전하였다.

성인회는 자기의 투쟁강령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의 분렬과 동족상쟁의 류혈을 반대한다.

우리는 국토와 민족이 분렬되여있는 존망기로에서 개인의 공명과 영달을 위하여 민족의 량심을 팔고 외세에 아부아첨하며 맹종맹동하는 반민족적인 책동을 배격한다.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자유주의적립장에서 비판적으로 대하며 민족정기를 위하여 투쟁한다.

우리는 외세를 배격하고 미군의 즉시 철거를 주장하며 인공적인 38° 선의 국제성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적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통일된 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결사투쟁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최태규를 비롯한 성인회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안의 통일애국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결과 1948년 10월에 이르러 수십여명의 의원들로 《소장파》라고 불리우는 련합세력을 형성하였다.

《젊고 기개가 억센 사람들로 한가지의 경향을 이룬 패》라는 의미의 소장파에 망라된 의원들은 《국회》내에서의 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였다.

소장파는 비록 《국회》내에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세력

이였지만 우익보수세력인 리승만직계 및 《한국민주당》(후에 《민주국민당》)의 다수파의원들과의 대결전을 힘차게 벌렸다.

소장파의원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철거투쟁, 《보안법》반대투쟁, 친일파, 민족반역자처벌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으며 그 앞장에는 언제나 제일 나이가 어렸던 《총각<국회>의원》인 최태규가 있었다.

1948년 10월 그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45명의 련명으로 된 《외군철거요청안》을 긴급동의로 제기하여 본회의 의안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우익보수패당의 책동으로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은 남조선의 언론, 출판물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후에 있은 유엔총회에서 당시 쏘련외상이 남조선의 출판물들을 인용하면서 남조선《국회》의원들까지 미군의 즉시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미군은 왜 철수하지 않고있는가고 미국대표를 호되게 추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태규를 비롯한 소장파의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다음해 2월에는 70여명의 소장파의원들의 련명으로 《미군즉시 철퇴와 화평통일안》을 긴급동의안건으로 상정시킬것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이것은 미군이 강점한 남조선정치계에서의 일대 사변이였다.

비록 그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였지만 최태규는 그 안건을 《유엔림시조선위원단》에 진언서형식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은 무조건 즉시 철수해야 하며 조선의 통일은 조선사람들자신이 해야 한다는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태규는 리승만일당과 《한민당》이 1948년 11월 악명높은 《보안법》의 립법안을 《국회》에 긴급제의하자 소장파의원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가 《보안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리였다.

소장파는 또한 《헌법》부칙 101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리승만도당의 주되는 사회정치적지반을 이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할것을 목적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심의를 다그쳐 1948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였다.

최태규를 비롯한 소장파의원들은 리승만패당의 집요한 반대를 짓부시며 과감한 투쟁을 벌려 그해 11월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통과시킴으로써 1949년 1월부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내오고 그 직속으로 무장한 특별검찰관, 특별경비대를 조직하였다.

그와 많은 소장파의원들이 반민특위의 위원자격으로 특별검찰관, 특별경비대와 함께 김년수(《한민당》 당수, 일제시기 괴뢰만주국 서울명예총령사), 박흥식(화신백화점 사장, 일제말기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사장), 리종영(관동군사령부 정보특무, 해방후 《대동신문》, 《대한신문》 사장) 그리고 일제시기 악질경찰들인 로덕술(서울시경찰국 수사과장),

최운하(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등 수많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체포구속하였다.

소장파의원들의 이같은 투쟁은 진보적사회계와 애국적민중의 지지찬동을 받았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대량검거로 경찰들과 《민주국민당》(《한민당》의 후신)의 지반이 흔들리게 되자 리승만패당은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서울시경찰국과 《민주국민당》은 서울시경찰국 요원들의 일부가 반민특위에 체포되는것을 계기로 1949년 6월 무장경찰관들을 대량 동원하여 반민특위본부를 포위하고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민특위직속의 특별경비대를 무장해제시켜 해산해버렸다. 그해 9월에는 리승만일당에 의해 《반민족행위처벌법》자체가 폐기되여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다시 남조선정계와 사회경제계, 경찰계에서 활개치며 날뛰게 되였다.

1949년 5월에 이르러 《국회》가 휴회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권이 정지되자 리승만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소장파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국회>프락찌야사건》을 조작해내고는 그를 구실로 제일먼저 최태규를 포함한 3명의 소장파의원들을 체포한데 이어 수십명을 감옥으로 끌어갔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미군철수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한것이 《죄》가 되여 철창속에 갇히게 된 최태규의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감옥안에서 원쑤들의 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으며 그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십차례의 재판에서도 자기의 기개와 절개를 지키였다.

그를 포함한 소장파의원들을 재판하는 전기간 그 소식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여 온 남조선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그들의 법정투쟁을 지지하여 련대시위를 벌리고 삐라를 뿌리였다. 형무소앞에까지 시위대오가 밀려와서 전원 무죄석방하라고 웨치였다.

그러나 미국의 사촉과 리승만의 지시를 받은 남조선법정은 소장파의원들에게 3년으로부터 10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하였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전조선을 강점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온 미국과 《북진통일》의 망상에 사로잡힌 리승만일당은 6월 25일 끝끝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그러나 영용한 인민군대의 반공격전에 의해 오히려 침략자, 도발자들은 호된 타격을 받았으며 전쟁형편은 시시각각 애국과 정의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6월 26일 아침부터 동두천과 의정부쪽에서 인민군대의 포소리가 쿵쿵 미아리고개너머로 크게 울리여왔다. 바빠맞은 리승만일당은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기 하루전인 6월 27일 밤 《국군》 헌병사령부 뒤쪽 남산 소나무수림속에서 체포투옥한 남조선혁명가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했다.

최태규가 갇혀있던 서대문형무소에서도 그날 밤 간수장이 그를 포함한 소장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명단과 대조확인을 하던중 웬 놈이 달려들어와 귀속말을 하자 이자들은 황급히 달아나버리였다.

6월 28일 아침 형무소밖에서 땅크의 발동기소리가 우릉우릉 크게 울려오더니 형무소대문을 짓부시며 인민군땅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인민군병사들이 달려들어와 자물쇠들을 까부시고 감옥문들을 활짝 열었다.

《애국자선생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였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자, 어서 나오십시오.》

최태규는 이렇게 죽음의 심연에서 극적으로 구원되였다.

참다운 삶의 품에서

1950년 9월에 이르러 전선형편은 급변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을 때 서울에 남아있던 민주인사들과 민족주의자들, 정치인들은 비장한 최후를 각오하고 전국을 지켜보고있었다.

그 엄혹한 시국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남조선의 애국적정계인사들의 입북을 안전하게 보장할데 대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최태규는 김규식, 조소앙, 오하영을 비롯한 애국적인 정치인들과 함께 북행길에 오르게 되였다.

떠나기에 앞서 대오를 인솔하는 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선생님들 대부분이 년세도 많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잘 돌보아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전시환경이지만 식량도 넉넉히 공급하고 고기, 우유, 기름 등을 떨구지 말며 숙소도 잘 꾸려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심하므로 자동차위장을 잘하고 예비차도 준비하여 사소한 사고도 없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최태규와 일행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그는 다른 입북인사들과 함께 자강도 만포시(당시 만포군)까지 무사히 후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성도 들리지 않고 적기의 래습도 드문 안전한 곳에 그들의 숙소를 꾸리도록 하시고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고급양복과 조선옷일식 그리고 양단이부자리를 비롯한 수많은 생활필수품들도 보내주시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들모두를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훌륭한 집을 지어 매 사람들이 안착되여 생활할수 있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하여 최태규를 포함한 소장파의원들과 다른 재북인사들은 전쟁시기에는 내각직속 중앙지도간부학교(인민경제대학의 전신)에 입학하여 4개월간 공부한데 이어 전후에는 인민경제대학에 조직된 특설반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1956년 4월 인민경제대학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던 최태규를 비롯한 재북인사들을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들이 들어있는 합숙에도 들리시여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는 최태규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면 조국통일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들으시고 자신께서도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전문기관을 내오고 여러분들이 모두 거기서 일하면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최태규는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재북인사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할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1956년 6월 재북인사 48명 공동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내올데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해 7월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인사들은 물론 한때 반공일선에 서있던 우익정객들을 포함하여 근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조국통일성업에 기여하고저 한자리에 모인것은 그 력사적의의가 자못 컸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서가 발표되였다.

1. 조선사람은 조선민족의 지조와 절개를 굳게 지켜서 일체의 예속과 간섭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정신을 굳게 가질것.

2. 조선사람은 일치단결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독립을 달성할것.

3. 북남간에 호상접촉과 리해와 협의를 달성하며 서신과 주민의 래왕, 경제, 문화, 예술, 과학의 교류를 촉진할것.

4. 북남정권당국, 국회 혹은 정당, 단체대표 및 애국적인사들로써 평화통일문제협의를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할것.

5. 전조선총선거에 의하여 통일민주자주련합정부를 수립할것.

6.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하여 관계국가들의 협조를 기할것.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결성이후 남조선의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 단체들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 호소문, 내외기자들과의 회견, 출판선전물발간, 방송출연 등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주장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 반민주, 외세의존죄행을 고발단죄하는 정치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나날 최태규는 해마다 삼복철이면 금강산과 묘향산, 온포, 석암, 우산장 등 명승지들에서 한달씩 휴양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받아안으며 통일위업실현에 자신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갔다.

남조선에서 영웅적인 4월인민봉기에 의하여 리승만《정권》이 무너진 후인 1960년 11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조성된 파국적사태를 수습하고 조국

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대한민국 국회> 및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편지》와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의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는 그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채택한 《<대한민국 국회> 및 남조선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편지》와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의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를 적극 지지하는 회원총회를 열었다. 회의과정은 실황록음으로 보도되여 남조선의 《국회》 및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그리고 경제계, 문화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는 나이 많은 최고위원, 상무위원들을 비롯하여 회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전진의 길을 힘차게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의 구체적인 실태를 료해하시고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기구체계를 정비보강하며 활동방향도 바로 정하도록 하시고 회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 풀어주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최태규는 1978년 11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상무위원으로 선거된 후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 활력있게 전개해나갔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통일국가의 시정방침을 접수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1980년 12월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에게 격함》이라는 격문을 채택하였다.

격문에서는 련공애국의 길을 찾아 입북한이래 30년동안 공산주의자들과 련합하여 활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과 흔연히 손잡고 나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모든 민족주의자들과 우국지사들,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북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상과 리념, 당파와 정견,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공단합의 기발을 높이 들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보살피심속에서 성대히 진

행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 25돐 기념행사는 이 단체의 력사에서 특기할 계기였다.

최태규도 행사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손목시계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결성 25돐에 즈음하여 뜻깊은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지난 25년동안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가 자기의 창립리념에 맞게 전체 회원들의 애국적열성을 옳게 발동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최태규는 통일애국위업실현에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는 남조선에 있는 친지들과 친척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해설하는 편지를 수백통이나 써보내였다. 그들가운데는 악질적인 반통일분자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회답을 보내여왔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지낸바 있는 대학동창생에게서 긍정적인 회답이 왔을 때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방침은 전민족의 의사를 대변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통일대강임을 절감하였다.

그는 또한 방송과 신문을 통해 《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실현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나의 체험으로 고발한다》, 《통일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등 수많은 글을 발표하여 해내외의 각계각층을 통일위업실현에로 추동하였다.

최태규는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명의로 통일문제와 관련한 성명, 담화문, 호소문, 항의문 등 각종 형식의 여론전을 힘있게 벌려 반통일세력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단죄하는 투쟁을 벌리는 한편 《통일신보》에 회원들의 론설, 수기, 견문기, 회상기, 인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광범한 해내외동포들을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로 불러일으켜나갔다.

무한한 포용력에 감복하여

최태규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사업하고있던 어느날 미국에서 온 최덕신동포가 선친의 묘소를 찾아갈 때 그와 동행하게 되였다.

최덕신의 선친인 최동오는 화성의숙의 숙장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하였고 전쟁시기에는 최태규와 함께 입북하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을 한 이름있는 애국인사였다. 하지만 최덕신은 남조선에서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으면서 민족앞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였다.

남조선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최태규는 륙군사관학교 교장을 하던 최덕신과 낯을 익힌 사이였지만 그가 저지른 죄행으로 하여 그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

당시 평양시교외에 있던 재북인사들의 묘에 이르니 최덕신 일행이 먼저 와있었다. 30여년만에 다시 만난 최덕신과 인사를 나눈 최태규는 그를 최동오의 묘지앞으로 안내했다.

윤기나는 커다란 화강석비석에는 《애국지사 최동오선생의 묘》라는 붉은 글이 선명하게 새겨져있었다. 최덕신은 한동안 얼나간듯이 서있었다. 이윽하여 천도교식으로 청수 한그릇을

상석우에 올려놓은 그는 갑자기 《아버님!》 하고 봉분우에 어푸러지며 오열을 터뜨렸다. 폐부를 찌르는 그 호곡소리에 동행한 사람들도 모두 눈굽을 적시였다.

그때 최동오의 묘옆에는 최덕신의 장인인 류동열의 묘도 있었다. 《애국지사 류동열선생의 묘》라고 쓴 비석을 점도록 바라보는 최덕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였다.

그는 평양시교외에 선친과 장인의 묘가 있다는 말을 미국에서 들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민족반역자의 아버지와 장인을 가만둘수 있겠는가 하는 자기 생각만 고집했던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였는가 하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감격에 젖어있는 그에게 최태규는 최동오선생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초대상무위원으로 사업하다가 별세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여기에 묘를 썼지만 장인의 묘를 옮기는 일은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해주었다.

최태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전쟁시기에 입북한 후 사망한 인사들의 묘를 찾아 이장하던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전쟁시기 북으로 들어오다가 도중에 적기의 폭격에 의해서나 병으로 사망한 남조선인사들이 있었다. 그때 형세가 매우 급박했으므로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비석이나 상석은커녕

안장도 제대로 못해주고 떠날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름모를 산과 들에 흩어져 무주고혼이 된 고인들에 대한 추억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삭막해졌다. 근 30년세월속에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있던 그들을 잊지 않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1978년 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재북인사들가운데서 평양에 묘지가 없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들의 유골들을 다 찾아다가 평양교외의 풍치좋은 곳에 안장하며 비석과 상석도 잘해줄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쓴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백지화하고 력사와 겨레앞에 내세워주시고 빛내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최태규의 가슴은 흥분으로 벅차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묘지이설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줄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류동열의 묘도 그렇게 되여 최동오의 묘옆으로 옮겨오게 되였다.

인민군대에 의한 서울해방이후 입북한 그는 후퇴하던 도중 1950년 10월 급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때 동행하던 사람들이 사세부득이 하여 제물도 못갖추고 비석도 없이 가까운 산기슭

에 대충 안장하고 떠나갔었다.

재북인사들의 묘를 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묘지이설사업의 총책임자가 된 최태규는 그때 류동열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여 그를 안장한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돌각담이 쌓아져있지 않는가. 최태규는 집주인에게 량해를 구하고 그 돌각담을 허물었으며 끝내 그 밑에서 그의 유골을 찾아낼수 있었다.

묘를 어렵게 찾은 사람은 비단 류동열 하나뿐이 아니였다.

리광수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리광수로 말하면 젊어서 도꾜류학시절에는 좌익서적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 조선독립에 대해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상해림정조직때 서기로 천거되였고 림정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주필까지 했다. 그런데 돌연히 서울로 가서 《민족개조론》이라는 매국적인 글을 써서 총독부에 바치고 호화주택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그러기에 최태규는 묘지를 이설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리광수, 김동원과 같이 과거에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명단에 올리지부터 않았다. 명단에 오른 사람들가운데도 지방에 분명한 묘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디서 죽었는지, 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광수, 김동원과 같은 사람들의 묘까지도 옮기도록 해주시고 수송조직이며 비석과 상석을 제작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였다.

최태규는 감격하여 눈시울을 적시였다.

아, 얼마나 위대한 품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가!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뜻과 하늘같은 사랑을 받들어 전국각지로 다니며 유골을 이송해왔다. 그러나 전쟁의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묘를 찾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다.

수십년세월이 흘렀으니 그들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찾을 길 없었고 설사 동행인을 찾았다고 해도 전국도처에서 대자연개조와 건설사업이 진행되였으니 유해가 남아있겠는지도 모를 일이였다.

리광수의 유골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후퇴시기에 리광수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냈다. 리광수는 1950년 10월 평안남도 강서지방을 지나다가 밤에 미국비행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 동행하던 사람들은 멀지 않은 둔덕에 그를 안장하고 길을 떠났다.

최태규가 그때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리광수가 사망한 지역에 이르니 그 일대에는 농촌문화주택이 즐비하게 일떠서 있었다. 그 마을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묘지자리를 찾아냈지만 그 자리에는 살림집이 서있었다. 결국 유해를 찾자면 살림집을 헐어야 한다는 소리여서 그는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곳에 그 집과 꼭같이 새로 집을 지어주고 이사를 시킨 후 유해를 파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여 새집을 한채 지어놓고 이사를 시킨 후 그 집을 헐었더니 정말 그 자리에 유골이 있었다. 리광수의 유골이였다.

최태규는 유해를 옮기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무한한 포용력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후날 미국에 살던 리광수의 셋째아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자기 아버지의 묘지를 제눈으로 확인하고는 몹시 감동되여 묘앞에서 오래동안 울었다.

유해를 힘들게 찾은 사람들가운데는 정인보도 있었다.

우리 나라의 이름난 민족주의자의 한사람인 그는 해방후 남조선정계의 요직에 있었지만 전쟁때 리승만을 따라가지 않고 북행길에 올랐다. 홍명희의 사돈이기도 한 그는 동행하는 인사들에게 《북에서는 나의 사돈이 부수상을 하고있으니 내가 가면 무척 반겨맞아줄것이요.》라고 여러번 외웠다고 한다.

그는 후퇴하던 도중 어느 한 마을에서 미국비행기의 기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최태규가 그때 정인보와 동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가 사망한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일대는 모두 밭으로 개간되여있었다. 팔뚝같은 이삭이 달린 강냉이바다가 눈이 모자라게 펼쳐져있었다.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인보의 유해를 찾자면 그 일대를 다 파보아야겠으니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야 하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렇게 되여 그해 가을걷이가 끝난 후 그 일대를 다 뒤져서 끝내 정인보의 유해를 찾아 옮겨올수 있었다.

그의 유해를 이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명희가 묘소를 찾아왔다. 그날 최태규는 홍명희를 안내하여 묘소로 오면서 정인보의 유해를 찾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은 홍명희는 몹시 감복하면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아니시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고 하면서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묘소를 다 돌아보고난 홍명희는 《참, 좋은 곳이군. 내 사돈이 이런 명당자리에 누워있으니 내 기쁜 마음이 이를데없소.》라고 탄복하였다.

그는 잘 다듬어 세운 비석과 상석을 쓸어만지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인보, 남쪽에 있었더라면 어찌 이런 훌륭한 명당자리에 누워있겠나. 서울에서는 날더러 공산주의자들을 따라간다고 못마땅히 여기던 자네도 내가 온 길을 따라왔으니 오래 못산것은 미국놈탓이고 인생의 마무리야 잘한셈이지. 암, 잘한셈이야.》

이렇게 리광수와 정인보를 포함한 수십여명의 남조선인사

들의 묘가 평양시교외의 풍치수려한 곳에 이장되게 되였다.

최태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재북인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안으며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해 새 출발을 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지어저 멀리 하늘끝에 흩어져 세월의 망각속에 묻혀버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아서 영생의 언덕우에 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보답할 열의가 솟구쳐올랐다.

하여 그는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랍북자》문제에 대해 떠들어댈 때에는 《나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록음하여 북남회담장에서 틀어놓게 하였다.

《나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남땅에 전해달라. 그러면 누구나 나를 부러워할것이다. 이남의 이름없는 한 정치인이였던 나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고 빛나게 장식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크나큰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할것이다.》

그의 힘있는 목소리가 이처럼 회담장을 쩌렁쩌렁 울리자 황당하기 그지없는 《랍북자》에 대해 떠들던 분렬주의자들의 궤변은 여지없이 짓부셔졌다.

최태규는 민족통일대회들에도 여러번 참가하여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에게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실체험을 결부하면서 해설해주었으며 90이 가까워

오는 나이까지 로당익장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였다.

그 나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상무위원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사업하였으며 조국해방 53돐을 맞으며 조국통일상을 수상받는 영광도 지니였다.

인생말년에 이르러 최태규는 자기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며 이런 글을 남기였다.

《돌이켜보면 전쟁의 어려운 그날 서울을 떠나 함께 북행길에 올라 생사고락을 같이 나누어오던 수많은 재북인사들이 근 반세기어간에 모두 세상을 떠났다. 림종시에 그들이 남긴 유언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꼭 모셔달라는것이였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의 손목을 꼭 잡고 그 유언을 기어이 지켜주마고 눈물로 맹세를 다지였는데 아직도 분렬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있으니 작고한 이들앞에서 면목이 없고 그저 죄스럽기만 하다.》

조국통일에 대한 피타는 열망을 안고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간 최태규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조국통일상수상자 최태규의 삶은 우리 겨레에게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에 있으며 민족성원모두의 운명을 품어안아 빛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품에서만 인생의 영광을 누릴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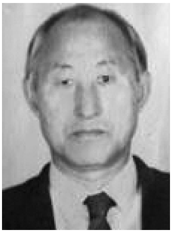
채 종 만 편

망향의 언덕에서 ······ 154

민족의 얼과 넋을 지켜 ······ 161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 171

인생의 좌우명 ······ 184



경력

- 1928년 강원도 문천에서 출생.
- 1934년 싸할린으로 이주.
- 1993년 10월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후에 회장.
- 2002년 5월 사망.
- 1998년 조국통일상 수상.

지난 세기 초엽 우리 민족은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기고 망국노라는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의 무제한한 착취대상으로, 자원략탈지로 전락되고 전대미문의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등지고 멀리 이국땅으로 정처없이 살길을 찾아 떠나갔다.

만주로, 씨비리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정처없이 떠나는 류랑민들속에는 전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이였던 채종만도 있었다.

철부지 6살나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싸할린섬으로 간 채종만은 온갖 민족적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망국노의 쓰라린 고통과 불행을 체험하였다.

그런 그에게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이 비쳐오기 시작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그때부터였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 된 긍지와 영예를 안고 채종만은 동포들과 함께 민족의 얼과 넋을 지키기 위한 애국사업에 뛰여들었다.

그 나날속에 채종만은 외세가 강요한 민족분렬을 끝장내기 위한 통일투쟁에도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그 길우에서 조국통일상을 수상받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였다.

식민지망국민으로부터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채종만이 걸어온 값높은 한생은 음지에 떨어진 불행한 씨앗도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안으면 기운차게 움트고 자라서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거목으로 된다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망향의 언덕에서

채종만은 1928년 강원도 문천땅에서 가난한 농민가정의 8남매중 넷째로 태여났다.

그가 태여난 시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더욱 강화되여 절대다수 조선사람들이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던 때였다.

채종만의 가정도 일제의 동양척식회사소유의 땅에서 소작살이를 하였지만 해마다 빼앗기는 소작료와 물세, 각종 세금으로 하여 살림은 더욱더 쪼들려만 갔다.

더는 고향땅에서 살수 없었던 그의 가족은 그 시기의 수많은 조선사람들처럼 살길을 찾아 나서자란 고향산천을 등지고 멀리 이국땅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피눈물을 뿌리며 타향으로 떠나야만 했던 조선사람들의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당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였다.

《남다른 환경에 경제적파산으로 남부녀대로 눈물을 머금고 정든 강산을 떠나 멀리 만주, 씨비리 또는 유미 각국으로 류랑의 길을 떠나는 동포가 증가되여 근년 해외 각지에 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것에 의하면 팔십오만 칠천 일백 구십구인으로 지방별은 다음과 같다는데 그들은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한다더라.

△ 북간도 훈춘지방 29만 1천 4백인

△ 서간도지방 17만 8천 2백 65인

△ 쏘련 씨비리지방 31만 4천 3백 62인

△ 중동철도연선지방 1만 7백 45인

△ 길봉지방 4만 4천 2백 17인

△ 관동주지방 80인

△ 중국본부지방 1천 1백 10인

△ 북미지방 1만 7천인

△ 영국 20인

△ 총계 85만 7천 1백 99인

…》

채종만의 가족이 1934년에 이주민의 물결에 실리여 간 곳은 싸할린섬이였다.

1905년 로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강화조약에 의해 로씨야령토였던 북위 50°이남의 싸할린섬남부를 차지하였다.

남쪽으로 일본의 혹가이도와 마주하고있는 면적이 근 8만㎢에 달하는 큰 섬인 싸할린에는 콕스를 만들수 있는 점결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였다. 군사적가치가 높은 이 지역을 군사기지화하고 풍부한 자원을 략탈하자면 많은 로동력이 필요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본토는 물론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로동력을 대거 끌어왔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에서 시행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갔으며 이중에서 싸할린섬남부로도 적지 않은 조선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였다.

그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전쟁으로 인해 부족해진 물자와 로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조작하고는 그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등 각종 악법을 만들어냈다.

이 악법들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징용에 걸려 싸할린으로 끌려왔으며 이미 현지에서 살고있던 조선사람들도 소위 《현지징용》되였다.

이 시기에 강제동원된 조선사람들은 싸할린의 30여개 탄광과 수많은 벌목장을 포함하여 비행장, 도로 및 철도건설장들에 끌려가 강제로역에 시달렸다.

채종만의 아버지와 형들도 이때 탄광에 끌려가 징용살이를 하였다. 살인적인 로동강도와 렬악한 로동조건, 때없는 갱의

붕락, 긴 로동시간으로 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이 죽음의 고역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일제는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다.

한편 강제징용되여 싸할린으로 끌려온 사람들의 고향에서는 1년이 넘고 2년이 지나도록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을 찾아 가족들이 싸할린으로 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져 싸할린의 조선사람수는 점점 불어났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자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부싸할린에서 채굴한 석탄을 수송선을 통해 일본으로 수송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전쟁후반기에 이르러 련합군이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자 싸할린섬과 일본을 오가던 수송선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결국 1944년 8월에 이르러 수송선에 의한 일본으로의 석탄수송이 중단되였다.

다급해진 일제는 싸할린섬의 석탄을 포기하고 일본본토의 석탄으로 전쟁을 수행할것을 결정하고 싸할린섬에서 징용에 시달리던 조선사람들을 다시 일본본토로 대거 끌어갔다. 일명 《이중징용》으로 불리우는 이 강압적조치에 의해 조선사람들은 후꾸오까현을 비롯한 일본의 26개 탄광으로 이중징용되였다.

나라없는 민족의 운명, 망국노의 처지는 이렇듯 비참하였다.

싸할린섬에서 일제가 감행한 징용과 이중징용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도

조선의 고향과 싸할린섬 그리고 일본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련락이 끊어져 생사조차 알수 없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정확한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지만 1941년에 남부싸할린에 대략 15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탄광과 광산, 군사기지 건설장에서 일하였는데 태평양전쟁후반기에 이르러 그중 10만여명이 일본으로 이중징용되였다고 한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이 쓰라린 비극속에서 채종만의 아버지도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채종만도 일제패망직전에는 탄광에 끌려가 어린 나이에 죽도록 일하였다.

일제는 패망한 후 남부싸할린을 쏘련에 반환하면서 섬에 와있던 일본인들은 본토로 데려가면서도 저들이 끌어다놓은 조선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그냥 싸할린섬에 주저앉게 되였는데 그 수는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나라없는 민족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채종만은 싸할린섬에 끌려왔다가 해방후에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담아 누군가가 지은 시 《망향의 언덕에서》를 종종 외우군 하였다.

모진 로동에 문드러진 손가락,
　잘려서 없어진 팔뚝
멀쩡했던 몸뚱이가 이렇게 짓밟혔어도

꿈속의 고향길은 갈수록 생생합니다
일본놈이 가로막은 고향길은
  갈수록 꿈결에서 환해집니다
얼어붙은 타향땅의 모진 세월에
  몸뚱이의 상처도 깊고 크지만
밤마다 돌아눕는 고향하늘쪽
  그리움은 더욱더 깊고 큽니다

이처럼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면서 수난받고 천대받던 채종만을 비롯한 싸할린섬의 조선동포들에게도 따뜻한 해빛이 비쳐들었다.

1956년에 이르러 쏘련(당시)에서 살고있던 조선동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등록되였다.

채종만은 인생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그날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어린애마냥 울었다. 오래동안 떨어졌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긴 자식의 환희가 그의 가슴에 그득히 차올랐다.

수난많던 이역살이의 설음을 가시여주는 진정한 어머니조국이 나에게도 있구나.

조국에서는 1963년 10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까지 발포하여 채종만을 비롯한 동포들의 공민권을 확고히 담보해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에서는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공화국공민으로 규정하였으며 공화국의 공민이라면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는것을 규제하였다.

조국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채종만은 1950년대말 재쏘조선공민조국방문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가 태여나 태를 묻은 조국은 망향의 언덕우에서 꿈결에도 가보고싶던 어머니땅이였다. 채종만의 가슴속에서는 죽어서라도 조국에 가보고싶은 그의 소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차고넘쳤다.

조국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조국아! 지난날 너와 눈물속에 작별하고 떠났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바로 여기가 내가 꿈결에도 그리던 어머니조국,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릴 삶의 토양이구나!

조국방문의 나날 전쟁의 재더미를 가셔내고 천리마의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힘차게 비약하는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을 직접 목격한 채종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된 영예를 더욱 빛내여갈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민족의 얼과 넋을 지켜

재쏘조선공민조국방문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한 후 싸할린으로 돌아온 채종만은 먼저 동포들을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부터 벌려나갔다.

그때 일부 조선사람들은 생활상곤난과 여러가지 리유로 하여 자기의 국적을 숨기고 살았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은 조선민족의 본태를 영영 잃어버리고말것이였다.

채종만은 잃어버린 보석을 찾는 심정으로 동포들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여다녔다.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싸할린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지역이다. 조선에서는 온갖 꽃이 만발하는 4월에도 싸할린에는 두터운 눈이 쌓여있었다. 그런 속에서 넓은 섬의 여기저기에 널려사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느라 로상에서 손과 발을 얼구기가 보통이였다. 인적드문 산길도 많이 걸었고 생소한 길을 걷다가 헛갈려 고생도 많이 하였다.

그러한 고생속에서 조선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은 채종만의 가슴을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다.

싸할린주에서 일어난 조선사람찾기운동은 그 규모가 커져서

깜챠뜨까와 하바롭쓰크변강을 비롯한 쏘련 원동의 각 지역들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조선사람들이 로씨야의 원동지역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것은 1860년대부터였다고 한다. 로씨야측의 최초의 기록에 의하면 1863년 11월 조선사람 20세대정도가 짜리로씨야국경경비대에서 얼마간 떨어진 강근처에 정착할것을 희망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5명의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청원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조선사람들의 이민행렬은 갈수록 불어나 몇해사이에 여러개의 마을을 이루고 수백세대를 넘어섰다. 1910년부터 10여년사이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 시기 겨울에 바다가 얼면 함경북도 북부에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 원동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1914년에는 벌써 6만 5천여명의 조선사람들이 연해변강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4년후인 1918년에는 그 수가 무려 10여만명에 이르렀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활동무대가 연해주지방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로씨야 원동지역의 조선의병수는 한때 5만명을 넘어섰으며 조선인부락도 120여개에 달하였다.

원동지역의 울라지보스또크, 바라바씨보, 울라지미르-알렉싼드로브쓰크주민의 절대다수가 그때 조선사람들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원동지역에 삶의 터전을 내린 수십만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은 쏘련침공을 노린 일제의 교활한 민족리간책동에 의해 1937년에 이르러 우즈베끼스딴을 비롯한 이전 쏘련의 중앙아시아지역 가맹공화국들로 이주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들중 일부가 원동지역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절대다수는 그냥 중앙아시아지역에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여 이전 쏘련의 로씨야지역에서 조선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남게 된 싸할린주로 되였던것이다.

채종만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싸할린주에서 민족의 얼과 넋을 지키여 동포들모두를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공민학습조를 내오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학습조에서는 공화국공민들이 모여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눈부시게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을 신문과 잡지, 도서 등 출판물과 영화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동포사회의 단합을 촉진하고 민족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애국활동을 진행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싸할린으로 간 조선사람들은 대부분 지주의 착취때문에 쫓겨났거나 징용으로 끌려온 농민들과 로동자들이였다.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것마저 힘겨웠던 그들은 학교는 고사하고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는 까막눈들이였다.

무관심이 사람의 넋에 죽음을 가져다준다면 자기의 뿌리, 민족에 대한 무관심은 인간의 삶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법이다.

동포1세들은 그래도 조선말이라도 할수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조선말조차 제대로 할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든 고장을 떠날 때마다 조선사람의 리별의 한이 스민 《아리랑》 가락이 동포1세들의 가슴속에 사무쳤건만 그 후손들은 민요 한곡조도 제대로 뽑을줄 몰랐던것이다.

박 보리스, 한 쏘냐라는 이름이 보여주는것처럼 자기 민족의 고유한 말, 이름조차 잃고 살고있었으니 민족문화는 더 말할것도 못되였다.

채종만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조선말보다 이국말을 더 쉽게 입에 올린다면 장차 민족의 대는 끊어질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공민들로써 각 지방별로 학습조를 조직하는 사업에 앞장섰다.

막상 학습조를 조직하고보니 제일 걸리는 문제는 공민들의 지식수준이 너무도 낮은것이였다. 또 지역적으로도 먼곳에 흩어져 사는 공민들이 모이다보니 자동차나 뻐스를 타는데 지출되는 돈때문에 아무리 배우고싶어도 마음뿐이지 학습조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채종만은 학습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한편 그들이 먼곳에 사는 공민들의 집을

찾아가 하루쯤 품을 놓고 배워주도록 하였다.

싸할린주에 사는 공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 조국에서도 공민들이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총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의 학습경험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그들이 돌아올 때 신문, 잡지, 예술영화, 기록영화를 비롯한 출판물들, 록화물들을 보내주었다.

이때로부터 학습조들에서는 글읽는 소리, 열기띤 토론과 론쟁,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남의 눈치를 보며 기웃거리던 공민들도 학습에 열중하였다.

채종만은 조국에서 보내준 신문, 잡지들과 영화필림들을 가지고 유즈노싸할린스크, 홈스크, 네벨스크, 뽀로나이스크 등 싸할린주의 여러 도시들을 오가며 동포들에게 조국을 알게 하고 민족의 넋을 심어주었다.

이렇듯 채종만의 피타는 노력속에 적지 않은 동포들이 학습조에 망라되여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나갔다.

싸할린주의 여러 지방들에 있는 공민학습조는 조국에 대하여 잘 알게 하는 교육위주의 조직이였다. 발전하는 현실은 민족적뉴대를 더 공고히 해나갈수 있는 동포들의 조직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1980년대말에 이르러 이전 쏘련지역에 사는 조선공민들과 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운동에 적극 떨쳐나섰다. 뿐만아니라 1980년대후반기에 이르러 이전 쏘련의 여러 민족들속에서 제가끔 자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정세의 흐름속에서 각 가맹공화국에 살고있는 조선사람들도 민족단체를 뭇고 자기식의 활동을 벌리기 시작했다. 이 조직들은 명칭과 형태도 각양각색이고 강령과 규약, 활동방식도 달랐다.

그중에는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녀교육, 생활권, 기업권 등 생존권의 옹호만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있었는가하면 직업과 직종, 계층별로 조직된 단체들도 있었으며 애국애족의 리념을 표방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적대세력들은 정치, 군사, 경제, 사상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화국을 완전히 고립, 압살, 질식시켜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채종만을 비롯한 동포들은 시련을 겪고있는 조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조국동포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도 강력히 단죄하자면 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운 강력한 조직이 있어야 했다.

당시 남조선보수패당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싸할린주의 여러 도시들에 경제인, 기자단, 관광단, 체육단 등 각종 명목의 대표단을 들이밀어 동포들에게 《선물》을 쥐여주고 경제합영, 합작 등의 공간을 리용하여 남조선경제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는 한편 자기들을 지지하는 조직을 내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었다.

보수패당은 남조선에 친척이 있거나 고향을 둔 연고자들이 많은 동포1세들을 꾀드겨 동포들을 분렬리간시키려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하였다. 싸할린지역에만 하여도 이르는 곳마다에 교회당을 지어놓고 목사의 간판을 든 요원들을 수십명씩 들여보냈으며 지어 교원, 기업가의 외피를 쓴자들도 너절하기 그지없는 모략책동에 매달렸다.

당시 그들의 감언리설에 넘어간 적지 않은 동포들속에서는 죽기 전에 가족, 친척이나 한번 만나보자고 생각하면서 공민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편향이 나타나고있었다.

새로운 동포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은 결국 동포사회에 불신과 대립을 조성하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분렬주의세력과의 투쟁속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새로운 동포조직결성사업이 더욱 활발해지자 안기부(당시)요원들을 비롯한 불순분자들이 무리로 쓸어들어와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모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이자들은 싸할린에 있는 방송국을 통하여 매일 몇시간씩 저들의 감언리설을 설교하는 방송을 불어대기까지 하였다. 지어 돈과 물건으로 일부 동포들과 현지관리들을 매수하여 여론몰이에 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채종만은 동포들의 조직인 조선

평화통일지지위원회를 결성한데 이어 싸할린주를 비롯한 원동지역에 조직되여 활동하던 공민학습조들을 토대로 공민조직을 내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그 결과 1993년 10월 로씨야의 하바롭쓰크에서는 로씨야지역의 통일적인 해외공민조직인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결성되였으며 채종만은 부회장으로 선거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가 결성된 후 채종만은 조직을 더욱 강화하여 원동지역에 사는 조선공민들이 자기의 공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열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재로공민들속에서 1세공민들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민족적자각과 단련이 부족한 2세, 3세공민들이 많아지는 속에 일부 공민들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하면 거주국의 공민으로 귀화하는 현상까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채종만은 어떻게 하면 동포들이 자기자신보다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안타깝게 모대겼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에서는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의 일군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조국의 위대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예술단들을 싸할린을 비롯한 원동지역에 보내여 동포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조국의 지지성원에 힘을 얻은 채종만은 조국을 방문했던 동포들과의 좌담회 등을 통하여 모든 공민들이 조국의 위대함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애국의 마음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국도서전시회를 열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과 장편소설, 잡지와 도서들을 동포들이 정상적으로 읽을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속에 1998년 10월 로씨야의 하바롭쓰크에서는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결성 5돐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행사는 원동지역의 조선공민들을 더욱 굳게 결속하여 공민협회가 해외공민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채종만은 이 행사에서 조국의 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조국의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받아안은 그는 용기백배하여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는 모든 조선공민들의 가정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도록 이끌어주었으며 공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휘장을 가슴마다에 정중히 모시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살도록 하였다.

이 나날속에 동포들의 생활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다.

눈의 띄게 달라진것은 동포들속에 민족의 넋이 심어져 조선사람의 체취가 풍기기 시작한것이였다. 돌이켜보면 생김새만 같을뿐 우리 말도 풍습도 문화도 제대로 모르고 생활의 세파에 부대껴오던 그들이였다.

그러던 동포들이 학습조에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민족의 얼을 되찾아나갔으며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의 주최하에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들을 조국인민들과 함께 경축하였다.

조국인민들과 같이 설명절과 추석과 같은 민속명절들을 쇠게 되였고 치마저고리를 비롯한 아름다운 민족의상도 즐겨입게 되였으며 민족고유의 노래선률과 춤가락이 되살아났다. 원동지역의 조선공민들이 여러 계기에 모일 때마다 《아리랑》이나 《도라지》, 《돈돌라리》, 《양산도》와 같은 흥겨운 민요를 부르며 조선춤을 덩실덩실 추는것은 례사로운 일로 되였다.

그들은 더는 어제날 마가을의 락엽같이 흩어져 남의 나라 지붕밑으로 흩날려가던 불쌍한 망국민과 그 후손들이 아니였다. 몸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자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를 알고 조국을 아는 긍지높고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이였다.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1980년대후반기는 세계정치정세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들의 끈질긴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붉은기가 내리워지는 비극적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전 쏘련에서도 《개혁》, 《개편》의 광풍이 어지럽게 몰아치는 속에 수정주의자들이 《랭전종식》과 《자유》를 부르짖으며 사회를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타서 남조선당국도 이른바 《북방정책》이라는것을 내들고 이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에 추파를 던지는 한편 이 지역에 있는 조선동포들을 회유하기 위해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렸다.

남조선당국은 1989년에 싸할린—남조선항공로를 개설한데 이어 동포들에게 남조선방문의 편의를 위해 싸할린—남조선왕복비행기표와 체류비까지 보장해준다고 광고하였다. 또 해방전에 일제가 싸할린으로 끌어갔던 동포들을 남조선으로 모두 데려간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일부 1세동포들을 《비행기

무료봉사》로 남조선에 끌어다가 고향방문도 시키고 반공교육을 하는 등 여러가지 회유기만수법을 썼다.

하여 싸할린주의 동포사회에는 진정한 조국을 옹호하려는 공민들과 남조선보수패당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사이에 불화와 알륵이 싹트게 되였다.

그것을 지켜보는 채종만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악독한 일제에 의해 정든 고향을 떠나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끌려와 온갖 고생을 한것만도 가슴아픈데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비극이 해외의 동포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 같은 조선사람끼리 반목질시하고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는 동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이 분렬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산생된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는 길이라는것을 절감하고 통일애국사업에 용약 떨쳐나섰다.

이러한 때 공화국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채종만은 조국을 방문하게 되였다. 어머니조국은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을 마련하고 이전 쏘련지역에 살고있는 동포들도 조국의 품으로 불러주었던것이다.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세계 180개 나라에서 온 1 245개의 청년 및 학생조직들과 60여개의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 1만 6 000여명, 90여개의 나라에서 온 당 및 국가수반들을 포함한 470여명의 명예손님들,

수천명의 외국관광단 및 해외교포들이 참가하여 성대하게 진행된 대정치축전의 나날에 채종만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신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그때 축전에 참가한 남조선의 전대협대표를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안았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련이어 평양에서는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열리였다.

재일동포들과 중국, 이전 쏘련, 라틴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랄리아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3 000여명의 해외동포들과 7 000여명의 공화국인민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 채종만은 주석단성원으로 참가하였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우리 나라의 통일은 북과 남이 확약하고 내외에 공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조국통일을 당면최대의 임무로 제기하고있는 조국의 현실은 민족분렬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칠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보고자가 다음해의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로 조국통일을 위한 뜻깊은 범민족대회를 소집할것을 제기하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찬동의 뜻을 표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도이췰란드, 중국 등 세계 여러곳에서 온 해외동포들이 토론한 다음 채종만도 연단으로 나갔다.

그는 평양에서 조국동포들과 함께 전례없이 많은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촉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와 현실적인 대책을 토론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통일운동사에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사변이 아닐수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채종만은 현시기 조국통일을 위하여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되여야 할 문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결연히 뛰여넘는것이며 7천만겨레모두가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고 모든 문제를 통일의 대차원에서 풀어나가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쏘련(당시)에 사는 동포들의 이름으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감옥도 죽음도 두려움없이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 다음 분렬주의자들의 반공대결정책, 분렬주의정책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우리 해외동포들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땅에서 살든 통일애국의 리념밑에 조국동포들과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고 범민족대회소집제안에 열렬한 지지찬동을 표시하였다.

채종만은 싸할린으로 돌아온 후 동포대중속에 조국통일촉진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해설선전하면서 그들모두가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합하여 통일애국위업에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 다음해인 조국해방 45돐을 맞는 1990년 8월 공화국에서는 제1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되였다.

채종만은 북과 남, 해외에서 달려온 1 000여명의 대표들과 함께 백두산에서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출정식을 가지고 판문점으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였다. 그는 8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범민족대회에서 민족분렬의 장본인들인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의 본질을 폭로단죄하면서 민족성원들모두가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민족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있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은정어린 보살피심속에 마련된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는 4월남북련석회의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그러던 8월 18일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채종만을 비롯한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대회의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이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려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관계없이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하며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개별적계급이나 계층의 요구와 리익보다는 응당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우에 놓아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강령적교시를 직접 받아안은 채종만은 한몸을 그대로 깡그리 바쳐 통일성업에 이바지할 마음속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 나날 그는 쑥섬혁명사적지를 참관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48년 5월 2일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조선정객들과 같이 이 쑥섬에 오시여

력사적인 협의회를 하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높이 세운 통일전선탑과 원두막, 나루배 등 사적물들을 채종만은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그는 감상록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 바로 1948년 4월남북련석회의에 뿌리를 두고있음을 가슴뜨겁게 느꼈다. 바로 이 남북련석회의정신이 오늘에 와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조국을 통일해야 할 시원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이 쑥섬혁명사적지를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채종만이 싸할린으로 돌아가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던 1993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여 우리 겨레에게 또 하나의 불멸의 통일대강, 통일헌장을 마련해주시였다.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이 새로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던 시기에 발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가 밝혀져있으며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구체적방도들이 명백하게 제시되여있다.

채종만은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받아안고 그를 지지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적극 지지하는 서명운동에는 재로조선공민들을 포함하여 약 2만명의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채종만은 지역별연구토론회와 담화, 방송연단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하는 운동도 벌려나갔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원문을 수많이 복사하여 공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학습조의 강사들을 준비시켜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해설하는 사업도 조직하였다. 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로씨야의 지방출판물들에도 대대적으로 싣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을 맞으며 공화국의 정당, 단체 련합회의에서 조국해방 50돐을 공동으로 경축하며 대민족회의를 열고 조국통일방도를 협의확정할것을 호소한 호소문이 발표되자 채종만은 그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해 8.15를 맞으며 싸할린주에서는 공민,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원동지역 통일축제와 통일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제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광범히 벌려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겨레에게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이후 채종만은 용기백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갔다.

그는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명의의 담화와 협회명의의 성명과 호소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고 그 리행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한편 미국의 격화되는 반공화국책동과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 매국배족행위를 저지규탄하는 련대의 목소리도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는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련합회의를 가지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제안을 담은 편지와 호소문을 남조선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낼 때마다 그를 지지찬동하는 담화도 발표하였다.

담화에서는 공화국이 제시한 방안들을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공명정대한 제안으로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남조선의 당국자, 각 정당, 단체들이 자기앞에 부과된 숭고한 민족적임무를 자각하고 주저없이 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채종만은 또한 원동고통련을 비롯한 여러 조직들, 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분렬주의세력의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집회와 성명, 담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여 반통일적대세력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그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치아래 도이췰란드와 일본에서 진행된 범민련회의들에도 참가하여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그러던 1990년대중엽 남조선당국은 일본반동들과 짝자꿍이를 하면서 그 무슨 《싸할린동포이주문제》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남조선에 고향을 둔 싸할린동포들을 데려다가 집도 마련해주고 고향방문도 시켜준다고 하면서 마치 저들이 동포들을 생각이나 해주는것처럼 생색을 내였다. 이 동포이주놀음은 싸할린주동포들에게 남조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키고 이곳 동포들을 끌어당겨 그들을 정치적리용물로 하여 이 지역에 반공화국지반을 닦아보려는데 음흉한 목적을 두고있었다.

여기에 일본반동들까지 편승하여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며 그 무슨 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싸할린으로 강제로 끌고간 조선사람들에게 지은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인도주의》라는 간판아래 몇푼의 려비나 지불하는것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댄것이였다.

채종만은 싸할린지역에 조성된 정세와 그 후과를 예견해보면서 남조선보수패당과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주동적으로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로 동포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공민동포들속에 싸할린주동포문제는 단순히 일부 동포들을 남조선에 이주시키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반동들이 전체 해외동포들과 이전 쏘련지역의 수십만동포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의 피해를 물질적으로 배상해야 할 정치적성격의 문제이며 돈 몇푼을 가지고 자기의 죄과와 배상을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과 그들을 등에 업고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행위를 발가놓는 정치적문제라는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여 남조선과 일본반동들의 음모를 제때에 깨달은 원동지역의 공민조직과 동포들은 성명, 담화를 련이어 발표하여 그들의 음모를 낱낱이 발가놓았으며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도 강력하게 벌렸다.

채종만은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의 명의로 된 담화도 발표하였다.

담화에서 그는 지금 로씨야 싸할린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일본정부와 공모결탁하여 그 무슨 《인도주의》와 선심의 간판을 들고 동포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려는 교활한 놀음을 집요하게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싸할린에 사는 조선동포의 한사람으로서 일본정부와 공모결탁하여 몇푼의 돈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려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매국배족적행위를 치솟는 격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가 들씌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치떨리는 만행과 저지른 모든 죄과에 대하여 두고두고 잊지 않고 철저히 계산할것이며 일본에 빌붙어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는 이역땅에서 이주해가는 우리 동포들의 생활을 돌보아줄수 있는 아무런 담보도 없다.

이미 남조선에 다녀온 싸할린의 많은 동포들이 이것을 확언하고있다.

로씨야 싸할린주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공민들은 이전 쏘련땅에서 살고있는 모든 조선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남조선으로 우리 동포들을 끌어가려는 남조선당국자들과 그에 공모하고있는 일본당국의 비렬하고 음흉한 기도를 강력히 반대배격할것이며 우리의 민족적존엄과 리익을 고수하며 민족안에 불화와 대결을 조장시키려는 그들의 영구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다. 만일 남조선과 일본당국자들이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싸할린동포들을 남조선에 끌어가려고 계속 음모책동한다면 더욱 강력한 전동포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그의 이 담화를 지지하여 국제고통련과 로씨야고통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도 성명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로씨야로병위원회소속 동포들은 로씨야련방주재 일본대사관과 일본법무성에 각각 항의편지를 보냈다.

싸할린동포들을 남조선에 끌어가려는 남조선보수패당과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전세계의 모든 조선

동포들속에서 세차게 울려나왔다.

결국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여지없이 파탄되게 되였고 그들의 사환군들은 황황히 도망치고말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히워 남조선으로 끌려갔던 동포들도 남조선사회의 도덕적부패상을 깨닫고 그에 환멸을 느끼면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채종만은 이처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의 기치아래 모든 동포들을 진정한 조국의 품, 따사로운 태양의 품에 묶어세워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분렬주의자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데 모든 정열을 다 기울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애국위업에 한몸 다 바치고있는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과 선물을 안겨주시였고 1998년에는 또다시 조국통일상수상자의 값높은 영예도 안겨주시였다.

재로조선공민조직이 무어진 후 처음으로 진행된 조국통일상수여모임에서 채종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민족과 조국을 위한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인생의 좌우명

자기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민족의 파편》이라고 말하군 한다.

오늘도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내전과 질병, 기아를 피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정처없는 피난길에 오르고있다.

언제인가는 낡아빠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던 도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수리아피난민어린이의 시체가 지중해기슭에서 발견되여 온 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은적도 있었다.

《민족의 파편》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피난민들이 이처럼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줄 참다운 지도자, 진정한 조국이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의 해외동포들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온 세상에 존엄높은 어머니조국이 있는것으로 하여 가슴을 쭉 펴고 살고있다.

채종만의 가슴속에도 일찍부터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이 자리잡고있었다.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통치시기 싸할린으로

끌고간 조선사람들을 마소처럼 부리며 탄광과 도로, 철도, 비행장건설장으로 내몰았다. 지어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채종만은 그 모진 수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갔다. 그가 그런 신념을 간직하게 된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밀림과 만주광야에서 일제를 때려부시고계신다는 소식을 접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에 의해 조국이 반드시 해방되고 우리 민족이 겪는 불행과 고통도 끝나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일제의 학정과 고역을 이겨나갔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소식이 전해지던 날 그는 동료들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가에 나가 조국의 하늘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를 터치였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구세주로 높이 모시고 살아나갈 신념을 마음속기둥으로 든든히 세웠다. 하기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채종만은 백두산절세위인들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한생을 살아올수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것은 1973년 9월이였다. 그때 공화국창건 25돐경축 조선공민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한 그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뵈옵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순간 그는 너무도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겨워 인사의 말씀도 변변히 올리지 못한채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해외에서 수고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다.

그후에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때와 1994년 4월에 조국에 온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뜻깊은 연회에까지 참석시켜주시였다.

채종만은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통일애국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가 한생토록 변함없이 지켜온 인생의 좌우명은 해외동포운동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였다. 그는 공민학습조책임자,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부회장, 회장으로 수십년간 사업하면서 언제 한번 이 좌우명에서 탈선한적이 없었다.

그는 공민들과 동포들을 통일애국운동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구자가 되자면 신념의 기둥, 좌우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밤을 새워가며 탐독하군 하였다. 이국땅에서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예를 안고 애국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려는 그의 신념은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불에 타도 곧음을 잃지 않는 참대처럼, 부서져도 흰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굳세고 변함없었다.

어느해인가 일부 불순분자들이 채종만의 통일애국활동을 저지시켜보려고 터무니없는 죄명을 들씌워 정치적압력과 박해를 가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의 집가산을 털어낸적이 있었다.

그때 그의 안해 김순정녀성은 너무도 억이 막혀 텅 빈 집에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있었다. 채종만은 그때에도 《여보! 사람이 집이 비여 못살겠소? 마음이 비여 못살지. 우리 애국의 마음을 더 굳건히 간직하고 삽시다.》라고 말하며 분연히 일떠섰다.

불순분자들이 이전 쏘련의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고 우리 조국이 련이은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시련을 겪고있는것을 기화로 조선도 멀지 않아 무너질것이라고 허튼소리를 내돌릴 때에도 그는 동포들과 주변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조국은 백두산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위대한 전통과 위업을 가지고있어 그 뿌리가 든든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주체의 조선으로 지구우에 영원히 끄떡없이 솟아 빛날것이다.》

그는 2001년 력사적인 로씨야방문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TV에서 뵈오며 저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걸출한 태양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시다, 당신들도 저분의 위대한 뜻을 따를 때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다고 동포들에게 절절히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그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더욱 뜨겁게 발휘되였다. 생의 말년에 중병으로 누워있는 속에서도 그는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뜻깊은 명절을 맞는데 그냥 있을수 없다며 경축보고회 장소와 인원수송을 비롯한 준비사업에 대해 수시로 알아보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채종만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동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뿐만아니라 그는 조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동포들과 함께 조국의 부강발전에 보태달라고 하면서 수많은 지성품도 보내며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나갔다.

언제나 멀리에 있는 해외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채종만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거듭거듭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생일 일흔돐을 맞는 1998년 11월에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선물을 받아안은 그는 심장의 고동을 멈출 때까지 위대한 장군님을 끝까지 받들어나가겠다고 맹세다지며 감격의 눈물

을 흘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은 그의 살림집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생의 말년에 그가 가족들과 생활한 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집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새집들이를 하던 날 채종만은 은정어린 가구들을 오래도록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였다.

친부모도 주지 못한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받아안고 그와 안해는 2001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편지에서 그들은 고국을 위해 아무 한 일 없는 자기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커다란 신임을 받아안고보니 격동과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추호의 변심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많은 해외동포들이 《평양집》이라고 불리우는 싸할린주 노웨알렉산드롭쓰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와 축하해줄 때마다 채종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로씨야의 문호 벨린스끼는 사랑은 삶의 시이며 태양이라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태양의 빛발이다. 그 빛을 받아안고 살기에 나에게도 이런 영광이 차례진것이 아니겠는가.》

몸은 비록 이역에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 어머니조국의

품에 삶의 닻을 내리였기에 채종만은 한생을 통일애국성업에 깡그리 바치였고 죽어서도 영광의 상상봉우에 오를수 있었다.

2002년 5월 2일 그가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죽어서도 조국땅에 묻히고싶어하던 그의 소원대로 유해를 조국에 안장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국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생전의 모습이 돌사진으로 새겨져있고 비문에는 《조국통일상수상자》라는 글발이 빛나고 있다.

채종만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신 어버이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그의 안해 김순정녀성은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감사편지를 올리였다.

그는 죽어서도 장군님품에 안기고싶어하던 남편의 소원을 풀고보니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너무 고마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싶어 펜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사람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도록 삶을 빛내이는것은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내세워줄뿐 아니라 력사의 갈피에 기록될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위인의 품속에서만 가능한것입니다.

바로 저의 남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삶을 빛내일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도 때가 늦고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한 일이 너무도 적은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민족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저의 남편에게 불사약이였고 애국의 생명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상 장군님의 품에 안기고싶어하던 남편의 소원을 헤아리시여 세상사람들이 태여나 누리고싶어도 다 누릴수 없는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버이가 위대하면 그 자식들도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러르는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신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해외에 살아도 남들 보란듯이 살아갑니다.

장군님 계시여 조국통일의 그날은 멀지 않았고 민족의 앞날은 창창합니다.

앞으로 저는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따르며 조국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바쳐온 남편처럼 애국애족의 길에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로씨야에 살고있는 우리 조선공민들이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조국을 위한 길에 한사람이라도 더 나서도록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습니다.

…》

한 평범한 해외공민에 불과하던 채종만을 로씨야의 모든 동포들이 다 알고 조국이 아는 해외동포일군으로 키워주시고 영생의 삶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다.

나라없는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해주시고 주체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삶을 빛내여주신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고저 통일애국위업의 길로 한생을 줄달음쳐온 채종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민족사의 한페지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는 그의 이름을 후대들은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조국은 잊지 않을것이다.

오익제 편

탈선, 방황 ······ 197

허울을 불사르다 ······ 207

민족의 한울님을 우러러 ······ 216

신인간으로 태여나다 ······ 228

경력

- 1929년 4월 평안남도 회창군에서 출생.
- 1948년 성천군 천도교 종리원 교화부장.
- 1950년 12월 남조선군징집, 국방부 문관.
- 1957년 천도교 중앙총부전서 겸 천도교기관지 《신인간》 주필.
- 1989년 천도교 교령.
- 1997년 8월 공화국영주.
- 1998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 2003년 8월, 200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 2012년 9월 사망.
- 1999년 8월 조국통일상 수상.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첫걸음을 내디딜 때 생긴 한치의 방향상편차가 인간의 운명을 뜻하지 않는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때문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였던 오익제의 경우가 그러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회창군의 지주집서자로 태여난 그는 해방후 유산계급의 한 성원이였다는 자괴지심때문에 민주의 새 사회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천도교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했다.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그는 본의아니게 남쪽땅으로 흘러나가게 되였으며 남조선군에 끌려가 《국군》살이를 강요당하였다. 전후에는 천도교에 몸을 담그고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을 거쳐 교령으로, 농협 경기도지부 부지부장, 《국민회의》 창당발기인, 당고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년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가슴속에서는 사대와 매국이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를, 분렬이 통일을 매도하는 남조선사회에 대한 불만과 진정한 자신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싹트고 자랐다.

정신적공허함, 넋은 없고 허울만 있는 자기자신에 대한

허무감으로 날과 달을 보내던 그는 진정한 애국과 정의가 살아숨쉬는 공화국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되였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천도교의 리념인 신인간을 두고 이렇게 썼다.

《천도교에서 주장하는 신인간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떠난 도사와는 개념이 다른것으로서 단순히 <새로운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다. 겨레와 나라를 위한 길에서 넋과 일신을 깡그리 바치려는 깨끗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여난 인간이 바로 신인간이다.》

오익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을 자자구구 탐문하는 과정에, 문익환목사의 평양행을 목격하면서 진정한 신인간이 되려면 공화국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였다.

그의 공화국영주는 단순한 고향방문이나 안착이 아니였다.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진정한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나기 위하여 단행한 애국의 장거였다.

진정한 조국의 품, 절세위인의 품에 다시 안겨 그가 생활한 기간은 인생말년의 15년밖에 되지 않는다.

80살이 넘은 그의 인생에서 15년은 그렇게 길다고 말할수 없다.

하지만 그 15년동안에 그는 한생토록 의탁해온 천도교에서 말하는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났으며 통일애국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였다.

탈선의 길로 정처없이 달려온 인생궤도를 수정하여 진정한 애국의 길, 정의의 길우에서 생을 빛내인 오익제.

그의 한생은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라는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아로새겨져있다.

탈선, 방황

1929년 4월 23일 평안남도 회창군 대곡리의 한 기와집에서 애기의 고고성이 울리였다. 그렇게도 소원하던 아들을 보았다고 기뻐하는 아기의 아버지와는 달리 산모의 기색은 그리 밝지 못하였다.

후실의 몸으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애가 장차 서자라는 운명의 희롱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불안감때문이였다.

그 아기가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오익제였다.

그가 태여난 가문은 큰 기와집에서 수십명의 일가가 함께 사는 지주가문이였다.

그의 조부는 과수원을 비롯하여 3만평나마 되는 전답을 소유한 지주였으며 일제시기 면장도 하였다. 또 아버지는 순사였다.

오익제가 두돌 잡히던 해에 순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마련을 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하여 그는 부친의 얼굴도 목소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하였다.

아버지가 옥사한 후 그는 서자가 당하는 설음을 많이 겪었다. 가족들이 다 모여앉아 식사를 할 때 삼촌어머니는 다른 아이들의 밥그릇에는 다 닭알을 놓아주면서 그에게만은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날 어머니한테 자기에게도 닭알을 달라고 졸라댔다. 순간 어머니의 손이 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손찌검을 당하고 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다.

결국 오익제를 오씨집안의 장손으로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네명의 삼촌들때문에 그들모자는 기와집에서 살지 못하고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에서 살게 되였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오익제의 가슴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지주였고 아버지가 순사였다는 압박감과 죄책감이 자리잡게 되였고 그것이 후날 그의 인생길의 탈선에서 적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되였다.

그가 인생말년에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의 조부와 아버지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분투한 애국자들이였다.

오익제가 공화국영주후 봉화혁명사적지를 참관할 때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조선국민회활동과 관련한 해설강의를 하던 강사는 그의 조부인 오상준이 민립대학설립운동이 한창일 때 거기에 자금 50원을 희사한 일이 있으며 그와 관련한 사실이 《동아일보》 1923년 8월 23일부에 실리였다고 말하여 그를 깜짝 놀래웠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0년대에 있은 애국교육문화운동의 하나였다.

일제가 식민지교육의 일환으로 1920년대초에 《조선교육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총독부관할하의 제국대학설립에 나서자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이에 대응하여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의 발기인의 수는 무려 1 700여명에 달하였으며 그들가운데는 《을사5조약》의 날조를 견결히 반대한 의정부 참정대신이였던 한규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의 저명인사들이 많았다.

운동의 발기인들은 일제식민지교육에 항거하여 겨레의 힘으로 설립할 민립대학에 법과, 경제과, 문과, 리과, 공과, 의과, 농과 등의 학과들을 내올것을 계획하였다. 민립대학설립에 필요한 기금 1 000만원을 마련할것을 목표로 내세운 그들은 성인 1인당 1원씩 기부할것을 호소하였다.

물론 민립대학설립운동은 간악한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좌절되였다.

그때 오익제의 조부는 혼자서 50원을 희사하였다. 그때 돈 50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였다.

조부의 이러한 애국적소행을 그의 장손이라고 하는 오익제도 모르고있었는데 공화국은 알고있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에서는 그의 조부와 부친이 일찌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의 소관하에 군자금모집에 헌신한 력사적사실까지 밝혀주었다.

하여 2004년 2월에 오익제의 부친에게 반일애국렬사증이 수여되였다.

하지만 오익제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채 서자의 설음을 겪으며 성장하였다.

일제가 패망하고 나라가 해방된 이후 그의 고향에서도 민주의 새 사회건설이 힘차게 벌어졌다.

오익제도 해방의 기쁨을 안고 건국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는 해방전에는 학우들과 함께 마을에서 소년저축회라는 위장된 간판을 단 반일학생조직을 무은 일이 있었다. 소년저축회는 반일활동자금확보를 목표로 화전을 일구고 거기에 강냉이를 심어가꿔 그것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자기딴의 독립운동을 벌리였다. 물론 그후 인차 조국이 해방됨으로써 소년저축회의 활동은 막을 내리였지만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익제는 그때 소년저축회에 들었던 학우들과 함께 공청에 가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면공청의 주요직책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가 유산계급출신이라는것을 구실로 삼아 그의 공청가입을 가로막아나섰다.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는 그후 조직된 민청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소학교교원을 얼마간 하다가 평양으로 나가 조선천도교청우당에서 조직한 강습에 참가하였다.

경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후 오익제는 천도교에 입교하여 성천군종리원 교화부장으로 임명되였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출신성분과 일부 편협한 사람들의 처사로 하여 공화국정권의 시책에 대한 회의감 비슷한것이 자리잡고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는 시대의 락오자가 되여 벅찬 현실속에 뛰여들지 못하고 동면하게 되였던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후 그는 한동안 인민군대에 탄원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과 용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 까닭은 순전히 그의 세계관적미숙에서 오는 자승자박의 결과였다. 가정적환경의 울타리에 갇혀살다보니 탄원하러 몇번 갔다가도 과연 나 같은 인간에게도 인민정권이 총을 줄수 있을가 하고 스스로 의문시하면서 돌아섰던것이였다.

하지만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는 용기를 내여 인민군대에 탄원하였다. 조국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천도교와 그리스도교,

불교계의 청년들까지 용약 조국보위성전에 뛰여드는것을 보면서 그의 가슴속에 간직하고있던 애국심이 자승자박의 정신적 한계점을 이겨냈던것이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 엉뚱한 곳에서 사소한 실수로 하여 삐뚤어지기도 한다.

대렬편성이 끝난 후 오익제는 감기치료를 받으려고 외출했다가 지정된 시간이 좀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랴. 변화되는 전선정세때문에 대오가 몇시간전에 출발한것이다.

그는 무작정 평양을 향해 떠난 대오를 따라잡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사흘낮 사흘밤을 쉬지 않다싶이 하며 속보로 걷고 뛰였으나 대오를 찾을 길이 없었다. 대오의 향방이 묘연하자 그는 평양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친척도 두달전에 장사하러 떠난 후 소식이 없었다.

아, 나는 정녕 《탈주병》이 되였단 말인가.

이런 모대김을 안고 평양시내를 전전하던 그는 서울에 있는 이복큰누이와 매부에게 의탁해볼 심산으로 서울로 나가는 피난민대렬에 끼여들었다.

오익제의 인생은 이렇게 되여 궤도에서 탈선하였다.

어찌 보면 인생길우의 작은 편차라고 생각했던 서울행이 얼마나 큰 후과를 빚어내게 될지는 아직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보름가까이 걸어서 서울에 와보니 정작 매부와 누이는 수년전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찾을수 없었다.

전쟁의 혼란속에서 어디 가서 그들을 찾을수 있으랴. 엄동설한에 눈설고 낯설은 서울에서 당장 몸을 붙이고 입을 건사하는것이 큰 문제로 나섰다.

당시 서울바닥은 문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였다. 원자탄공갈에 속아넘어간 피난민대렬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속에 서울바닥을 헤매던 그는 어느날 고향에서 순사를 하다가 남쪽으로 도망쳐온 한사람을 만나게 되였다.

그자는 일제때 《나까무라》라고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놈의 앞잡이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의 저주를 받던자였다. 그런자가 모자에 금테줄을 두른 경관이 되여 그앞에 나타났던것이다.

《익제, 너 피난왔니? 그런 거렁뱅이행색 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 난 이젠 총경이다. 너에게 순경자리 하나쯤은 넉넉히 줄수 있다. 가자.》

그자의 수작질에 오익제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마치도 그 말은 《익제, 일본순사의 아들이니 여기는 네가 출세하기에 안성맞춤한 곳이다.》라는것과 같은 의미였다.

한때 일본순사였던 사람의 아들로서 해방후 고향땅에서 품게 되였던 감정이 죄책감이였다면 남쪽땅에 가서 품게 되였던 감정은 수치감이였다.

그것은 응당 청산되였어야 할 친일파족속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제노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활개치는 사회에서 느낀 그의 솔직한 심정이였던것이다.

리태원에 있는 어느 고마운 로인의 집에 림시로 정한 거처로 돌아오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이대로는 더는 못살겠다. 인민군대가 지금 재진격하고있으니 서울이 해방되면 인민군대에 입대해 다시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와 안해, 딸과 함께 살자.

때는 1950년 12월의 어느날 밤이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치락거리던 그는 이제 날이 새면 무서운 불행이 들이닥쳐 그의 운명을 전혀 예기치 못한 다른 기슭에로 떠밀어가리라는데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고있었다.

다음날 거리에 나갔던 그는 다른 떠돌이청년들과 함께 강제로 끌려가 남조선《국군》 이등병의 군복을 입게 되였다.

인생길우에서의 자그마한 편차가 하루아침에 걷잡을수 없이 커진것이다.

그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화물차에 짐짝처럼 실려 도착한것은 강원도 원주지방의 어느 학교운동장이였다. 남조선군 3군단에 배속되여 이 운동장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국군》 살이는 자그만치 3년반이나 걸렸다.

원주의 학교운동장에서 가혹한 훈련과 기합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날 《문건작성경험자》를 뽑으러 온 장교에게 합격되여 총대

신 펜을 들고 륙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문관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는 국방부에서 문관생활을 할 때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커녕 상전앞에서 말 한마디조차 뻥끗할 권리마저 상실한 식민지고용군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게 되였다.

판문점에서 정전담판이 시작된지 얼마후인 1951년 초겨울이였다.

당시 판문점담판장의 북측 수석대표는 조선인민군 장령이였지만 《유엔군》측 수석대표는 미군장성이였다. 《유엔군》측에 옵써버자격으로 남조선군장성 한명이 포함되여있었지만 그에 대한 지명권마저 미국측이 가지고있었다.

그때 남조선군에 리형근이라는 장성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도꾜의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유엔군》방송을 통해 자기가 정전담판 《유엔군》측 남조선군대표로 임명되였다는 보도에 접했다.

리형근은 국방부나 륙군본부로부터 임명에 관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 《유엔군》방송의 보도를 듣자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그길로 부산으로 달려간 그는 리승만에게 찾아가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리승만의 충복이였던 그는 정전담판자체를 결사반대하던 리승만이 자기를 대표로 내세운 의도가 담판을 파탄시키라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였던것이다.

그런데 정작 리승만을 만나니 그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다가 리승만은 리형근에게 이 사실을 밖에 나가서 발설말게, 《대통령》의 체면을 봐서 내게서 임명받은걸로 말하게라고 당부까지 했다.

이 사실이 국방부내에 파다하게 알려지자 오익제도 알게 되였다.

이것이 과연 약소민족의 슬픔이냐. 그는 이렇게 통탄하면서 리승만《정권》과 남조선군에 대한 환멸을 금치 못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군살이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공부를 하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그는 부산에 있는 《한국대학》 정경학과의 야간반에 들어갔다.

정전직후인 1954년에 당국에 의해 이 대학은 페쇄당하게 되였다.

리윤추구를 노린 모리간상배들이 다른 대학을 세울 밑천으로 《한국대학》의 페쇄를 꾀하면서 당국과 결탁해나섰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닥쳤다.

오익제는 대학페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되여 페쇄반대투쟁의 앞장에 섰다.

이로 해서 그는 불행중다행으로 문관직에서 파직당하고 국방부에서 쫓겨나게 되였다.

거세찬 풍랑을 만난 난파선처럼 정처없이 떠도는 그의 인생은 탈선과 방황속에서 향방없이 흘러가고있었다.

허울을 불사르다

국방부에서 쫓겨난 후 오익제의 심정은 좁은 장속에 갇혀있던 새가 창공으로 날아오른것과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였다. 그런데 당장 쓰고살 집이 없고 입에 풀칠할 방도가 없는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룡산구 리태원동에 있던 이북피난민촌의 한 판자집에 자리를 잡고 신문배달부노릇을 시작하였다.

이른새벽부터 신문을 배달하기 위해 정신없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뛰여다니던 그는 몇달만에 어느 한 집에서 사나운 개에 물리우게 되였고 그때문에 신문배달부노릇도 더 할수 없게 되였다.

그래서 그가 두번째로 선택한 직업이 구두닦기였다.

신문배달과 마찬가지로 구두닦기도 10대의 나어린 소년들이 주로 했다. 20대중반의 멀쩡한 청년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구두닦기노릇을 하자니 창피하기 그지없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그가 피난민촌사람들의 방조로 구두닦기도구들을 메고 처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닦은 군화의 임자는 미군헌병이였다. 그런데 껌을 질근질근 씹으며 군화를 닦는 오익제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던 그자는 일이 끝나자 값을 치르기는커녕 씹고있던

껌을 그에게 내뱉고는 배포유하게 제 갈데로 가는것이였다.

순간 화가 치밀어오른 오익제는 《야! 이건 뭐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미군헌병은 그쪽으로 돌아서 혀바닥을 내밀어보이며 야료를 하고는 그냥 가버렸다.

그후에도 미군으로부터 몇번이나 그런 모욕을 받은 오익제는 영어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 《미군화 닦는 약 없음》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사람은 설명을 자초지종 듣고서는 마분지에다 큼직하게 영어로 《No, shoe polish for US army boots!》라고 써주었다.

이튿날부터 그는 그 마분지를 구두닦기탁에다 붙이고 일을 했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지나가던 미군병사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반미분자로 형사에게 붙들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구두닦기노릇을 하면서도 오익제는 남조선사회의 모순에 대한 반항심을 안고 밤마다 신문과 책을 펴놓고 제딴의 해결방도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그 나날은 그의 학업열의가 성취되는 과정이기도 했고 사회현실에 대한 랭정한 비판과 현실감각을 익혀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여 구두닦기노릇을 시작한 때로부터 2년만에 그는 사회문제에 대한 제나름의 견해를 피력한 《천직천록설》이라는 글을 쓰게 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자기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력했다.

《로동은 한울님이 사람에게 준 권리이며 천생만민의 특수 기직이다. 원래 한울님이 사람낼 때 록없이는 아니 내는 법이니 결국은 로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도 로동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한울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에 속한것이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사회적공간이 있어야 사람은 거기에 지탱하여 로동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는 사람에게 우선 직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람은 우선 직업이 있고보아야 로동의 권리와 분배의 권리를 론할수 있다.

초보적으로 그 무엇도 론할수 없는데서 어찌 권리의 행사를 상상할수 있으리요. 직업의 보장이 없는데 이 땅의 최대의 모순이 있느리라. 헌법은 직업보장에 대한 명기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실천불가능의 법은 무용지물이며 휴지장만도 못한것이다.》

그는 이 글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전전하다가 《조선일보》의 편집장을 우연히 알게 되여 그 글을 신문에 싣게 되였다.

1956년 5월 이틀간에 걸쳐 신문에 련재된 《천직천록설》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어야 하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천도교의 교리에 맞추어 전개한것으로 하여 오익제는 천도교계의 시야에 들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두닦기를 그만두고 천도교계에서 일하게 되였으며 이듬해에는 천도교 중앙총부전서(교령비서) 겸 천도교기관지 《신인간》의 주필로 발탁되였다.

한편으로 그는 농협에 적을 붙이고 경기도지부 부지부장을 하기도 하였으며 천도교에서도 계속 활동하면서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도 력임하고 마침내 1989년에는 천도교의 최고위직인 교령으로 천거되였다.

오익제는 정계에도 진출하여 《5공》, 《6공》시기에는 《대통령》자문기관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그후에는 《국민의 정부》를 낳은 《국민회의》의 창당발기인중의 한사람으로, 이 당의 고문으로도 활동하였다.

그사이에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오고 가정도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나 번드르르하였지 하루하루가 자기모멸과 번뇌의 련속이였다.

사회의 최하층에서 구두닦기를 하다가 립신양명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오익제가 다시한번 사회적모순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 돌이켜보게 된것은 1970년 평화시장의 피복로동자였던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이 일어난 때였다.

그때 서울의 청계천에는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등 중소규모의 피복공장들이 밀집되여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로동자들이 종사하고있었다.

로동자들의 로동조건, 생활조건은 말이 아니였다. 피복공장의 특성으로부터 수십, 수백대의 피복설비들이 립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찬 작업장들은 높이가 불과 1.6m밖에 되지 않아 허리를 펴서 설수조차 없었다. 공기조화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여름에는 한증탕같이 뜨겁고 겨울에는 입김을 불어가며 일해야 했다. 또 각종 옷감에서 나온 먼지가 가득차다보니 폐결핵, 신경성위장염을 앓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환경속에서 로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씩 일요일의 휴식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초보적인 생활도 누릴수 없는 저임금을 받았다.

하여 로동자들은 로동시간단축, 임금인상, 건강진단실시, 로동조합조직인정 등 8개 항목의 요구조건을 회사와 로동청에 들이대고 투쟁을 벌리였다.

회사와 로동청이 이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전태일을 비롯한 평화시장 로동자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로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등의 구호를 들고 롱성과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해나서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화형식을 단행하고 자기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다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로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라고 웨치다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전태일의 장렬한 최후는 남조선로동자들과 인민들을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오익제는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과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사회의 최하층이였던 자신이 안락한 생활에 물젖어있을 때 수백, 수천만의 로동자, 빈민들은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있다는것이 새삼스레 안겨왔던것이다.

그는 이른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로동자들의 권익보장에 대한 조항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같은 이런 법은 없는것보다 못하였다. 로동자대중의 생존권문제, 권익문제가 로동쟁의때마다 초미의 문제로 떠올랐지만 권력은 항상 기업주의 편에 섰지 언제 한번 로동자의 편에 선적이 없었다. 그러니 전태일과 같이 분신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것이였다.

이날 그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그가 《천직천록설》이라는 글을 발표한 때로부터 14년이 넘도록 변한것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변한것이란 오로지 피난민촌의 구두닦기로부터 《신사》로 탈을 바꿔쓴 오익제라는 인간의 겉모습뿐이였다.

아! 《천직천록설》의 절규가 가져다준 변화란 이 내 모습하나뿐이런가. 이것은 글의 필자인 나에 대한 사회의 기만인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나의 기만이며 변호인가.

여전히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찬 사회가 세상에 대고 《보거라, 인생들아. 옛 구두닦이도 저렇게 호사로운 유지로 둔갑하였거늘》 하고 웨쳐댈 때 본의든 본의아니든 나의 허울은 썩은 사회를 변호하고 미화하는 눅거리장식물로 되였구나.

그는 그때 천도교기관지 《신인간》의 주필로서, 중앙총부종무원장으로 교인들앞에서 천도교가 주장하는 신인간이 되라고 글도 많이 쓰고 력설도 하였다. 하지만 진짜 신인간의 모습이 어떤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줄수 없었다.

한울님의 뜻에 맞는 신인간이 허울만 남은 자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것만은 명백하였다.

오익제가 정신적공허함과 허무감과 싸우고있던 어느날 그의 사무실로 전쟁시기 만났던 고향의 일본순사 《나까무라》가 찾아왔다.

늙었지만 그새 더 비대해진 《나까무라》는 사무실문지방을 넘어서기가 바쁘게 량팔을 쩍 벌리며 《오! 익제군, 이게 얼마만인가. 고진감래라더니 과시 그 말이 옳으이. 허허허.》 하면서 온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자는 자리에 앉기 바쁘게 《이봐, 익제군. 피차 성공을 한 우린 운명공동체야. 우린 이남땅에서 큰소리치며 살수 있는 새 사람일세. 그러니만큼 우린…》

오익제는 《나까무라》가 《우리》라는 대명사로 자신을 저들과 같은 운명공동체에 포함시키자 기가 차서 말을 할수가 없었다.

이자가 지껄이는 새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친일파나부랭이들이 경관이 되고 장교가 되고 장관이 되고 또 갑부가 되는것이 우리 천도교가 말하는 신인간의 출생이라도 된단 말인가. 또 운명공동체라니 나도 이 《신인간》들과 한족속이란 말인가.

수치감을 느낀 오익제는 《나까무라》가 부탁한 불법자금문제를 단칼에 거절하고 그를 내보냈지만 마음은 영 개운치 않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조선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모순과 대립이 날로 첨예화돼갔다. 이에 항거하여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도 날로 장성강화되였다.

1979년 8월 서울의 YH무역회사에서 일하던 근 200명의 녀성로동자들은 로동조건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롱성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당시 야당이였던 신민당사의 4층강당에 올라가 《배고파 못살겠다. 먹을것을 달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틀동안 투쟁하였다.

《유신》독재자의 시위진압지시에 따라 천수백여명의 경찰이 신민당사에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녀성로동자들에게 곤봉, 벽돌, 쇠막대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댔고 순식간에 녀성로동자들은 물론 신민당소속 《국회》의원과 취재기자 등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와중에 끝내 21살 난 김경숙

로동자가 건물밖으로 떨어져 사망한 일명 YH무역회사사건이 발생한것이다.

당시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을 하고있던 오익제는 TV를 통해 사건현장을 지켜보았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광경앞에서 그는 20여년전 자신이 쓴 《천직천록설》의 구절구절이 되새겨져 낯을 들수 없었다.

일할수 있는 권리, 공정한 분배를 받을수 있는 권리,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쟁취할수 있는가.

울분을 참지 못한 그는 20여년동안 간직해온 《천직천록설》이 실린 《조선일보》를 꺼내여 거기에 불을 붙이였다.

부인이 기겁을 하며 《여보, 환장하셨어요. 이러다 집을 불태우겠어요.》 하고 달려들었다.

오익제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 아픔이 전태일이 온몸을 태우는 불길속에서 느꼈던 아픔이나 김경숙이 경찰의 곤봉에 맞아 4층높이에서 추락할 때의 고통에는 비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이야 왜 불사르겠소. 실성한건 아니니 념려마오. 나는 내 허울을 불사를뿐이요. 이제 허울이 불탄 후에는 진짜 익제가 신인간으로 태여날테니 좋은 일로 될것이요.》

민족의 한울님을 우러러

오익제는 천도교기관지 《신인간》의 주필로 활동하던 시기에 최덕신을 알게 되였다. 그는 해방후 오랜 기간 남조선군부와 정계의 요직에서 일하다가 《유신》독재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천도교계에 몸을 담그었다.

1970년에 천도교 중앙총부 교령으로 천거된 그는 《신인간》창간 50돐을 맞으며 교령의 명의로 《신인간》 주필인 오익제를 표창하였으며 여러가지로 그를 내세워주기도 하였다.

최덕신은 1977년 1월부터 오욕된 과거와 결별하고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는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회》 상임고문, 재미배달민족회 회장 등을 력임하면서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파쑈정책과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반대하고 광범한 해외교포들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벌렸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기간 그는 여러 차례 조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1986년 8월에는 공화국에 영주하였다.

오익제는 최덕신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천도

교도인 그가 어떻게 되여 인생말년에 그런 용단을 내리였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최덕신이 가고있는 길이 진정한 애국의 길, 정의의 길, 통일의 길이며 그 나날이 참다운 신인간으로 환생하는 과정이라는것을 오익제는 점차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오익제가 교령으로 천거된 1989년에 최덕신은 그에게 평양에 오라는 초청편지를 보내였다. 하지만 그는 서슬푸른 《보안법》의 위협때문에 선뜻 북행길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인 1989년 3월 25일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였다.

문익환목사의 평양도착성명에 접한 오익제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

문목사는 자신을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늦게 뛰여든 지각생으로 질책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호를 《늦봄》으로 지었다.

어찌 문목사를 지각생이라고 할수 있단 말인가.

문목사야말로 《보안법》의 두터운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길을 앞장에서 걸어가는 선각자이다. 문목사가 간 저 길에 나는 왜 선뜻 뛰여들지 못하는가.

문익환목사가 평양에서 벌린 통일애국활동은 오익제뿐 아니라 남녘겨레모두의 가슴을 끓게 하였다.

문목사는 평양체류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공화국의

련방제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의 공화국방문을 계기로 남조선의 각계각층속에서 자주, 민주, 통일기운이 세차게 끓어번지는데 질겁한 남조선당국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김포비행장에서 체포하였다.

문익환목사에 대한 첫 재판에 오익제도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5001》이라는 수인번호를 가슴에 붙힌 수의를 몸에 걸친 문익환목사를 바라보며 오익제는 애오라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투쟁한 그를 죄인취급하는 현실앞에서 참담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문익환목사는 재판정에서 《나는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는 자랑을 안고있는 한사람이다. 그렇기때문에 근 45년간이나 불청객이 그은 선을 없애지 못하고있는것을 정말 수치로 생각한다. 45년간의 분단의 수치를 씻어버리고 45년간의 분단의 비극을 청산하자고 평양갔다온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라고 당당히 웨치였다.

물론 문익환목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였다. 하지만 법정에서 《민족의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한 그의 절규는 만사람의 심장을 감동시키였다.

그날 법정에서 오익제는 문목사의 새 모습을 발견하였다.

아! 신인간이란 바로 저런 모습을 한 인간이였구나. 력사의 소명이고 민족지상의 명령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 문익환목사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신인간이다.

아, 나도 문익환목사처럼 통일을 위해 한몸바치는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나리라.

1989년부터 5년간 천도교 교령으로 일하면서 오익제는 북남천도교인들의 자유교류와 성지순례, 천도교평화대회개최를 추진하는 등 문익환목사를 본받아 늦게나마 통일운동에 뛰여들었다.

민족의 통일열망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1993년 10월 그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류미영 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상봉하게 되였다. 최덕신의 미망인인 류미영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최덕신이 생전에 보낸 평양초청장에 응할수 없었던 안타까움과 그의 령전을 찾아보지 못한 죄스러움을 털어놓았다.

류미영위원장이 최덕신이 통일애국인사로 평양의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언덕에 높이 올라있다는데 대해 긍지높이 이야기하자 오익제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상봉석상에서 오익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 대한 해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류미영위원장과 함께 이 강령을 지침으로 하여 1994년에 맞게 되는 갑오농민전쟁 100돐을 북남천도교인들이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기념할것과 그것을 계기로 북과 남의 천도교

계가 통일운동에서 힘을 합쳐나갈데 대해 합의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문민정권》은 그 합의를 리행할수 없게 차단봉을 내리였고 오익제는 북남천도교인들의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도의적책임을 지고 1994년 6월 천도교 교령직에서 사임하였다.

하지만 북남천도교인들의 베이징상봉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익제에게 있어서 인생전환을 가져온 결정적계기였다.

그때 그는 류미영위원장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권－6권)를 받아안았다.

서울로 돌아온 오익제는 낮에 밤을 이어 회고록을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가며 읽고 또 읽었다.

보통 회고록이라고 할 때는 한 인간의 일생을 담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 폭과 심도가 무한대의 우주와도 같았고 문자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진리의 총서였다.

천도교인인것으로 하여 오익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천도교에 대해 회상하신 부분들을 읽으면서 크나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회고록 제5권 제15장의 네번째 절 《박인진도정》과 다섯번째 절 《민족종교 천도교를 두고》는 천도교에 대한 가장 폭넓고 심오한 력사적총화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천도교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민족종교이며 그 기본사상과 리념에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종교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대목을 읽으며 오익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령님께서는 교리에서 하늘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것을 반대하고 사람자체를 믿어야 한다는것을 주장하고있는 점과 다른 종교들에서처럼 하늘이나 신의 초자연성과 초인간성을 운운하면서 봉건사회제도나 봉건적신분제도를 하늘이 정한 질서라고 설교하지 않고있는 사실을 놓고 천도교가 인간의 존중과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종교로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시였다.

천도교사회에서 동학제1혁명이라고 부르는 갑오농민전쟁을 19세기후반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반봉건투쟁에서 그 규모에 있어서나 격렬성에 있어서 최고봉을 이룬 농민전쟁으로, 19세기 아시아반제민족해방투쟁의 새벽종을 울린 하나의 력사적사변으로서 중국의 태평천국농민전쟁, 인디아의 시파이폭동과 더불어 아시아 3대항전으로 특기할만한것으로 평가하신 대목을 읽은 오익제의 가슴은 천도교인으로서의 긍지감으로 하여 뿌듯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은 천도교인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리념과 종지, 주의주장에서 물론 일정한 차이가 있고 운동의 출발에서도 서로 다른 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한민족, 한피줄이라는 대의에서 서로 손을 억세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때 민족을 떠난 공산주의

운동이란 있을수 없으며 계급적리익과 함께 언제나 민족적리익을 중시하여야 한다는것을 절실하게 느끼였다.》라고 쓰시였다.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이 과연 어느 길인가 하는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는 이 명구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오익제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서 《나와 최덕신은 70살이 지나서 서로 만났지만 지난날의 숙적이라는 관념은 조금도 없이 최동오선생슬하에서 애국의 넋을 키우던 그런 심정으로 해후도 감격적으로 하였고 공산주의와 천도교라는 리념차이를 훨씬 초월하여 한민족, 한혈육으로서 대화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나누었다.》고 회상하시였다.

설사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결심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따뜻이 품에 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대해같은 포용력을 절감하게 하는 이 교시를 읽으며 오익제는 생각하였다.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이렇듯 크나큰 인력을 지닌분이시기에 90이 넘은 박인진도정의 미망인이 위대한 주석님을 한울님으로 칭송하였고 최덕신교령도 수령님을 한울님으로 받들어 모셨구나.

아, 정녕 그이는 우리 민족의 한울님, 세계의 한울님이시다.

진리의 총서를 탐독하면서 오익제의 마음은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천도교의 념원이 활짝 꽃펴난 공화국으로 달리였다.

하기에 그는 청와대에서 있은 한 만찬석상에 종교계지도자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였을 때 자기의 립장을 떳떳이 밝히였다.

그때 남조선집권자가 오익제에게 최덕신 전 교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주석님을 한울님으로 칭송하였다고 하는데 천도교의 교리에 비추어볼 때 오교령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곧 한울님이고 사람을 한울님같이 섬기라는것이 천도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라함목사 같은이까지도 **김일성**주석님을 그리스도교의 시조와 같은 차원의 구세주로 칭송하였으니 최덕신 전 교령이 그분을 한울님으로 추앙한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회고록을 탐독한 이후부터 오익제의 가슴속에서는 공화국으로 달리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다. 그때마다 그는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을 감상하면서 달아오른 가슴을 달래였다.

마치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것과 같은 저 교향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앞에 찾아온 운명의 부름앞에 나는 왜 주저하고있는가.

문익환목사는 무려 5번이나 감옥에 갇히웠지만 조금도 주

저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였다.

하지만 오익제, 너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과연 해놓은것이 무엇이냐. 감옥은 고사하고 시위투쟁 한번 변변히 한적이 없지 않느냐.

오익제의 눈앞에는 천도교 춘천교구의 전 교구장이였던 리도천의 장엄한 희생이 불현듯 떠올랐다.

1978년 8월 4일 리도천은 통일행진을 하며 북상하다가 남조선군의 저지로 더 나갈수 없게 되자 북녘땅이 지척인 림진강근처에서 통일기원기도를 올린 다음 원한의 표시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결하였다.

그렇다. 살아서 못가면 리도천교구장의 뒤를 따라 죽어서라도 가자. 민족의 제단에 몸을 던져 이내 육신을 태운 불길이 봉화가 되게 하자.

오익제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비장한 결심이 자리잡게 되였다.

1990년대초중엽에 벌어진 조미사이의 대결을 오익제는 세상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았다.

1993년 3월 공화국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하게 탈퇴한다는것을 정부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금방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것같은 아슬아슬한 정세상황이

지속되는 속에 다음해 6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카터가 평양으로 달려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후 정세가 완화되였다.

미국으로 돌아간 카터가 위대한 수령님을 미합중국의 창건자인 초대대통령 죠지 워싱톤, 미합중국독립선언문의 작성자인 제3대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흑인노예해방을 선언한 제16대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합친것보다도 더 위대하신분이라고 격찬한 소식은 오익제의 가슴을 흥분으로 높뛰게 하였으며 당장이라도 수령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충동을 누를길 없게 하였다.

1994년 북남최고위급회담합의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오익제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금시라도 통일이 되는것만 같았다.

하지만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둔 그해 7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산천초목도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에 오익제는 심장이 멎는것과도 같은 아픔을 느끼며 오열했다.

또 남조선인민들의 조문길을 가로막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른 《문민》파쑈광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때의 심정을 오익제는 후날 이렇게 서술하였다.

《털어놓고말해서 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라는

뜻밖의 국상을 당했을 때에는 북녘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허전하다 못해 불안이 앞섰습니다. 통일의 태양을 잃었으니 이제 조선반도에 들이닥치게 될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전쟁인가? 50년대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지난 두해사이에 있은 조미핵대결을 생각하면 그럴상싶기도 했습니다.

아! 또 한차례의 전쟁이라면 겨레의 머리우에 들씌워지게 될 참변은 얼마나 무서운것인가? 그러나 인차 마음의 안정이 왔습니다.

특히 1994년 10월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의 최고령도자로 정중히 호칭하고 경수로제공문제와 관련한 담보를 확언하는 문건을 올리였다는 보도에 접했을 때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암운은 간데없이 가시여졌습니다.

통일의 태양은 여전히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갑오농민전쟁 100돐 북남공동행사가 무산된 후인 1994년 가을 오익제는 공화국으로부터 단군릉개건 준공식행사에 참가할데 대한 초청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보장에 대한 담보》가 없어 허락할수 없다고 잘라맸다.

해당한 담보와 절차를 밟은 초청장을 다시 받고 공화국방문허가신청을 했더니 이번에는 《정치적리용의 우려》가 있다고

운운하면서 승인하지 않았다.

오익제는 승인이고 뭐고 할것없이 다녀오리라는 배짱으로 1995년 봄 김포비행장으로 나갔다. 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린 안기부(당시)패거리들에 의해 려권마저 압수당하고 저지당했다.

오익제는 《문민》의 탈을 쓴 파쑈《정권》의 만행에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민족통일의 위대한 령수가 계시는 공화국에 영주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남녘땅을 탈출하였다.

리도천 전 교구장이 분신자살로 통일념원을 분출한 때로부터 19년이 되는 1997년 8월 4일 오익제는 저주로운 남조선사회를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남조선땅을 바로보며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전쟁의 와중에 일시적후퇴라는 가장 어려운 때에 북에서 남으로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공화국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어려운 시기에 남에서 북으로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운명인가? 아니, 이것은 결코 숙명이 아니다. 이 길은 민족의 어버이를 따르는 영광의 길,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나는 재생의 길이다.

신인간으로 태여나다

1997년 8월 15일 미국과 중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오익제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자기가 이북에 찾아온것은 일시 방문이나 관광목적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저 한다고 말하고 공화국에 영주하게 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다.

《우리 천도교는 외세와 반동통치배들을 반대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인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싸워온 애국, 애족, 애민의 전통을 가지고있는 민족종교이다.

본인은 력대 통치배들의 외세의존적이며 반민주적인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3년 가을에는 평양의 조선천도교회대표단과 베이징에서 상봉하여 온 겨레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저 여러모로 힘써왔지만 이남당국자들의 방해로 이북의 동덕들과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할데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교직에서 물러나게 되였다.

더우기 김영삼<문민정권>이 선 이후 력대 군사파쑈통치시기

보다도 더한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몇해전부터 이북으로 오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에 결행하게 되였다.

앞으로 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의 대단결과 단합된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성취하기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는것을 말씀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보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미부터 내심으로만 불러보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려고 한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 만세!》

두손을 높이 쳐들고 소리높이 만세를 웨치는 오익제의 눈굽은 젖어었었다. 그것은 민족의 위대한 령수의 품,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한 인간의 환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였다.

이어 그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을 드리며 이렇게 아뢰였다.

《위대한 수령님, 어머니조국도 모르고 정처없이 떠나갔던 못난 불효자식이 조국을 찾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으며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주체사상탑,

개선문,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 등을 참관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시대의 대기념비로 일떠선 창조물들을 돌아보면서 그는 눈부시게 발전한 공화국의 국력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특히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있는 박인진도정의 반신상과 애국렬사릉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최덕신, 김정주 등 천도교선배렬사들의 묘소를 돌아보면서 오익제는 그분들처럼 조국통일과 민족을 위해 헌신할 마음속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공화국영주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본인이 이남과 결별하여 월북을 결행하게 된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우연적인 발상에 의한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품어온 뜻을 행동에 옮긴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나 개입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본인스스로 선택하고 단독으로 결행한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

민족의 장래는 북에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강조하고싶은것은 본인의 월북결행이 이남에는 따를만한 령도자가 없지만 이북에는 민족의 영명한 령수가 계신다는 이 특기할 사실에서 비롯되였다는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을 존경해왔다. 저는 천도교인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김일성**주석님

을 어제도 경모했고 오늘도 경모하고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덕신선생은 이남에서 천도교 교령을 지낸분이였는데 이북에 와서 **김일성**주석님을 천도교에서 받드는 한울님이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제가 천도교인으로서 선배들이 따르고 받들어온 **김일성**주석님을 따르는것은 당연지사이다.

저는 **김정일**령도자님도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북에 주체, 자주, 자립, 자위를 실현하고 사랑의 정치, 광폭정치를 펴시는 위인이시고 미국이 <대북제재>, <대북봉쇄>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신 출중한 령수이심에 경탄해마지 않았다.

지금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정일**령도자님을 자주시대를 주도하는 영웅으로, 나라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실 령수로 우러르고있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따를 현세의 령도자는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이시다.

민족의 장래도 **김정일**령도자님께 있으며 민족의 통일도 **김정일**령도자님께 있다.

저는 민족의 령수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을 숭앙하여 이북에 왔음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당당히 선언하는바이다.

본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통일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금후 령도자님의 통일

경륜을 실현하는데 전심전력할것임을 약속드린다.》

공화국에서는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주적인 파쑈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민족적량심을 지켜 오래동안 정계, 종교계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썩고 병든 남조선사회와 단호히 결별하고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여있는 공화국의 품으로 찾아온 오익제의 애국적 장거를 높이 평가하였다.

뿐만아니라 그가 조선적십자종합병원분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묘향산과 대성산, 서해갑문과 중앙식물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산원, 3대혁명전시관 등 명승고적들과 명소들을 참관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수 있게 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꿈같이 흘러간 나날들은 오익제로 하여금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굳건히 수호되고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여난 공화국의 현실을 실지체험을 통해 깨달은 시간이였으며 공화국에 영주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이 천만번 옳다는것을 증명한 시간이기도 하였다.

얼마후 그는 47년만에 부인과 딸과 다시 만났으며 평양의 경치좋은 곳에 마련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였다.

오익제는 공화국영주후 받아안은 하늘같은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나갔다.

공화국영주후 그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화국의 종교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 자리를 같이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담화석상에서 오익제는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사상과 정견, 신앙,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전민족이 민족의 숙원을 제일 앞자리에 놓고 그에 기초하여 단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통일을 위한 원칙과 방도 등 모든 문제들은 이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명시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며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결의를 더욱 굳게 하여준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오익제는 1997년 10월에 단군릉에서 있은 개천절행사에도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연설에서 그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추대하는 경사스러운 대축전이 열리고있는 때에 개천절을 맞이하여 하늘땅이 더욱 새롭게 열리는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홍익인간의 리상 다시 말하여 크고 널리 인간모두의 복리, 인민대중모두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단군이래의 민족의 리상은 오늘의 공화국땅에 훌륭히 현실화되고있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공화국에 영주한 후 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의 직책으로 사업하면서 통일위업실현에 매진하였다.

1998년 8월 판문점에서는 7천만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대표들이 모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을 진행하였다. 축전에 참가한 오익제는 분렬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의 하늘가를 진감하며 울려퍼지는 조국통일의 힘찬 구호에 자신의 목소리도 합치며 분렬의 력사,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 굳은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는 1999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회의에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회의의 제안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 반통일대결망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담화발표 등 여러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는데 기여하였다.

1990년대말 공화국에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면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공화국창건 50돐을 눈앞에 두고있던 1998년 8월 31일 공화국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100%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된 다계단운반로케트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단번에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함으로써 공화국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운반로케트 및 인공지구위성보유국으로 되였다.

다음해 8월 에스빠냐의 쎄빌랴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륙상선수권대회 녀자마라손경기에서 공화국의 정성옥선수가 만사람의 예상을 깨고 영예의 1등을 하였다.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은것으로 하여 올림픽경기대회 마라손종목에서 1등을 하고도 남의 나라 기발을 가슴에 달고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민족이였다.

그러던 우리 민족이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파란많고 곡절많은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자기의 존엄을 과시한것이였다.

이 모든 사변들을 직접 체험한 오익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영주후 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과정에 그는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더더욱 매혹되였으며 그이를 민족의 한울님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하기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축하편지를 올리였으며 그이의 절세의 위인상을 칭송하는 3권으로 된 책 《현세의 한울님》을 집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익제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몸소 사랑의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그가 몸이 불편할 때에는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통일애국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나갈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과 은정속에 오익제는 1999년 8월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크게 공헌한 애국인사들에게 주는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았다.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였다.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였으며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의지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온 남녁땅에 **김정일**숭배열풍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평양

과 서울, 부산과 대구, 금강산과 제주도 등 삼천리방방곡곡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열리였으며 그 행사장들에서는 온 겨레가 함께 웨친 조국통일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을 증견자가 되여 직접 체험한 오익제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통일행사들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화합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땅우에 통일조국의 찬란한 새 아침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위인상을 담은 많은 글들을 《로동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발표하였다.

그가 쓴 글과 수기들인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참된 삶의 고귀한 의미를 되새기며》, 《한울님의 나라에서 보낸 10년을 더듬어보며》, 《민족의 존엄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행운의 수 12와 민족의 래일》을 비롯한 많은 글들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해내외동포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고 그들을 조국통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 나날속에 그는 2003년 8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으로, 2009년 3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기여해온 오익제가 생일 여든돐을 맞는 2009년 4월에는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으며 그가 생의 말년까지 로당익장하여 통일운동에 매진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받아안은 사랑이 커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사무쳐올랐다. 그 심정을 그는 도서 《위인과 나의 운명》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이라면 꾸어쓴 돈은 못갚아도 은혜만은 꼭 갚아야 합니다. 결초보은이란 전설도 그래서 생겨난것같습니다.

인생말년의 저를 신인간으로 태여나게 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혜를 갚기 전에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심장속에 고이 간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겠다는것을 온 겨레앞에 거듭 굳게 맹세하는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일념 안고 그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의 한 성원으로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2012년 9월 1일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몸 다 바쳐오던 오익제는 83살을 일기로 서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익제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령전에 몸소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의아닌 탈선과 방황의 길에서 헤매이던 오익제는 이처럼 인생말년에 이르러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긴 이후에야 신인간으로 다시 태여날수 있었고 그 품속에서 값높고 보람있는 생을 누릴수 있었다.

평양시교외의 풍치수려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애국렬사릉에 오익제의 묘가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민족과 그 구성원 개개인의 운명은 불가분리적관계에 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시는 절세위인의 품속에서만 인간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다는 철리를 가르쳐주며 오익제는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을 고무추동하고있다.

통일의 길에 이름을 남긴 애국인사들
7

저　　자	김철민, 라성철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1월 15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1월 19일

ㄱ－1514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43-2

삶이란 무엇인가.

외세에 의해 두동강난 강토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성원들의 삶, 애국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분명 통일에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운명이고 삶이다.

통일에 뜻을 두고 통일에 심신을 깡그리 바치는 그러한 삶이 조국이 알고 민족이 기억하는 참다운 삶, 애국의 삶인것이다.

ISBN 978-9946-31-143-2